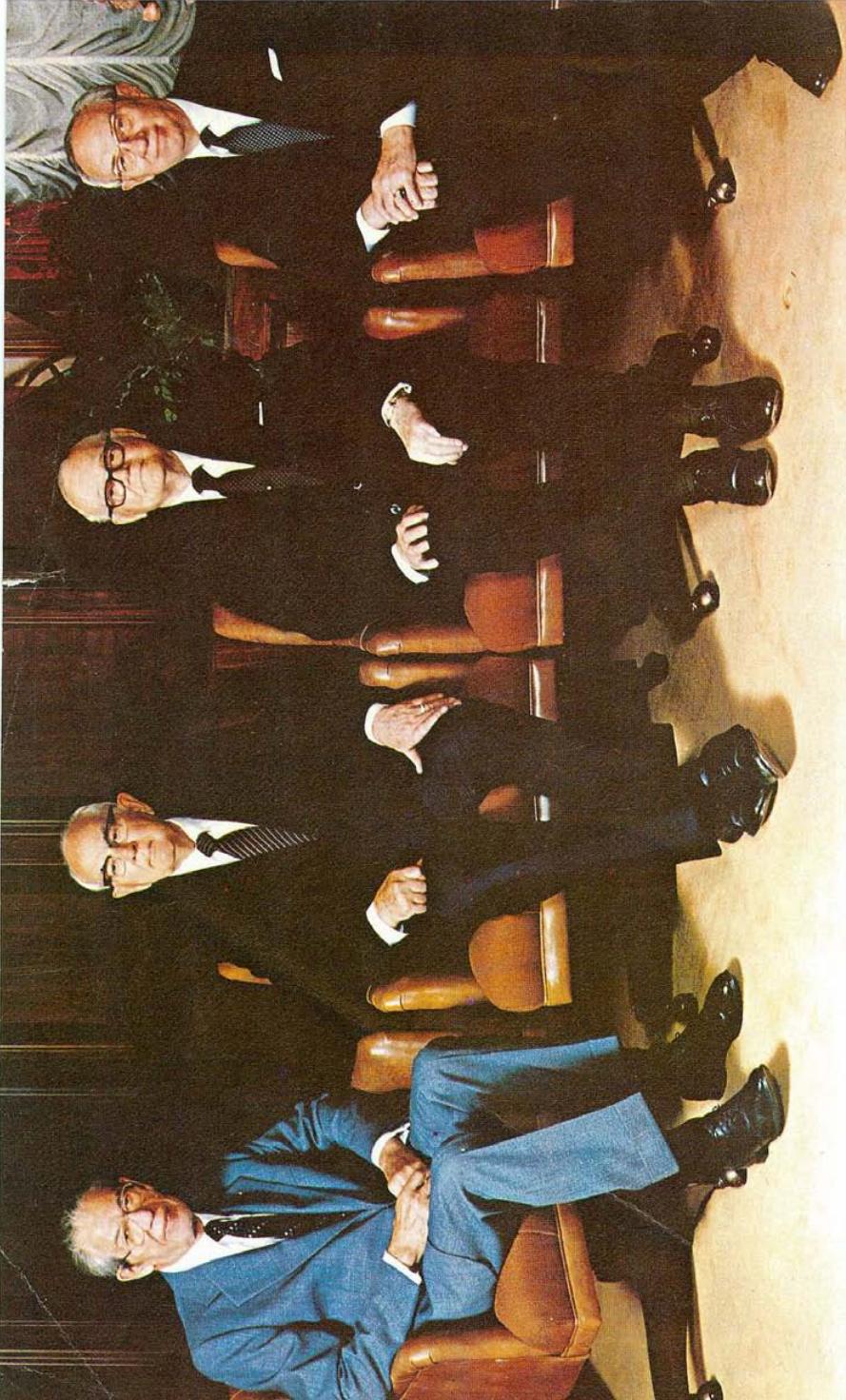


# 성도의벗 4 1982



발달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쇠로부터 온 열온 헤너 부대관장, 스벤서 더블류 킹을 대관장, 예리운 저 몽니 부대관장, 고든 비-힐클리 부대관장.



차례  
성도의 벗 4  
1982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킹볼  
엔 얼돈 태너  
매리온 지 풍미  
고든 비 헝글리  
십이사도 평의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리그랜드 리차즈  
허워드 더블류 헨더슨  
토마스 애스 모스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워스  
브로스 알 맥공키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고문  
엠 러셀 밸러드 이서  
로렌 시 드  
렉스 디 피네기  
찰즈 에이 디데어  
조지 피리  
에프 엑시오 부수

제151 반 연차 대회 보고 및 교회 본부 역원 지지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신앙 : 종교의 정수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오 거룩하신 구세주여	널 에이 맥스웰 장로
행복과 승용을 위한 계획	리차드 디 스코트 장로
대회가 열릴 때면	하워드 더블류 헨터 장로
사람이 거듭 나지 아니하면	매리온 저 롬니 부대관장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예언자의 생활에서 주어진 모범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복음의 빛	애드리 나이 고마쓰 장로
작은 일과 영생	안젤 아브레이 쟝로
왕국의 힘은 내부에 있음	던 엘 라슨 장로
너희는 준비하라	리그랜드 리 샤즈 장로
아록 신권	보이드 케이 페커 장로
아론 신권 소유자의 성역	에이치 베르 피터슨 감독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 있으면	51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	엘 톰 메리 장로
청소년이 지켜야 할 네가지 사항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완전한 자유의 벗	매리온 저 롬니 부대관장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브로스 앤 매클루 장로
선교 사업으로 성결케 됨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느냐	찰스 에이 디레이 장로
인간 대 인간으로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요셉 스미스 : 우리 세대의 예언자	에프라 태프트 베스 회장
예언자를 따르라	마크 이 피터슨 장로
하나님의 사업에 대직함	칼로스 이 에시 장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요시히코 기구찌 장로
이유를 가르침	풀 에이치 딘 장로
확대되어 나가는 요셉 스미스의 유산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
자신이 누군가를 기억하십시오	엔 엘론 태너 부대관장
편익을 초월하는 사람	제이 리 샤즈 클라크 감독
결혼 생활과 가정을 위한 안정한 장소	바바라 비 스미스
봉사의 기쁨을 발견함	조안 매틸드
봉사를 통해 강화됨	나일 랜드
품위있게 받아들이도록 지혜롭게 춥시다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
복지 원리의 생활화	매리온 저 롬니 부대관장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전환기에 선 상호부조회	바바라 비 스미스
끊임없는 배움의 길	셜리 더블류 토마스
상호부조회와 복지 사업	에리언 알 보이어
여성의 고귀한 지위	에프라 태프트 베스 회장
나의 전문은 자비를 베풀는 것이라	매리온 디 행스 장로
지역 지도자 메시지	최 옥환 서울 스테이크부장
해외 소식, 지역 소식	171

성도의 벗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톡진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톡진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인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성도의 벗사람  
연락처를 시기 바랍니다.

통권: 제201호, 제18권 제4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932  
발행일: 1982년 4월 1일(월간지)  
발행인 겸 편집인: 유진 피 티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 724-6832  
발행소: 일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내체 구자 514091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      수  
STOCK NO. PBMA0449KO PRINTED IN SEOUL, KOREA 4/82 International magazine

© 1982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151 반 연차 대회 보고

1981년 10월 3~4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 태버내클에서 열린  
대회의 일정 및 말씀



전 세계에서 온 회원과 지도자들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151 반연차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솔트  
레이크시티의 유서깊은 템플스퀘어와  
인근 전물에 다시 모였다.

그러나 이번 가을 10월 3—4일 양일  
에 걸친 모든 모임은 교회의 12대 대관  
장이신 스펠서 더블류 캠볼 대관장이  
병환으로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스펠서 더블류 캠볼 대관장은  
지난 9월 4일에 솔트레이크시티 말일  
성도 병원에 입원한 이래 병상에 계셨  
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병환으  
로 연차 대회에 참석할 수 없었던 1969  
년 10월 이래로 대관장이 대회에 참석  
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1981년 10월의 모든 대회 모임은 대  
관장의 제 1보좌인 엔 엘든 태너 부대  
관장의 감리하에 제 2보좌인 매리온 지

롭니 부대관장과 고든 비 힙클리 부대  
관장의 사회로 개최되었다.

캠볼 대관장과 또한 병환으로 입원해  
있는 지 호머 더럼 장로와 디어도어 엠  
버튼 장로와 남미 우루파이 몬테비데오  
선교부를 관리하고 있는 에프 버튼 하  
워드 장로를 제외하고는 모든 총관리  
역원이 이 대회에 참석했다.

과거 10년간 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거의 정기적으로 열렸던 지역 대표 세  
미나는 이번 가을 대회에서는 열리지  
않았으나 1982년 4월 연차 대회 때 개최  
될 예정이다.

종전과 같이 대회의 모든 모임의 일  
부 또는 전부가 각국 말로 온 세계에 방  
송되었다.

대회가 개최되기 일주일 전인 9월 26  
일 오후에는 가을철 본부 상호부조회  
모임이 태버내클에서 열렸으며 세계 각  
곳에 방송되었다.

＊

## 교회 본부 역원 지지



고든 비 힙클리 부대관장  
대관장의 보좌

우리는 고든 비 힙클리 장로를 대관장 단 보좌의 일원으로 지지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넬 에이 맥스웰 장로를 십이 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지지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치 호머 더럼 장로를 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의 일원으로 지지합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지하신 이 형제들을 제외하고는 지난 연차 대회 이후로 총판리 역원의 변동은 없읍니다. 그러므로 현재 조직되어 있는 교회의 모든 총판리 역원과 본부 역원의 지지를 끓겠습니다. 지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대회 방문자들

## 신앙 : 종교의 정수



고든 비 힙클리 부대관장  
대관장의 보좌

“이 교회가 박해와 조소를 받으며, 재산을 버리고……또한 사랑하는 사람 곁을 떠나야 했으면서도 앞으로 전진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예언자이신 킴볼 대관장님에게 보낸 우리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 뭉쳐서 한마음 한 음성으로 주님의 축복에 감사드리며 킴볼 대관장님이 하루 속히 회복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병석에 계신 지 호며 더럽 장로와 디어도어 엘 버튼 장로를 위해 기도하며 우루파이 선교부를 관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버튼 하워드 장로를 기억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살고 계시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곳에 오시기 위하여 노력한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내일 헤어질 때 우리 모두 생명의 뼈를 배불리 먹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이 대회를 지켜 보는 분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간구를 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라디오, 텔레비전, 전신 시설을 발명하여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해준 사람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 전역의 교회 회원을 위해 위성 통신 시설의 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북쪽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산 위에 있는 새로운 시설의 완성으로 이 대회의 진행 과정과 연사들의 말씀이 적도 위 35,900킬로미터까지 전송됩니다. 이 전파는 중폭되어 각국의 스테이크 센터에 설치된 수신 안테나에 수신됩니다. 이와 같은 스테이크 센터는 현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18개월 후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갖춘 곳이 4, 5백 개로 늘어날 것이며 미국내의 대부분의 회원들은 라디오나 텔레비전이나 유선 텔레비전을 통하여 가정이나 스테이크 센터에서도 연차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날로 발전하므로 우리는 한 장소에 모이고 싶어하는 사람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큰 건물을 결코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가중되는 여비 때문에 그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학은 보다 편리한 방법을 선사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교회 회원이 어디에 있든지 친근하고도 직접적인 방법으로 그의 택하신 예언자의 권고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도록 주님께서 인간에게 영감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통신은 교회를 하나의 큰 가족으로 묶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시설과 곧 이용하게 될 시설을 대체로 시대적인 상황과 요구에 따라 다른 것으로 교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3, 4분 동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십이사도 평의회의 일원으로 지지받은 것은 20년 전 10월 대회에서의 일입니다. 그 전에는 2년 반 동안 십이사도 보조로 일했습니다. 이 기간은 다사다난한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에 위대하고, 영적인 네 분의 지도자, 곧 메이비드 오 맥케이, 조셉 필딩 스미스, 해롤드 비 리,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이 이 교회를 인도했습니다. 이 시기는

교회가 놀랄 만큼 전세계로 발전한 시기였습니다. 또한 수백만 명의 회원이 늘어난 시기였습니다.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무섭게 음성을 높인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이런 비난이 우리의 대업을 방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신을 더욱 보호하고 돌보기에 이르렀고 때로는 회원이 늘어나게 하기도 했습니다.

나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시기는 의욕에 찬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나에게 많은 책임과 만족스러운 경험을 안겨 주었던 시기였으며, 세계 도처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던 시기였습니다. 나는 세계의 많은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초대받았으며 여러분이 베푸신 친절과 호의에 감사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모임에 참석하여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간증드리는 것을 귀기울여 들었습니다. 나는 슬픔에 직면하여 여러분과 함께 울었고, 여러분이 이룩한 것을 보고 여러분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여행을 할 때마다 신앙이 커졌고 지식이 늘어났으며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사랑이 강해졌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나는 소련을 포함하여 중공 및 동유럽 여러 나라를 순방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훌륭한 사람들과 따뜻하게 맞아 준 것에 감동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물론 거리에는 정치적으로나 이데올로기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동일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바램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만일 그들에게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들의 마음은 동일한 진리에 똑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평화를 갈망하며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형제애를

원하며 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갈망하며 선전을 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지상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위대하고 놀라운 책임입니다. 많은 나라가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문호의 개방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주님의 시대에 주님께서 문호를 개방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업 계획표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20년 이상 총판리 역원으로 봉사해 왔습니다. 나는 이 기간에 아시아의 몇몇 훌륭한 국가에서 기적적으로 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업이 강해지는 것을 직접 관찰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20년 전만 해도 복음이 전파되리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나라에 수십만 명이 넘는 회원과 강한 와드와 스테이크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런 나라의 문호를 여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둘이키셨습니다. 오늘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진행되고 있을지도 반드시 일어나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20년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사업의 위대한 발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킵볼 대관장, 태너, 룸니 부대관장, 십이사도 형제들, 칠십인, 관리 감독단 형제 여러분의 신뢰에 대해 감사합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어느 자리에 부름을 받든지 충실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새로운 부름에 대해 친절한 말씀과 격려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성스러운 부름은 나에게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전에 내가 누구에게든 기분을 상하게 한 일이 있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명이 걸든 짧든 사랑과 신앙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며 인내와 관용의 정신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남을 비판하고 혐오하고 욕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네 모든 대화로, 네 모든 기도로, 네 모든 훈계로, 네 모든 행위로, 네 형제를 격려해 주라.”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축복하며 영원히 너를 구하여 주리라.”(교성 108 : 7-8)

이제 내가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다른 일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동부로부터 이 도시에 온 저명한 기자 한 분이 말한 바 있습니다. 나는 그분의 강연을 직접 듣지는 않았으나 신문에서 그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가 한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확신은 종교의 적입니다.” 그의 말은 나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나는 확신이란 완전하고 완벽한 신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종교의 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종교의 정수입니다.

확신은 확실성입니다. 이것은 신념입니다. 이것은 지식에 이르게 하는 신앙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이 됩니다. 이것은 또 열의를 갖게 합니다. 적대자와 편견과 냉담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열의에 비길 만한 자산은 없습니다.

거대한 건물은 결코 불확실한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위대한 사업은 결코 우유부단한 지도자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없이는 결코 남을 설득시킬 수 없입니다. 개인적인 확신의 근본이 되는 신앙은 종교적인 실천과 행동의 밑거름이 되어 왔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물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 : 15-16)

그리고 주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무리를 가르치면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밟고 알았삽나이다”(요 6 : 66-69)

구세주가 돌아가신 후에 그의 사도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증거하는 그분에 대해서나 그들이 가르치는 그분의 교리에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었다면 파악 그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을 보고 또 음성을 듣고 나서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후 30년 이상 자신의 시간과 힘과 생명을 바쳐 부활하신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위안이나 안전에 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그 시대에 알려진 세상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 : 38-39)

바울은 로마에서 처형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스러운 아들이라는 확신에 찬 마지막 간증을 그의 죽음으로 인봉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초대 기독교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와 부활에 대한 신앙을 부인

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당하고 죽기를 택했습니다.

루터나 후스나 큐빙글리 등과 같이 위대한 사람들을 담대하게 해준 그와 같은 확신이 없었다면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에도 고대와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확신이 없으면 종교적인 대의를 이를 수 없으며, 힘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원동력을 잃게 됩니다. 신학 자체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되 실천이 따른 간증은 논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경륜의 시대는 아버지와 아들이 요셉 스미스라는 소년에게 나타나신 영광스러운 시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소년은 그와 같은 경험을 한 다음에 그 고장의 목사 한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목사는 “그것을 경멸하면서 매우 노하여 그것은 모든 악귀에서 나온 것이며 시현이나 계시 같은 것은 이미……사라졌고 앞으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 : 21)

다른 사람들도 그를 펑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한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제로 빛을 보았으며 그 빛 가운데 두 분이 계신 것을 보았고 그분들은 실제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시현을 보았다고 말하여 미움과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사실 그대로이며 내가 이런 말을 하여 사람들이 욕하고 펑박하고 나에 대하여 모든 거짓으로 말할 때 나는 마음속에 왜 저들은 내가 사실을 말하는데 나를 펑박할까 마음속으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실제로 시현을 보았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으며 왜 세상이 나로 하여금 내가 참으로 본 것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일까?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 : 25)

이 말씀은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실제로 정오의 따뜻한 햇빛처럼 그려한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확신은 결코 혼들리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그분의 간증을 들어 보기로 합시다.

“또 이 어린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 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교성 76 : 22-24)

그는 자신이 인도해야 할 대업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부름에 확신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것을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다가올 자신의 죽음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폭도의 손에 넘겨 주려고 하는 자들을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는 생명의 피로써 자신의 간증을 인정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생활과 행동에서 확신이 그들의 종교를 고수하기 위해 치러야 할 희생을 감수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안락한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뉴욕에서, 그 다음에는 오하이오와 미주리에서, 마지막으로 일리노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계곡에도착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부의 방대한 지역에 거주지를 만들기 위해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참여하고 있었던 대업에 대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길고 어려운 여행과 질

병과 자연의 힘과 잔인한 죄의 습격으로 죽어갔습니다. 미주우리 강과 솔트레이크 계곡 사이의 어딘가에는 6천 명이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진리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생명 그 자체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몇 년 전에 레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어느 한 모임에서 하신 홀륭한 말씀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분명히 알고 있듯이 나도 직접적인 계시로 요셉 스미스에게 회복해 주신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이며 세상의 어두움을 쫓아버릴 빛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스펜서 더블류 킹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분은 나의 친구요, 구세주요, 주님이요, 하나님입니다.” (성도의 벗, 1979년 4월호, 111—2페이지)

이 교회가 박해와 조소를 받으며, 재산을 버리고 또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먼 나라로 여행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의 곁을 떠나야 했으면서도 앞으로 전진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초기부터 그랬던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그 확신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업은 참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수백만의 마음속에 뿌리박혀 있는 신앙은 언제까지나 우리 생활에서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자기 가족에게 수백만 불의 경제적 부담을 주는 약 3만 명의 복음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사업의 진실함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현재 교회 회원은 5백만 명에 육박하

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성장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매년 성령의 권세에 의해 감동된 수십만 개종자의 마음에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이것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앙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우리는 수백 개의 새로운 예배당을 짓어야 합니다. 이 일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목적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신앙에 가득 찬 십일조를 바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바칩니다. 그것은 이 사업이 참되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기이하고 놀라운 것은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러한 확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의 공식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7:17 참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며, 기도와 모든 진리의 근원을 간절히 구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음을 생활화하고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함으로써 성신의 권세에 의하여 확신과 간증과 특별한 지식을 얻는다는 것을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알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단지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노력과 기도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확실하고 간증은 확고합니다.

만일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그러한 확신을 잃게 된다면 이 교회는 많은 다른 교회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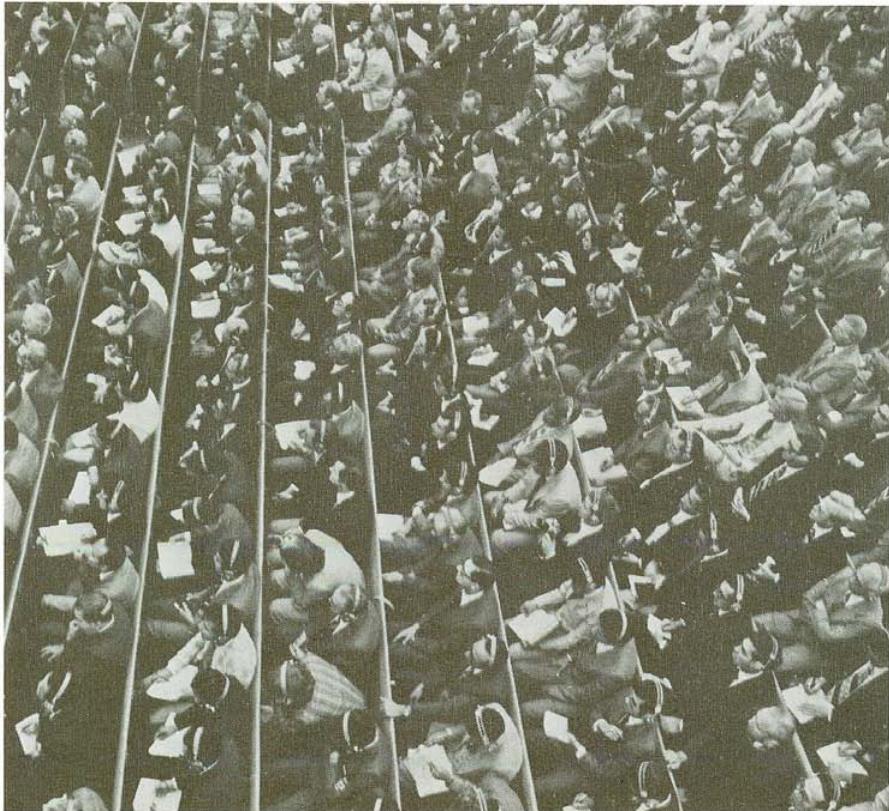
쇠퇴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없이 증가하는 회원들이 성신의 권세로 닥쳐오는 역경의 폭풍우를 이겨 낼 수 있는 이른바 간증이라는 개인적인 확신을 찾고 발전하게 되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말할 때 망설이는 자나 확고한 신념이 없는 자나 불확실하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다음 말씀이 적절할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울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울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요한

### 계시록 3:15-16)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이 위대한 대회가 시작되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구하는 동시에 확신을 갖고 이 진리를 증거합니다. 나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구세주이시며 인류의 구속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심을 압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의 일부이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압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위대한 것이며, 이 일에 관한 우리의 신앙은 강하고 확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 오 거룩하신 구세주여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인품과 지식과 성취한 경험에 있어서 그분과 견줄 만한 자가 없다고 간증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주님과 우리의 훌륭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친구 데관장님과 그분의 보좌에게 나를 십이사도의 일원으로 불러 주신 데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들과 비교해 볼 때 나는 참으로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일을 손색없이 훌륭하게 처리해 온 아내와, 훌륭하시고 자비로우신 부모님과 자매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으며 영원한 동반자를 만나 결혼한 현명한 자녀들에게 깊은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물론 일상 생활에서 내가 진실로 십이사도의 부름을 받아들였음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겸손히 우리의 거룩하신 구속주에 대한 찬양과 간증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창조주, 독생자, 평화의 왕자, 옹호자, 중보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야, 구원의 시작과 끝, 왕 중 왕이라고 묘사되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래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임을 간증드립니다. (교성 18:23 참조) 주님은 인품과 지식과 성취한 것과 경험에 있어서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경지에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러나 그분은 놀랍게도 우리를 자신의 친구

라고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5:15 참조)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지배하시는 단 한 분의 완전하신 분으로 그와 같은 이는 없습니다. (이사야 46:9 참조)

그의 예지와 업적은 지금까지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으며,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자들의 능력과 업적을 훨씬 능가합니다. (아브라함서 3:19 참조)

주님은 우리의 순수한 선과 성취에 대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면 우리는 우리가 단순히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배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중병에 걸렸을지라도 감히 주님께 우리의 고통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미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질병과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엘마서 7:11-12; 마 8:17 참조) 우리의 무거운 죄 때문에 주님은 모든 사람들보다 낮게 몸을 낮추게 되었습니다. (교성 122:8 참조)

우리는 결코 주님이 아셨던 것처럼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며, 앞으로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은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한 능력과 우리를 공감시키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려므로 그분이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같보리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처럼 그를 대신할 숲에 갇힌 어린 양도 없었습니다.

가정을 그리워하는 자들이 집없이 언제나 떠돌아다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께 감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한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우도 끌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마 8:20)

우리는 잘못 전해지고 오해받고 배신향한 것에 관해 참으로 주님과의 논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까지도 실망하여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 갔을 때 그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요한복음 21:3 참조)

우리는 불의에 대해 그분께 어떻게 불평하며, 사법 제도의 모순에 대해 법률과 그 절차의 악용을 견디어 낸 거룩하고 위엄을 지닌 율법의 제정자인 그분께 어떻게 불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던 그분에게 버림받은 느낌에 대해 불평할 수 있을까요? (교성 76:107; 마 27:46 참조)

아무리 자녀를 갖기 원하는 자녀 없는 자 일지라도 그분의 심정을 해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차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예수께서 우시니……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 이같이 행하시고 나서 또다시 우시더라”(마 19:14;니 삽 17:21—22)

우리의 동정이나 자비를 주님께 비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혹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그 옆에 있는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누가복음 23:43)

지위를 탐하는 유혹이 너무 강했으므로 그것과 타협했다고 변명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중에도 놀라운 고결성을 나타내 보이신 분은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사탄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마 4:8) 주겠다고 제시했으나 그분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빙정령의 회생이 되는 것을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마지막 소유물인 웃도 그가 돌아가셨을 때 제비뽑아 나누었습니다. (마 27:35 참조) 그러나 그분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생수를 주어 우리가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하셨으나 그는 십자가에서 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요한복음 4:10—19; 마 27:48 참조)

우리는 그분께 자유에 대해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최후의 적, 곧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인간의 자유를 존중하나 인간의 고통을 불평하는 자들이 그분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 진정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데 관심을 가진 자들이 무리를 먹이는 것에 대해 그분께 충고할 수 있겠습니까?

의학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또는 봉사를 받고서도 아무런 감사나 주의를 표하지 않는 배은 망덕의 쓱쓸한 기분에 대해서 대속주에게 새로운 무엇을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요? 열 명의 문동병자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눅 17:17)고 물으셨습니다.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 관심을 가진 자들이 모든 인류의 부활을 가능케 하신 그분을 가르치기 위해 제언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진리의 직물을 짜는 방법을 발견한 과학자들이 직물을 만드신 분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분께 용기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섯 군데나 큰 상처를 입으신 그분께 우리가 전쟁터에서 부상당하여 얻은 훈장을 보이려 달려가야 합니까?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새로운 세계가 생기기도 하고 다른 세계가 없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모세서 1:35—38 참조) 그러나 그와 같은 은혜의 통치 가운데서도 그분은 그의 열두 사도를 “각각”(니 삽 28:1) 접견하시고 후에 뉴욕의 한 농장에서 한 소년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위엄과 권세로 당당히 나아가시는 하나님”(교성 88:47)을 보여 주시기 위해 하늘에서 우주를 벗는 솜씨를 보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는 탕자가 결국 집으로 돌아올 때 그려한 과정에서

그분의 위엄과 권세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창조하신 것은 너무나 많아서 컴퓨터를 가진 인간까지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나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모두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 10:30; 모세서 1:35-38 참조)

부활하신 예수께서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 격려하시고 로마에서 그가 할 일을 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행 23:11 참조) 이와 같이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호된 시련을 겪고 있는 의로운 자들 곁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선하시고 참다운 목자는 영광스러운 속죄를 행하신 후에 노아의 시대에 불순종한 잃어버린 양들 가운데서 그분의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벧전 3:18-20 참조) 그분은 그후 미대륙에 있는 다른 양떼를 방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0:16; 니 삼 15:17, 21) 그후 또한 다른 잃은 양떼를 방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니 삼 16:1-3 참조) 우리는 양심에 관해서 주님께 무엇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그분께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께 귀를 기울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귀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리고 때로는 거역하기까지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결코 잊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이 그분의 “사업”이요 “영광”이며, 그분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모세서 1:39 참조)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업적에 대하여 헤아릴 수 없는 찬사를 보내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하여 경배하고 있으나, 그분을 표현할 최상의 마땅한 어휘가 너무나 보잘것없는 고로 그분의 위대성에 대한 나의 찬사는 한낱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나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의 특별한 중인의 한 사람

으로서, 그분의 성역의 완전함을 증거하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의 성역을 우리에게 축복을 준 것이지 가르침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근시안적인 견해입니까! 혹자는 그의 성역을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것 자체이며 부활은 없다고 합니다. 갈보리의 비극만 있고 팔마이라의 회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편협된 생각입니까? 그는 가버나움이라는 한 마을에서 배척당하고 에녹성에서 조차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고대 이스라엘로 역행하고 수십년간 의로움을 누린 바운티풀은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홍해와 시내 산의 여호와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이시며, 하늘의 두 분이 팔마이라에서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아버지의 대변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한 분의 귀한 손님만이 참석했던 팔마이라 집회!

그분은 오늘날 살아 계시어 모든 나라마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빛을 발하며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자를 보내도록 차비를 베푸십니다. (엘마서 29:8 참조) 세상의 빛이신 그분보다 더 훌륭한 어느 분이 거룩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회중 전등의 빛이나 조명등의 빛이나 어느 것인든 말입니다.

그러나 곧 모든 사람은 그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그분의 면전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며 사람마다 그분의 이름을 입에 올릴 것입니다. (교성 76:110-111; 빌립보서 2:10-11 참조)

전에는 그러한 목적으로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도 그때 가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야비한 이야기만 하고 결코 그분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한때 조소를 받으며 자색 옷을 입었던 그분은 붉은 옷을 입고 곧 다시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가 구속되었음을 장기시켜 주실 것

입니다. (교성 133 : 48—49 참조)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공의와 자비의 완전성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엘마서 12 : 15 참조) 그리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무관심으로 많은 고통이 따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울을 통하여 회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실제 이야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고전 13 : 12 참조) 큰 전투도 그때의 우리에게는 번쩍 불붙었다 사라지는 화톳불과 같이 여겨질 것이며, 인간의 역사 기록은 단지 시간의 벽에 그려진 낙서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순간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의 성역이나 나의 성역은 과거의 엄격하지만 한편 영광스런 상황을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상은 엄격한 구분으로 나뉘어지게 되며 예술성의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놀라운 재회의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저마다 분열될 것이나 보다 많은 주님의 집들이 이지상을 아름답게 꾸밀 것입니다. 물론 아마 계돈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나 아담은 다이 아만도 또한 놓여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여름의 시련에서 무엇이 기대되는가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또한 시련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내를 증명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좁은 문에 이르는 좁은 길을 찾으려는 무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수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7 : 13—14) 그분은 순결한 백성을 원하시므로 지상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사악함과 동요와 박해 가운데서 “의와 하나님의 권세로 무장”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니일 14 : 12—14 ; 교성 100 : 16)

그분의 사업은 태풍의 눈의 고요함과도

같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첫째, 그분은 그의 성도들 가운데서 통치하시며 곧 세상을 통치하려 오실 것입니다. (교성 1 : 36 ; 133 : 2—3 참조)

물려오는 폭풍우 앞에서 인간 역사의 문이 달혀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강한 바람에 휘날리는 나뭇잎처럼, 인생의 길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사건들처럼, 따뜻한 복음의 불빛을 받고 선 사람들은 영혼 속 깊이 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이 결국 실패하게 되는 일은 없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모든 일을 아시었음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모든 일을 이루실 길을 마련해두셨” (니일 9 : 6)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손히 어디든지 보내시는 곳은 갈 것이며 그분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하려 노력하며, 내가 참으로 특별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분의 특별한 증인이 될 수 없음을 영혼 속 깊이 인정합니다. 나는 “오 거룩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송가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 찬송가의 간구가 곧 나의 간구입니다.

나를 떠나지 마옵소서

합당치 못하나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의침을 들으소서 .....

주여, 보소서 나의 고통을!

깊은 고통 속에 있으니

자비를 보이소서 .....

위험에서 나를 견뎌내소서

오 나를 보소서

오 거룩하신 구세주여 .....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기억치 맙소서 .....

기억치 맙소서

나를 도와 춥소서 구세주여!

(찰스 구노, 뉴욕 : 지 서머 시 시카코 14 : 12)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 행복과 승영을 위한 계획

---



리차드 지 스코트  
칠십인 제일 정원회

“겸손은 값진 것이며, 의로운 성품을 키우는 기름진 토양과 같아서 개인적인 성장이라는 씨앗을 썩트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은 조그마한 장난감 로보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겉는다든지 기타

단순한 동작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넘어지면 약간 힘들기는 하지만 스스로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은 아무런 감정도 없이 단지 기계적으로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기능을 행할 뿐입니다. 이것은 성장하거나 정해진 코스를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은 없읍니다. 이것은 외부의 충격에 즉각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스프링이 풀려 버리면 기능이 정지됩니다. 사탄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가 마치 로보트처럼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읍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얼마나 다릅니까? 아기의 탄생에 관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 전세에서 성숙된 하나님의 영(모세서 6:36 참조)은 살과 뼈를 지닌 육체를 입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성스러운 경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들은 성장하는 아기를 사랑하고 인도하고 영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구세주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순종함으로써 어린이는 “교훈에 교훈을 더하”(교



성 98:12 참조)는 것을 배우며,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자립하고, 사랑스러우며 봉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딸로 변화됩니다. 이들의 성장과 성취를 위한 잠재력은 끝이 없으며 만일 그가 완전히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분의 숭고한 사업을 함께 하며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위대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시험의 마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이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보자.”(아브라함서 3:24-26 참조)

우리의 시험의 마당은 각각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는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으며, 그 외에 외롭거나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로서 훌륭한 모범을 보이지 못하거나, 우리의 용기를 시험하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견디어 내야 할 많은 고통과 슬픔은 자신의 반복되는 불순종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방해물로 여겨지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께서 우리의 발전을 위해 마련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생은 결코 안이한 것으로만 계획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시험과 성장의 기간입니다. 이것은 고난과 도전과 무거운 짐으로 얹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파괴할 수 있는 끊임없는 세상적인 압력의 바다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압박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훌륭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역경을 극복하게 되면 강한 성품을 기르게 되며,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존심을 키우고 의로운 일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의해서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사람

들은 역경과 슬픔을 통해서 성장하고 정화되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광적으로 욕망을 충족시키고 세상적인 욕구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비극의 소용돌이로 말려들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데 많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는 생의 문제나 인간의 거짓 가르침으로 시야가 어두워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밝은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의 계획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가려 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거룩한 영을, 타성에 젖고 욕망에 의해 움직이는 범법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사탄은 인간을 노예로 삼고 멀하기 위한 자신의 계획을 결코 변경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자유의지의 거룩한 은사를 잘못 사용하도록 설득시키려 합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유혹하여 우리가 개인적인 권력과 영향력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키게 하며 그러한 욕망에 넘어가도록 선동합니다. 사탄은 육적인 욕망을 따르는 자들을 서서히 얹어 맙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더 이상 제어할 수 없는 로보트처럼 전락하고 맙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사람들을 혼란시켜 하나님을 엄격하고 가혹한 재판관 또는 우리와 친근하지 않거나, 우리가 행하는 선행과 악행을 엄격히 기록하시는 분으로 여기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개인적인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며, 우리의 영원한 발전에 전념하시는 사랑과 인내와 이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17)

우리의 영원한 구원뿐만 아니라 지상에서의 행복을 위해서는 수많은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하며, 그중에 결정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한데 뭉쳐서 우리의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부패한 세력에 견디어 낼 수 있는 성품을 형성해 줍니다. 고상한 성품은 우수한 원료로 만들어진 귀중한 도자기와 같아서 신앙에 의해서 형성되며, 끊임없는 의로운 행위에 의해 조심스럽게 빛어지고, 고상한 경험이라는 화덕에서 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아름답고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값진 재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범법에 의해 일순간에 깨어질 수 있습니다. 자제하여 보호하면 영원히 의로운 성품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겸손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이기 위한 겸손이 아니라 거룩한 은사인 참된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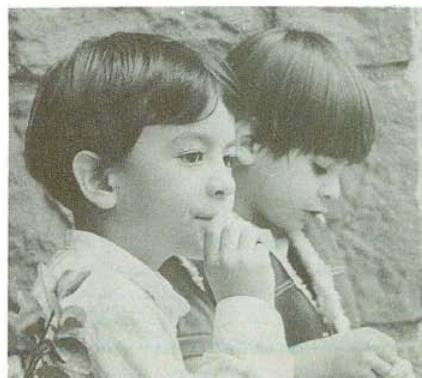
겸손은 값진 것이며, 의로운 성품을 키우는 기름진 토양과 같아서 개인적인 성장이라는 씨앗을 싹트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통하여 이를 발전시키고 회개에 의해 순화되고 순종과 선행으로써 강하게 될 때, 그와 같은 씨앗은 영성이라는 귀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엘마서 26:22 참조) 그때에 비로소 거룩한 영감과 권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이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권세는 그와 같은 영감받은 뜻을 성취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교성 43:15-16 참조) 그와 같은 권세는 우리가 할 바를 다한 연후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니이 25:23 참조)

행복에 이르는 길을 찾을은 어떤 사람의 심오한 사상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 내가 그분에게 해주십사고 간구한 모든 것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권세를 얻는 열쇠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권고하고, 제언하고, 충고하고, 권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자신의 행복과 영원한 진보를 위한 기본

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책임과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경전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깊은 신앙으로 기도하며 나의 아버지께 열심히 구할 때, 나는 마음의 화평을 누립니다. 참된 회개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과, 이웃에 대한 봉사와 진정한 사랑이 조화를 이룰 때 나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나의 길을 밝히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나의 친구나 감독님이나 스테이크부장님이나 또는 총관리 역원이라 할지라도 나를 대신해서 이것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나 스스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나는 화평스럽고 행복하게 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보람있고 생산적이고 뜻있는 생을 누리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역경의 노에가 된 로보트가 아니며, 또한 우리도 구세주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하여 현명하게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구세주께서 주신 행복과 승영을 위한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초대합니다. 이와 같이 충만한 계획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도 그와 같은 충만함을 구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 대회가 열릴 때면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만인을 부르사 그의 선하심을 취하게 하시고,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면 겹거나 희거나 속박된 자거나 자유인이거나, 남자나 여자 이거나를 부인치 아니하시고……”(니이 26: 33)

일 년중 이때가 되면 세계 각국에서 수 천 명의 사람들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부의 교자로”로 알려진 솔트레이크시티에 모여듭니다. 이주민들이 포장마차를 타고 높은 산맥의 꼭대기에 있는 솔트레이크 계곡으로 들어온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났으나 대회는 그 시대에도 중요한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신앙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신앙을 강화시키고 새롭게 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 왔습니다.

대회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충실히 사는 축복받게 된다는 지식과 간증이 커지고 굳어지는 영적 부흥의 시기입니다. 또한 그분을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키려는 결의를 지닌 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식이 깊이 자리잡는 시기입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영감적인 지시를 주는 시기이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시기이며, 보다 훌륭한 남편과 아내가 되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며, 보다 순종하는 아들과 딸이

되며, 보다 나은 친구와 이웃이 되겠다는 결심을 새로이 하게 되는 때입니다.

우리는 대회의 영적인 분위기에 젖어들 때 또 다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곧 이 경륜의 시대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음을 암으로써 받게 되는 깊은 감사의 느낌입니다. 우리는 이와 똑같은 느낌을 갖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사람들이 민족이나 피부색이나 언어나 종교적인 신념에 관계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문자 그대로, 실제로 형제이며 자매라는 사실을 알고 기쁨과 화평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경전을 펴서 다음 성구를 읽어 봅시다.

“만인을 부르사 그의 선하심을 취하게 하시고,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면 겹거나 희거나 속박된 자거나 자유인이거나, 남자나 여자이거나를 부인치 아니하시고, 이 교도까지만 기억하시리니,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모두 하나님 앞에는 동일함이라.”(니이 26: 33)

우리는 이 대회에 참석하면서 온 세상의 이웃과 형제 자매에 대해 맷은 중요한 결의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그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은사 곧 충만한 복음을 그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결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 이시며, 대속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으며, 무덤에서 일어나셨으며,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알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참모습을 알게 해주고, 그분이 우리 개개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이며, 우리의 걱정과 어려움을 의논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만난 우리는 구세주의 복음을 대한 특별하고도 귀중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를 처음으로 알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계시를 받는 하나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에 매우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참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하셨으며, 영원한 진리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으로부터 세상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경륜의 시대에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사실상 주님은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영적, 세상적 복지에 관심을 갖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만형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으로 둘 아갈 수 있는 걸을 마련하셨다는 사실과,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는 거룩한 목적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그분의 계획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외에도 그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많이 알고 있으며 우리의 책임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우리가 논리나 증거로서도 입증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것을 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탄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을 지닌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나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요셉스미스의 영감력, 고전 2:9-13)

세상의 학문과 지혜와 모든 육적인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오판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우리는 만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를 맡음으로써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영적인 지식은 영적인 균원에서 나오는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고전 2:14)

영적인 지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행하며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전에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과 전에 듣지 못했던 것, 곧 바울의 말과 같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을 수 있음을 믿고 세상에 증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나 구약시대처럼 지금도 인간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대회에서 행하신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하시는 분들의 권고와

지시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부드럽고 따뜻한 확신이 이것이 진실됨을 증거해 줄 것입니다.”

주님이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로우시며 먼저 너희들이 그의 이름을 믿기 원하심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려 하노라……”

“그러나 보라 너희가 깨어나 너희의 능력으로 나의 말을 실제로 시험하며 아주 작은 신앙을 품어 보려 할진대, 비록 너희가 믿겠다는 의욕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믿겠다는 의욕이 내 말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라.

“이제 말씀을 씨에 비유하려 하노라. 너



희가 씨앗 하나를 너희 마음에 심었다고 하여 그것이 참된 씨, 곧 좋은 씨앗이며 너희의 불신앙으로 이를 던져 버려 주의 영을 거스르지 않는다고 하면, 보라 씨앗은 너희 가슴 속에 부풀어 오르리니, 너희가 이 부풀어 오름을 느낄 때에 이제 이 씨앗이 나의 영혼을 키우며 나의 이해를 밝혀 주며, 참으로 내게 감사함을 주기 시작했으니, 이 씨앗이 참된 씨앗 곧 좋은 씨앗임에 틀림없느니라고 너희가 너희를 자신에게 말하리라.” (엘마서 32:22, 27-28)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실까 하는 의문을 가진 분과 생의 위대한 목적을 알고자 하거나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신 여러분에게 현대의 예언자의 말씀으로 답해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러한 것들을 경솔하게 또는 회의적으로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다만 누구든지 진리를 이해하기 위하여 열심히 구하며, 자녀들로 하여금 말일에 세상에 회복된 하늘의 진리를 잘 알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조셉 애프 스미스, 복음 교리, 5페이지)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있으며 그분의 메시지를 들고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여 그분의 계명을 따르려 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왕국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도록 위임을 받고 주님의 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이 계속 번창해 나갈 것임을 압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대륙 모든 나라 끗곳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의 귓전에 울릴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 위대하신 여호와께서 ‘사업이 다 이루어졌도다’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진리는 담대하고 숭고하며 자유롭게 계속 전파될 것입니다.” (신전 준비 세미나 교재, 38페이지)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매리온 지 루니  
대관장의 제 2 보좌

“침례받은 여러분은 성신을 받을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받기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요** 한복음 17장에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 : 3)

예수님은 그의 기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열 한 명의 제자가 알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이 마음과 영혼 깊숙이 그의 가르침이 참되다는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요한의 다음 글에서 명백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서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니다”(요한복음 17 : 1-2, 6-8)

사도들은 구세주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과거의 그와 현재의 그를 받아들임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요 17 : 3)를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바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이것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한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다음과 같이 기록된 계시에서 말하는 무지입니다. “무릇 사람이 무지하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교성 131 : 6)

우리는 지식의 근원이 하나 이상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정상적인 오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지식도 추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지식을 얻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오는 신성한 일에 관한 지식, 즉 종교적인 지식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경전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종교적인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태초 이후, 아담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그분의 예언자를 통하여 계시에 의해 종교적인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지식은 생에 대한 진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위대한 계획과 구세주와 구속주로서의 예수님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종교적인 지식은 각 개인에게 주어지

는 계시의 한 형태인 영감을 통해서 주어지는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론경과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에 기록되어 있는 계시된 종교적인 지식에도 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제로 택한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기도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신의 권세에 의하여 그들의 이해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증거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고대의 사도들처럼 거룩한 계시를 통하여 그런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구세주의 가르침 중에서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에 관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현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산헤드린(공회)의 일원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낮에 예수님을 찾아올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요 3:2)

니고데모는 이 말에서 예수님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부지중에 분명하게 나타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선생님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그가 알고 있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의 지식은 주님의 기적에 관해 보고 들은 것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

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오관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 3:3)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세상 일에 관해서는 잘 알았으나 이와 같은 단순한 진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대답에서 그가 깜짝 놀랬다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요한복음 3:4)

예수님은 여전히 그를 이해시키려고 하시며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여기서 우리는 구세주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위대한 율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즉 우리가 오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지상에 관한 것이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요 3:6) 즉 우리가 영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에 관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으로 그와 같은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 회원은 그러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칠판받고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해 앉수를 빙았습니다. 이와 같은 의식을 통해 문이 열렸습니다. 이런 의식에 따르는 것은 거듭나는데 해 없어서는 안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고 순결해야 하며, 실제로 성신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개개인의 구세주이며 세상의 구속주라

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족의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그 핵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내는 가족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거의 매일 벽난로가에 둘러앉아 복음의 원리를 토론하는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내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어했으나 부친은 대학이란 남자들만이 다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대학 교육을 받고 싶어 고민하던 나의 아내는 대학을 나온 사람들 앞에서 열등의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다호 폴스의 어느 스테이크 주일학교 임원으로서 한 반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주일학교 임원인 어떤 형제의 아내가 그 반에 참석했는데 그녀는 비회원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다호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나의 아내는 학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여성 앞에 서기가 약간 두려웠습니다.

이 공파에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파를 준비하는 동안에 마음속으로 그 비회원인 여성이 반에 참석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자 다음과 같은 의혹에 쌌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실제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14세 소년 앞에 나타났다고 말한다면 많이 배우지 못한 나를 그녀가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아내는 겁이 나서 그 공파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내는 어머니에게 가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난 이 공파를 가르칠 수 없어요. 나는 요셉 스미스가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저는 지금까지 엄마와 아빠에게서 이것을 배워 왔어요. 저는 부모님을 믿어 왔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모르겠어요. 그 여자가 나를 비웃을 것 같아요. 난 그녀가 참석한 반에 서서 이 공파를 가르칠 수 없어요.”

그녀의 어머니도 세상의 표준에 의하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었지만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그와 같은 시현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했니?”

“기도했지요”라고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럼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녀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사실상 난생 처음으로 진실된 소망을 갖고 전능하신 분께 나아가 정말로 그가 살아 계시며 그분과 구세주께서 실제로 예언자 요셉에게 나타났는지 알고 싶어서 진실하게 간구했습니다. 방에서 나온 그녀는 기쁨을 느꼈고 지식과 확신을 갖고 주일학교 반에 가서 그 공파를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영적인 체험을 해야 합니다. 아직 이러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이 지식을 구하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집단에게 주어지는 경험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여러분에게도 틀림없이 주어질 것이며 또한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도 틀림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영은 신앙의 기도로써 주어지나니, 영을 받지 못하면 가르치지 말라.” (교성 42 : 14)고 하셨습니다. 침례받는 여러분은 성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얻고 영생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를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정원회

“이것은 기독교계의 분명한 외침입니다. 부활은 개인과 모든 인류에게 상상할 수 없는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얼마 전에 한 방문자가 이렇게 질문했읍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 체류하는 동안 구경할 만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템플 스퀘어를 방문하고, 근교에 있는 협곡까지 드라이브하고, 빙검구퍼 광산을 견학하고 솔트레이크 호수에서 수영을 하도록 제언했습니다. 나는 오해받을까봐 “공동 묘지에 가서 한 두 시간 지내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읍니까?”라는 질문은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어느 곳을 여행하든 그곳의 공동 묘지를 방문하려고 한다는 것을 결코 말하지 못했읍니다. 공동 묘지를 방문하는 시간은 명상하고 인생의 의미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는 유타주 산타클라라라는 한 작은 마을에 있는 묘지에서 비바람에 시달려 온 묘비에 새겨진 스위스 이름이 주는 특별한 느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시온으로 오라”는 외침에 응하여 푸른 숲이 우거진 스위스에 집과 가족을 남겨 두고 지금 그들이 “편안히 휴식”하고 있는 이 마을로 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봄에는 홍수와 여름에는 한발과 적은 수확과 고된 노동을

견디어 냈습니다. 그들은 회생의 유산을 남겨 두었습니다.

큰 묘지와 여러 가지 면에서 연민의 정을 자아내게 하는 것들 중에는 조국의 군복을 입고 전쟁이라는 격전장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안식처로서 성역화된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산산히 부서진 꿈과 이루지 못한 소망과 비탄에 젖은 마음과 전쟁이라는 날카로운 낫에 의해서 끊겨진 생에 관해 생각하게 됩니다. 프랑스와 벨지움의 여러 도시에 세워진 회고 아담한 수많은 십자가는 제일차 대전의 엄청난 수의 회생을 대변해 주는 듯합니다. 프랑스의 비둔이란 지방은 그곳 자체가 엄청나게 큰 묘지입니다. 봄이 되어 농부들이 땅을 갈 때면 녹슨 철모와 총을 발견합니다. 그것들은 문자 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로 땅을 열룩지게 한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펜실베이니아주 게티스버그와 그 외에 남북 전쟁의 격전지를 여행하면, 형제끼리 싸웠던 전쟁을 잘 연상케 됩니다. 어떤 가족은 농장을 잃었고 어떤 가족은 재산을 잃었읍니다. 어떤 가족은 모든 것을 잃었읍니다. 링컨 대통령이 티디아 빅시 여사에게 보냈던 유명한 편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빅시 여사께”

“나는 육군성 기록에서 당신이 전쟁터에서 영광스럽게 전사한 다섯 아들의 어머니라는 메사추세츠주 방위 사령관의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다섯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슬픔을 위로하려는 나의 마음이 얼마나 쓸데 없고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인의 아들들이 목숨을 바쳐 구한 이 공화국이 드리는 감사에서 찾을지도 모르는 위로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별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부인이 사랑했던 잃은 아들에 대한 소중한 추억과 자유의 제단에 바쳐진 고귀한 회생에 대해 숭고한 자부심을 갖게 해주시도록 기원합니다.

“진실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아브라함

링컨”(1864년 11월 21일, 아브라함 링컨의 서한, 연설, 국가 문서 선집에서 인용, 이다 엘 타벨 편, 보스턴 : 긴 앤드 컴파니, 1911년, 109페이지)

하와이 호놀루루의 편치보을 묘지나 필리핀의 마닐라에 있는 태평양 기념 묘지를 거닐면 제 2차 대전 당시 사망한 사람이 모두 이 조용하고 푸른 지대에 묻혀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항해 도중 대양의 푸른 파도 밑으로 잠겼습니다.

진주만 공격 때 사망한 수천 명 가운데 아이오와주 프레데리스버그 출신의 윌리엄 볼이라는 수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1941년 그날에 사망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어떤 특별한 영웅적인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의 가정에 비극적인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윌리엄의 소년 시절 친구이며, 이웃 워터루 마을에 사는 5명의 설리반 형제가 그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해군에 자원했습니다. 친구인 설리반 형제들은 원수를 갚겠다며 함께 있게 해 달라고 간청했으므로 해군 당국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1942년 11월 14일 그 형제들이 근무했던 순양함 유 에스 에스 주니아호는 솔로몬 군도 구아달커넬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적의 포격에 맞아 침몰되었습니다. 그의 부친인 토마스 설리반씨가 이 소식을 들은 것은 거의 두 달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보통 전보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특사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는 다섯 아들이 남태평양 전투에서 실종되었으며 아마 사망했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만이 가장 적합한 비문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요한복음 15 : 13)

다른 사람의 생애에 영향을 미친 사실이

한번도 이야기되지 않거나 거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활동의 밤 꿀벌반에서 12세 소녀들의 교사에 대한 체험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자녀를 갖기를 몹시 원했으나 갖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이 특별한 소녀들에게 영원한 진리와 인생의 교훈을 가르칠 때 그들에 대한 혈신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려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27세였습니다.

그 소녀들은 매년 현충일(미국 현충일 5월 30일)에 그 교사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7명, 그 다음에는 4명, 그 다음에는 2명, 결국은 단 한 명만이 해마다 무덤을 찾아가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상징인 붓꽃 꽂다발을 놓고 왔습니다. 금년에 그녀는 스승의 안식처를 25년째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그녀 자신이 소녀들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성공하게 된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던 그 스승의 영상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었습니다. 그 교사의 생애와 그녀가 가르친 교훈은 무덤 속에 묻히지 않았으며 그녀의 개성을 돋보이게 했을 뿐 아니라 그녀가 혈신적인 풍요한 생을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선생님이신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은 그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8 : 6 참조) 바람이 그가 적으신 글자를 영원히 지워 버렸으나 그가 살았던 생애를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툰턴 와일더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다가 잃은 자들에 관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더 강렬하게 인식하고 기억해 주기를 그들이 원하리라는 것뿐이다.....죽은 자에 대한 최대의 경의는 비통이 아니라 감사이다.”

2년 전에 솔트레이크시티 동부에 있는 아름다운 하버 계곡에 사는 자에로운 한 어머니와 혈신적인 아버지가 귀가해 보니 세 아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은 몹시

추었으며 사나운 바람이 불어 내리는 눈이  
풀뚝을 막아 버렸으므로 일산화탄소가 온  
집 안에 꽉 찼던 것입니다.

켈러 가족의 세 아들의 합동 장례식은 가  
장 감동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제쳐 두었으며 어린이들은 학교를 쉬  
었고 모든 사람이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  
기 위해 예배당으로 모였습니다. 세월이 지  
나도 나의 기억력이 쇠퇴하지 않는 한 그  
세 개의 빛나는 관이 슬픔에 젖은 부모와  
조부모가 따르는 가운데 건물 앞으로 지나  
가면 광경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첫번째 연사는 지방 고등학교의 헤슬링  
코우치였습니다. 그는 말형인 루이스에게  
조사를 보냈습니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  
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루이스가 그 팀에  
서 가장 뛰어난 테스팅 선수는 아니었지만  
“아무도 그보다 더 노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기교에서 부족한 점을 굳센 의  
지로써 보충하려고 했습니다.”라고 덧붙였  
습니다.

그런 후 한 청소년 지도자가 트레비스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그는 트레비스가 어떻게  
소년단 활동과 아론 신권 활동에서 뛰어  
났으며 그의 친구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모  
범을 보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뛰어난 미모에 유능해 보이는  
국민학교 교사가 이 세 가운데 가장 어린  
제이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그  
가 조용하고 부끄럼을 잘 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린 소년의 서투른 글씨로  
씌어졌지만 이때까지 받아 본 적이 없는 가  
장 키읔고 다정한 편지를 제이슨으로부터  
받았다고 서슴치 않고 말했습니다. 그 편지  
는 “전 선생님을 사랑해요.”라는 짧은 내용  
의 글이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감정에 북  
받쳐서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특별한 날의 눈물과 슬픔을 통하  
여 이 지상에서의 삶은 끝났지만 많은 사람  
들의 사랑을 받았던 소년들이 준 영원한 교  
훈을 배웠습니다.

한 코우치는 운동에서의 소질보다는 각 소  
년들의 마음을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  
청소년 지도자는 모든 소년 소녀가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엄숙하게 약속했습니다. 국민학교 교  
사는 제이슨의 친구인 어린 꼬마를 바라보  
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그녀의 눈에는 어떤 결심이 나타났습니다.  
그 결심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나는 모  
든 어린이를 사랑할 것입니다. 모든 어린이  
는 진리를 찾고 재능을 개발하고 놀라운 봉  
사의 세계로 인도될 것입니다.”

또한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와 토마스 에  
스 몬슨 장로를 포함하여 그 자리에 참석한  
청중은 모두 끊임없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  
다. 모든 사람이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온전  
함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제 슬픔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난 소년들의 삶과 주  
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심을 알고 온마  
음을 다해 주님을 믿고 자신의 명절함에 의  
존하지 않고 모든 일에서 주님께 의지하는  
부모들의 불굴의 의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  
니다. (잠언 3:5—6참조)

이 세 아들의 어머니가 나에게 보낸 편지  
의 일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세 아들이 죽은 지 얼마 안되어서 적은 것  
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에 압도되어 밤낮을 지  
내고 있습니다. 가정 생활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절반이 줄  
어들었고 요리와 세탁과 장보는 일까지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떠들고  
소란을 피우며 성가시게 굴고 함께 뛰노는 것을 보지 못해 섭섭합니다. 그와 같은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일요일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우리는 우리 애들이  
성찬을 축복하고 전달하는 것을 보지 못해  
섭섭합니다. 일요일은 우리 가족이 함께 모  
이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교 사업  
도, 결혼도, 손자도 생각할 수 없게 되었읍

니다. 우리는 그들이 틀아오도록 부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쉽게 잊을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에서 맡은 임무와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켈러 가족이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생활하는 것입니다.”

켈러 가족과 설리반 가족과 사랑했던 사람을 잊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혼의 확신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증과 생활에서 실제로 겪었던 경험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영의 세계에 살았음을 압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배우고 생활하고 완전을 향한 영원한 여행에서 발전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상에 오래 머물려 있으나 어떤 사람은 잠시 동안만 머물고 떠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머물려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면 그후 새로운 인생의 장이 다시 열리게 됩니다. 그와 같은 장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수년 전에 나는 사경에서 해매고 있는 두 자녀의 아버지인 젊은이 옆에 서 있었읍니다. 그는 나의 손을 잡고 나의 눈을 바라보면서 애원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나는 곧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나는 그의 침대 옆의 탁자에 놓여 있는 물문경에 눈길이 갔습니다. 내가 그 책을 들었을 때 앤마서 40장이 펼쳐졌다 는 것을 확실히 간증합니다. 나는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아들아, 네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더 있으니,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네가 마음으로 염려하고 있는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죽음과 부활 사이의 영혼의 상태에 관하여 내가 아는 바는 이러하니, 보라 천사

가 내게 일러 주셨으되 모든 사람의 영이 그의 죽어야 하는 육신을 떠나면 그 모든 영들이 착하든지 악하든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

“의로운 영들은 안식과 평화의 처소인 낙원이라 하는 행복한 곳으로 영접되어, 고난과 근심과 슬픔을 잊고 편히 쉴 것이다”(앤마서 40:1, 11-12)

그 젊은 친구는 눈을 감고 진심으로 감사를 표시하면서 조용히 우리가 말하고 있던 낙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이 오면, 영과 육이 다시 결합되어 결코 분리되기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슬퍼하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요한복음 11:25-26)

“영안을 너희에게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한복음 14:2-3)

이 약속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단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은 무덤에 갔을 때 실현되었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그들의 경험을 이와 같이 묘사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뵈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웃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누가복음 24: 1-5)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살아나셨느니라”(마 28: 6)

이것은 기독교계의 분명한 외침입니다. 부활은 개인과 모든 인류에게 상상할 수 없는 화평을 가져다 줍니다. (빌립보서 4:7 참조) 이것은 벨지움의 프랜더스 들판에 누워 있거나 바다 속에 수장되었거나 산타클라라에서 쉬고 있거나, 평화로운 히버 계곡에서 잠들어 있는 고인을 사랑하는 사람들

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나는 그분의 가장 작은 종으로서 그분은 죽음을 극복하시고 무덤을 깨뜨리셨다는 간증을 전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신 성스러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산 지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소중히 아끼고 존중하십시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간절한 간구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



태버내를 합창단

# 예언자의 생활에서 주어진 모범



로버트 디 헤일즈  
칠십인 제일 정원회

“‘와서 나를 따르라’는 간단하면서도 감동적인 메시지를 주신 현대의 예언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으로부터 배운 교훈과 가르침”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 주신 모범은 대부분 그의 일상 생활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대의 예언자들도 일상 생활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쳤습니다. 그 단순하면서도 감동적인 메시지는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는 현대의 예언자로부터 배운 중요한 가르침과 교훈 가운데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킴볼 대관장이 많은 질병을 이겨내면서 보여 주신 용기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고통과 역경을 이겨 냈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간증을 강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신 산증인이 되십니다. 참으로 그분이 겪어야 했던 시련을 생각해 볼 때 그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현대의 유파 같은 분이십니다.

구약성서의 유파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인생에서 언젠가는 적면할 준비를 갖추어야

할 세 가지 큰 시험에 대해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인 피해입니다. 유파는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과 간증을 시험하는 육체적인 질병이며, 셋째는 좌절입니다. 유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서 나오지 아니하였었던가”(욥 3:11) “내 영혼이 살기애 곤비하니”(욥기 10:1) 그러나 유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교훈은 “이 모든 일에 유파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욥기 1:22)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경이 닥쳐올 때 이것을, 죄를 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우리를 안도하는 예언자와 가족과 친구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위한 구실로 이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유파는 그의 간증을 지켰으며, 하나님은 살아 계시며 자신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 수 있다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았습니다.

유파 같이 의로운 분이신 킴볼 대관장은 후두암, 심장 수술, 종양, 뇌수술 외에도 많은 고통과 시련을 이겨 내었습니다. 킴볼 대관장이 겪으신 경험은 우리가 우리의 생애에서 이와 유사한 역경과 고통을 어떻게 이겨 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범이 될 것입니다.

김볼 대관장은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성실성과 간증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육신의 시련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시련에 대해 불평하시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오를 수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여호수아 14:12 참조)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역경을 이겨 내신 킴볼 대관장의 용기와 신앙은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며 우리도 역시 이러한 생의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은 그분이 겪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수출을 받고 나서는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신전에서 가진 한 간증 모임에서 맥케이 대관장이 그에게 간증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한 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알아들을 수 없는 숨소리만을 내었습니다. 그분은 후에 맥케이 대관장에게 글을 써서 “왜 나에게 간증하라고 하셨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대관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펜서 장로님, 당신은 음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아직 해야 할 위대한 사명이 있습니다.”(한 예언자가 다른 예언자에게 보인 얼마나 감동적인 사랑입니까!) 킴볼 대관장은 순종했습니다. 킴볼 대관장은 남아 있는 성대를 사용하기 위해 식도에 공기를 모아두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음성을 회복하여 위대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킴볼 대관장이 예언자로서 이루어 놓은 업적은 이 경륜의 시대나 다른 어떤 경륜의 시대에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킴볼 대관장의 부인이신 카밀라 자매님은 충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나는 어느 날 밤 킴볼 대관장 부처가 사모아에서 체온이 섭씨 40도까지 올랐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들은 맨 처음으로 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분은 모임을 사회하셨고 부인과 함께 하루 종일 바쁜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사려 깊었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킴볼 대관장은 십이사도 평의회에 부름을 받았을 때 겸손히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와 같은 위대한 부름에 합당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수화기를 놓았을 때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은 그 일을 할 수 있구 말구요.”라고 확신시켜 준 사람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카밀라 자매는 늘 동반자(킴볼 대관장)와 함께 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녀에게 전강이 어찌나고 물으면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전강하면 나도 전강합니다.”

내가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킴볼 대관장이 나에게 한 가지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여생을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로 오겠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킴볼 대관장님, 무어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님이 ‘예’라고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는 다음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예언자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결의와 사랑과 혼신을 나타내기 위한 능변이 필요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이러한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킴볼 대관장은 언제나 진실한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셨습니다. 지역 대회 브리핑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무렵, 나는 킴볼 대관장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때 그분은 타자기 앞에 앉아 있었으므로 문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타자를 마치고 나를 맞이하기 위해 의자를 돌렸습니다. 한 손에는 그의 저서 “용서가 넣는 기적”을 읽은 한 청년으로부터 온 32장에 달하는 긴 편지를 쥐고 계셨고, 다른 한 손에는 회개하기 위해서 그분의 도움이 필요했던 한 젊은이의 특별한 요청에 답하기 위해 친히 타자한 답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분명히 나에게 전해 준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는 특별한 중인으로서 선교 경험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1976년 8월 3~5일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덴마크 지역 대회에서 킴볼 대관장은 도발드센이 조각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조각을 보려 갔습니다. 이 조각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시 복제되어 솔트레이크시티와

로스엔젤리스와 뉴질랜드의 방문자 센터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상을 영적인 분위기에서 몇 분간 감상한 후에 킴볼 대관장은 옆에서 있는 관리인에게 자신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그는 베드로상을 향하여 서서 베드로의 오른손에 죄어 있는 큰 열쇠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나는 교회의 대관장으로서 베드로가 가졌던 신권 권능의 열쇠를 이 경륜의 시대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관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일 물로 새겨진 사도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은 살아 있는 사도들 앞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엔델론 태너 부대관장과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와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를 소개했습니다. 그분은 관리인에게 멘마크어로 된 물본 경을 선물하면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 관해 간증했습니다. 그 관리인은 성령의 인도로 그가 예언자와 사도 앞에서 있음을 알고 감동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나올 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종들 앞에 있었습니다.”

킴볼 대관장은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일하기를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으며 각자 자신의 속도에 알맞게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실천하라”는 간단한 풋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그의 모범으로 인하여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위의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의 모범과 사랑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보다 높은 목표를 성취하고 완전을 향해 걸음의 폭을 넓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각자에게 최선을 다해 일하고 목표를 초과 달성할 때 까지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격려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1977년 2월에 멕시코 중남미 지역 대회를 계획하며 준비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볼리비아 라파즈에서 모임을 갖도록 계획했습니다. 이곳은 해발 3100미터나 되는 고지대입니다. 주치의인 어네스트 엘 월킨슨 박사와 레슬 엘 넬슨 박사는 우리에게 킴볼 대관장의 심장과 혈압이 고지대에 적응하려면 4~6시간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역 대회 기간중의 킴볼 대관장의 일정은 너무나 빠듯하게 짜여져 있었으므로 이와 같이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킴볼 대관장과 보조를 맞춰 일하기 위해 총 관리 역원도 주치의를 동반했습니다.)

나는 킴볼 대관장이 지역 대회를 시작하기 전에 라파즈에서 쉴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기 위해 태너 부대관장과 롬니 부대관장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면서 “형제님이 해보시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멕시코 중남미 지역 대회를 위한 상세한 계획서를 대관장단에 제출했을 때, 킴볼 대관장이 볼리비아 라파즈 다음 장소에 붉은색으로 표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킴볼 대관장이 참석하지 않도록 계획된 두 모임이었습니다. 그분은 “이것은 어떤 모임입니까? 왜 내가 참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잠깐 시간이 흐른 후 나는 “김볼 대관장님, 대관장님은 쉬셔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헤일즈 장로님, 장로님은 피곤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라파즈에 도착했을 때 첫 모임은 문화 행사였습니다. 킴볼 대관장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두통이 났습니다. 고도에 적응하느라고 머리가 터져 나갈 듯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3100미터나 되는 고도에 적응하기 위해 산소를 마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킴볼 대관장은 산소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2천 명의 성도들과 인사하고 포옹하고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보임이 끝나자 그는 알티플라노에서 온 천여 명의 그가 사랑하는 레이멘인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청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열싸안고 힘차게 악수를 했습니다. 그분은 레이멘인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셨습니다.

월킨슨 박사는 3100미터나 되는 고지대에서 그와 같이 심한 활동을 하시는 것이 염려되어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대관장에게 가능하면 그와 같은 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습니다. 킴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바를 형제님도 알고 있다면 그와 같은 말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킴볼 대장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온 백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자신과 또한 함께 일하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김볼 대관장은 총관리 역원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바는 내가 구세주를 만났을 때 그분이 나에게 ‘좀더 잘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왕국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라는 예언자의 음성에서 혼신과 긴박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헤일즈 장로님, 꾀곤하십니까?” 내가 잠시 동안이라도 휴식을 취할 때면 이 음성이 나의 귓전을 울립니다. 만일 킴볼 대관장이 알고 계신 바를 안다면 우리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

여 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수고를 덜어 주려고 하면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아껴 주는 것은 암니다. 그러나 나는 편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나는 승영에 이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주님께서는 자신을 예언자로 지지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발전을 늦추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받았습니다.

“나의 아들아, 평안할지어다. 네 불행, 네 곤고는 잠시 동안이니,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받들어 올릴 것이요, 너는 네 원수를 모두 이기리라.

“네 친구는 네 편이 되어 따뜻한 마음과 우정어린 손으로 또다시 환성을 올리며 너를 맞이하리라.”(교성 121:7-9)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위대한 사업의 긴박함을 느끼고 우리의 예언자를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침례받아야 함을 알고 있으므로 그분은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생활하면 영생을 얻고 승영에 이르며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면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예언자께서는 오늘날 계시에 의해서 이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한번은 연차 대회를 마칠 무렵 킴볼 대관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들이 ‘주여, 주여’라고 말하나 내가 말한 바를 행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예언자와 오늘날 이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하신 말씀을 따르고 그들의 모범을 따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 복음의 빛



애드니 와이 고마쓰

칠십인 제일 정원회

“주님은 용서해 주시며 그분의 참된 추종자도 용서해 줍니다. 우정의 손길이 뻗쳤습니다. 죄인은 회개하며 사랑의 고리는 완전합니다.”

몇 년 전에 나는 남태평양의 한 섬에 가서 새로 완공된 예배당을 헌납하라는 지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몇몇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그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는데 예배당 안이 완전히 깜깜한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모든 회원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는 불이 켜 있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감독은 우리에게 그날 오후 건물 관리인이 헌납식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물 전체를 점검했으나 예배 시간이 가까워오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웃에는 불이 들어오는데 예배당에만 불이 나갔다고 보고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 점검해 보았으나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역 지도자와 나는 헌납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예배당 앞에 있는 석 유등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것 은 교회 역사상 암흑 속에서 진행된 최초의 헌납식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훌륭한 형제 자매들은

마음속으로 소리없이 주님께 빛을 주셔서 예배당을 헌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말씀을 했습니다. 합창단은 어둠 속에서 아름다운 국가를 불렀습니다. 나도 또한 주연사로서 어두움 속에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헌납 기도를 드리기 위해 다 함께 마음을 모으자고 회중에게 이야기했을 때 갑자기 예배당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축복에 대해 주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격앙된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으나 온유하고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의 조명은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 이 위대한 축복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에 지닌 사랑의 빛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때 예언자 모로나이가 하신 말씀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나 모로나이는 이제 이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리로다. 내가 세상에 밝히 전하고자 하거니와, 신앙이란 비록 보이지 아니하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보이지 않는다 하여 이를 부정하지 말지니, 너희의 신앙이 시련을 겪은 후에라야 증거를 얻겠음이라……”

“인간에게 신앙이 없을진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기적을 행하여 보이시지 못하실 것이다. 저들이 신앙을 갖기까지 친히 나타내어 보이지도 아니하시느니라.”(이더서 12: 6, 12)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시험을 받았지만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신의 인생에 빛을 찾으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젊은이 가운데 한 사람은 국법을 어겨 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탈출했고 얼마 후에 붙잡혀 다시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생은 참으로 암흑과 불행의 생이었으나 감독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 이 청년은 그러한 길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되돌아왔습니다. 은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기 시작하자 성신의 영이 그의 마음을 위로하였습니다.

그가 형기를 마치고 출감하였을 때 그를 맞이하기 위해 문 앞에서 있었던 분은 그동안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던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청년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기쁨과 환영의 손길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자신의 털선 행위로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 주고 수많은 밤을 잠못 이루게 했지만 언제나 자신을 기꺼이 도와 주며 기도했던 감독과 가족에 대한 이 청년의 깊은 감사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결코 혼들리지 않았으므로 참으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청년은 와드의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생애를 영적인 암흑에서 진리와 빛으로 변화시킨 위대한 힘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감독이 보여 준 바와 같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은 자비의 사랑인 것입니다. (모로 7:47 참조)

예언자 니파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만인에게 명하사 사랑 곧 자비의 사랑을 가지라고 하셨으니, 사람이 사랑을 갖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사람이 사랑을 품을진대 시온의 일꾼들이 멀망당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고”(니이 26:30)

우리는 또한 이 청년의 가족이 많은 시련과 마음 아픔을 잘 견디고 나서 팔을 벌려 그를 맞이했던 그 신앙과 용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언자 모로나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보라 니파이와 리하이가 레이멘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불과 성령으로 침례받게 하였던 것도 니파이와 리하이의 신앙으로써요,

“보라 레이멘인들에게 그토록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도 암몬과 그 형제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으니,

“참으로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이나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에 기적을 행한 자는 모두 신앙으로 이를 행하였으며……”

“어느 때를 막론하고 사람이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 기적을 행한 자가 없으니, 저들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더라.”(이데서 12:14—16, 18)

또한 예언자 몰몬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앙으로 인하여 기적이 이루어지며……”

“대체, 그리스도의 말씀에 죽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갖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신앙을 가질진대 마땅히 소망을 가져야 하리니, 신앙이 없으면 아무 소망도 갖지 못함이라.

“또한 보라 내가 너희에게 거듭 이르거니와 은유하며 마음이 낮아지지 아니하고서는 너희가 신앙이나 소망을 갖지 못할 것이요,

“……또한 사람이 은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여 성신의 능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려 하면 마땅히 사랑을 가져야 하리니……”(모로 7:37—38, 42—49)

오늘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한을 통해서 사랑의 중요성을 상기합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은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여 사랑은 사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고전 13:1-8)

교회에서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행동을 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우정의 손길을 뻗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느 와드 대회에서 한 연로하신 형제가 위대한 모범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이 훌륭한 형제는 주일학교 회장이었으며 간증을 하도록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는 비 활동적이었던 12년간, 생의 문제로 이리저리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깊은 좌절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가장 어두운 시기로 접어들었을 때 처음에는 가정 복음 교사, 그 다음에는 감독, 그 다음에는 와드 회원으로부터 끊임없이 우정의 손길이 뻗쳐왔습니다. 다시 교회에서 활동하게 되고 회원들이 아무런 조건이나 사심없이 베푸는 따뜻한 정을 느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며 언제나 회개하는 영혼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시며 그분의 참된 추종자도 용서해 줍니다. 우정의 손길이 뻗쳤습니다. 죄인은 회개하며 사랑의 고리는 완전합니다.

예언자 모로나이는 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만일 너희에게 사랑이 없을진대 너희는 헛된 것이다. 사랑이 결코 실족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것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랑을 좋으라. 모든 것이 실족하되,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영원

히 참을 것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잘 되리로다.”(모로 7:46-47)

우리가 교회에서 청지기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하고, 우리를 자신의 왕국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구세주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할 때, 소망과 사랑과 자비를 갖고 그렇게 행하기 바랍니다. 그분이 모든 인류를 초대하시는 내용이 “예수께 오라”는 찬송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께 오라 죄에 시달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예수가 우릴 편히 쉴 곳에  
인도하여 주시리로다.

예수께 오라 어둠 속에서  
헤맬지라도 살피시네.  
그의 사랑이 어둔 밤에서  
밝은 낮으로 인도하리.

예수께 오라 온유한 맘에  
사랑 구하면 들으시리  
광명한 저 위 하늘 접 천사  
가까이 있는 줄 모르뇨.

예수께 오라 모든 육지와  
바다에 섬들 백성들아  
높은 자나 낮은 자 모두  
나에게 오라 부르시네. (찬송가, 91장)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구세주이시며, 우리가 그에게로 오라고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충실한 자와 의로운 자를 위해 예비해 주신 모든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 작은 일과 영생



안헬 아브레아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의 최대 목표는 우리가 승영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충실히하고 과단성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독하게 더운 날 오후에 나는 알제티 나파스의 푸른 농장 지대를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작렬하는 태양의 열기가 눈에 띄일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형 엔진이 부착되어 있고 냉방이 잘 되어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는 공장에서 갖 나온 성능 좋은 새 차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있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갑자기 나는 내 새 차의 온도가 오르기 시작하고 엔진에 위험 표시가 나타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열 게이지가 위험 선에 도달했을 때 나는 차를 길 옆에 세우고 기계에 대한 보잘것없는 지식으로 이상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나는 무언가가 나의 대형 새 차를 멈추게 했다는 사실이 불쾌했습니다. 자동차 후드를 들어 올렸을 때 놀랍게도 수많은 요란한 빛깔의 작은 나비들이 라디에타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냉각 장치를 막았기 때문에 차가 정지되었음을 알아냈습니다. 그때 나는 수백 마리의 작은 나비도 힘을 합쳐면 모تا에서 나오는 엄청난 힘을 제어할 수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이것은 독수리나 매 같이 어느 정도

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200마리 정도의 작은 나비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나로 하여금 우리의 생활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나는 우리 각자에게 내재해 있는 놀라운 잠재 능력 곧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는 능력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영생이 있으니, 곧 저희로우시고 참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분은 어떠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를 알아야 하며, 여러분 이전에 살았던 모든 다른 신들이 그랬듯이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이 되는 길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조금씩 조금씩 과정을 거쳐 발전하였으며 작은 소임을 맡았다가 큰 것을 맡도록 발전했으니, 은혜에 은혜를 더하였고 승영에 승영을 더하여 마침내는 죽은자의 부활을 얻고 영원한 빛 가운데 살며 영광 중에 거하면서 영원한 권세의 보좌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보다 앞서 간 사람들처럼 권세와 영광과 영원한 권세의 보좌를 상속받아 마침내는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 편, 342—343 페이지)

우리의 엄청난 잠재 능력이 우리를 승영으로 인도하는 것을 작은 “나비들”이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소위 어둡고 심각한 죄로 인생 행로가 얼룩진 사람들은 비율로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를 좌절 시키는 것은 힘센 독수리가 아니라 작은 “나비들”입니다.

이 개념을 좀더 잘 설명하기 위해 해의 왕국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여행에 장애가 되는 “위험한 도로”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음으로써 생기게 되는 무서운 영적인 타락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까? 이 계명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영적인 성품을 형성하며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비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치킴으로써 악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주님의 계명을 더 잘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며 자신을 세상의 죄로부터 물들지 않게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교성 59:9 참조)

안식일에 관해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찬식 모임에 참석하지 않거나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참석함으로써 생기는 영적인 영양실조 현상에 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 회원들이 침례시에 맷은 성스러운 약속이 성찬을 들풀 때 우리의 마음 속을 지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언제나 주님의 영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회 회원 가운데 매주 이 성약을 새롭게 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제쳐 두면서 자신이 성령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실로 성찬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단순히 어떤 사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의 아들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맷은 성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 성찬을 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습관을 갖게 되면 영적인 안정과 복지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발전하지 못할 때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시 시간을 내서 생각해 봅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니파이 삼서 18장 18—20절에 나오는 약속이 성취되려면 언제나 기꺼이 그 대가를 치려야 합니다.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항상 깨어 기도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사탄이 너희를 사로잡아 밀같이 체로 치려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라.

“너희가 반드시 주시리라 믿으며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보라 너희에게 주시리라.”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지도자를 지지할 때마다 그들을 도와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높이 쳐든 손은 그들을 돋겠다는 성악의 상징이 됩니다.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때, 우리는 문자 그대로 성약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는 이 문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합법적으로 구성된 역원, 곧 교사든지 감독단이든지 고등 평의원이든지 대관장단이든지 어느 역원을 막론하고 그들에게 순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마음속으로 그것을 다짐하고 그대로 실행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는 신권과 교회의 모든 특권과 축복에서 단절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께서 그의 교회에 세워 놓으신 권능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복음 교리, 42페이지)

나는 사람들이 십일조를 바치지 못하는 이유를 수없이 들어왔으나 대부분은 단순한 신앙의 결여가 원인이었습니다.

1957년 아르헨티나의 한 지부의 새 지부장으로 일할 당시 나는 성도들과 십일조의 중요성에 관한 접견을 하기로 작정했답니다. 나는 솔직하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호세 형제님, 형제님은 왜 십일조를 바치지 않습니까?” 호세 형제는 내가 그렇게

직선적으로 질문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부장님,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고 노동자의 급료는 너무나 적습니다. 이 달에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신도 사야 합니다. 이런 것을 따져 보면 충분한 돈이 없습니다.”

나는 즉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호세 형제님, 나는 형제님께서 십일조를 충실히 내면 자녀들이 학교에 신고 갈 신발도 갖게 되고, 또 집에서 쓸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나는 주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일 그래도 형제님에게 충분한 돈이 없다면 형제님이 십일조로 바치신 액수만큼 내주머니에서 돌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집으로 가는 길에, 내가 한 일이라면 옳았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나 역시 최근에 결혼하여 인생의 첫 출발을 시작했으므로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나는 호세 가족은 고사하고 내가 신을 구두 때문에 걱정하기 시작했읍니다. 집에 도착하자 사랑하는 아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지지하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날 밤 호세 형제의 경제적인 복지를 위해 나보다 더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 달 후에 나는 다시 호세 형제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는 감정에 북바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겨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부장님,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봉급이 인상된 것도 아닌데 나는 모든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으며 자녀들에게 신도 사 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호세 형제는 지금까지도 충실히 십일조를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우리가 영생으로 가는 길에

서 발견되는 작은 “나비들”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을 깨뜨리게 하는 자제심의 부족과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을 실천하지 못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변명, 우리의 계보 책임에 관한 격려의 부족과 무관심, 돌아가신 친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행하기 위해 주님의 신전에 자주 가지 못하는 것, 관심이 없거나 두려움 때문에 선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것은 수많은 예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앞에서 말씀드린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교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상당히 그럴 듯 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나비”는 개별적으로나 집단으로서 우리의 영적 발전과 각 개인의 찰 능력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인간에게 능력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음이니, 사람이 선을 행하면 결코 자기상을 잊지 아니하리라.”(교성 58 : 28)

주님은 우리를 실패하도록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여행에 필요한 모든 재능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최대의 목표는 우리가 승영에 이를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모든 것을 충실히 파단성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성취한다면,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교성 84 : 44)간다면 여행이 끝날 때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욥 38 : 7)을 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다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를 가능케 하셨으며 그가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목적지까지 발전해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 왕국의 힘은 내부에 있음



딘 엘 라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하나님 왕국의 진정한 힘은 우리 생활의 우수성, 곧 순수성의 깊이, 사랑, 신앙, 성실성과 진리에 대한 협신에 내재해 있습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 무리가 구세주께 와서 언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임할 것인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 20 참조) 그들의 구전에 의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엄청난 힘을 과시하면서 세상을 지배하는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에 세워질 것이며 이것은 세상의 다른 왕국과는 같지 않을 것이라는 구세주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8: 36 참조)

이 질문에 대한 구세주의 대답은 왕국내의 참된 세력과 왕국내의 영향력의 균원에 관하여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고 있읍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니라” (누가복음 17: 20-21)

구세주께서는 질문한 자들에게 하나님 왕국의 진정한 힘은 외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 하셨습니다. 그 힘은 회원들의 생활의 우수성에 내재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순수성, 사랑, 신앙, 성실성과 진리에 대한 협신에 내재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 위대한 교훈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 세계의 거의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예배당과 회중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전은 거의 모든 회원이 쉽게 여행할 수 있는 곳에 세워집니다. 모임과 활동에 참석하는 회원의 비율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무적인 징표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내부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기 바랍니다. 우리는 금세기와 특히 과거 20년 동안의 교회의 팔목할 만한 성장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의 성공에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외적인 힘의 증강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표준에 의해서 감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려고 왕국을 찾는 자들에 대한 구세주의 훈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니라” (누가복음 17: 21)

몇 달 전에 어느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통계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외관상의 표준에 의하면 이 스테이크는 신양심이 깊고 충실했던 말일성도로서 구성된 스테이크였습니다. 스테이크 부장과 처음으로 접견할 때 그는 그의 성도들의 노고의 결과인 통계 보고서를 보이고 싶어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잘 보이게 책상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기 전에 스테이크 부장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부장님이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들이 영적인 면에서 지난해 보다 더 발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회원들의 영적인 힘에 대한 스테이크 부장의 개인적인 분별력을 평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즉시 그 보고서로 나의

주의를 끌려 했습니다. 그가 나의 질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알고 나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쁘게 그 보고서를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부장님이 성도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보고서에 나타난 자료를 떠나서 이와 같이 고집하자 실망한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그의 실망을 눈치채고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 토론하지 않고 통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 통계 자료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고 볼 수 있는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던 것을 나타내주었습니다. 나는 그 보고서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도 나타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스테이크 부장으로부터 내가 알고자 했던 그러한 사항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나는 접견을 마칠 무렵 그가 다소 난처해 하고 근심에 싸여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근심은 오후와 저녁 모임내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나는 몹시 염려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스테이크 부장은 대회 총회에서 전날 나와 접견하면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말씀하여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즉시 종합 보고서를 검토하려 하지 않았는 나의 분명한 태도에 그날 밤까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일에 관해 깊이 생각하는 동안에 대회 일주 전에 있었던 어떤 일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수술을 받고 회복기에 있는 스테이크의 한 회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방문하고 있을 때 한 간호원이 정기 회전차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침대 아래쪽에 매달려 있는 기록부에 적힌 기록을 살펴보고는 몇 차 적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환자 옆으로 가서 맥박을 짚어 보고 이마에 손을 얹어 보고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간호원은 환자의 중요한 증상, 곧 도표에 나타나 있지 않

는 어떤 증상을 알아보려고 한 것 같았습니다.”

스테이크 부장은 바로 그때의 일을 꿀꿀히 생각하는 가운데 그 전날 내가 던진 질문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운 장로님이 나에게 보고서에는 나타나지 않은 여러분의 영성을 평가해 보라고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했습니다. “오늘 나는 이와 같이 이 도표에 나타나지 않는 중요한 영성을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내가 들어 본 스테이크 부장의 말씀 중에서 가장 훌륭했습니다. 그가 말씀 중에 통계 보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흥미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세계적으로 교회의 급속한 성장을 보면 고무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좀더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현재 교회 회원의 참여도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업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고 희생하려는 성도들의 열의는 높이 평가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부에 있는 왕국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부의 약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가정의 파탄은 점점 늘어납니다. 이혼이 보다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보나 우리가 세상적이며 물질적인 것에 물두하고 있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상의 거래에 있어서 신뢰와 정직의 원칙이 의문시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 관계에 있어서 예절과 친절 대신에 무례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난혼과 결혼 성약에 대한 불성실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말함이 아니오, 교회 회원 전체를 가리켜”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회원 개개인에게는 조건부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나 주는 털끝 만큼의 죄도 묵과할 수 없음이니라.”(교성 1:30-31)

한번은 그의 교회의 성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보라 보웅이 세상 주민에게 속히 임하리라……

“이 일은 나의 집에서 시작되고 나의 집에서부터 퍼져 나아가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또 먼저 너희 가운데 있는 자로서 나의 이름을 아노라 공언하나 나를 알지 못하며 나의 집안에서 나를 모독한 자에게 처음 일이 있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교성 112:24-26)

교회가 성장하는 놀라운 시기에 우리가 자신의 내부를 돌아보고 개인적인 중요한 영성을 평가해 보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어느 시대나 말일성도들이 세상의 금지된 일을 해보고 싶은 유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영원히 이런 것을 행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마치 그냥 지나쳐 버리기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재미있는 어떤 가치라도 지닌 것처럼 의도적으로 잠시 그런 것에 탐닉해 보겠다고 결정할 때가흔히 있습니다. 일부는 이런 탈선에서 되돌아오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어두운 그림자와 절망과 수많은 비극을 초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누적되면 비참한 결과가 옵니다. 그 결과는 거기에 빠진 사람과 그들을 사랑하고 신뢰한 사람들의 생활에 불행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성은 형편없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줄어들고 모든 인류가 필연적으로 인간성의 상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우기 교회

전체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호해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합당성과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의 위태롭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져버리지 않는 사람들과 시대의 유행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두운 길에서 되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는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진정한 힘입니다. 여러분은 최종적인 결과에서 큰 변화를 가져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삼키려는 악을 막는 최후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에 대해 생각할 때 주님의 약속으로 인해 희망에 부풀립니다. 나는 그의 왕국이 이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을 읽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오늘이 경고하는 날이요, 많은 말을 하는 날임이니라. 또한 나 주는 마지막 날에 우통당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교성 63:58)

왕국이 지속되는 힘은 회원 수나 성장을이나 전물의 아름다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힘은 사람 수나 외형적으로 정해진 일에 단순하게 따르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표에 나타나지 않는 조용한 사랑의 행위와 순종과 기독교인다운 봉사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런 행위는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지도자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으나 주님 자신의 성역을 따르고 본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도표에 나타난 기록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필수 분야에서 자신의 중요한 영성을 평가할 때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조용한 사랑의 행위와 순종과 기독교인 다운 봉사에서……”

## 너희는 준비하라



리그랜드 리차즈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가 75년의 생을 위해서 12년 내지 20년 동안을 준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영생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교회의 연차 대회 때마다 여러 번 이 연단에서 여러분께 선교사가 되라고 말해 왔으며 비회원에게는 우리가 오늘날 세상에서 유일한 참된 교회를 가졌으며 이것은 인간의 지혜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사자에 의해 하늘로부터 직접 주어진 교회임을 확신시키기 위해 노력했읍니다.

오늘 나는 무엇에 관하여 말씀드려야 할까 하고 생각한 끝에 이 교회의 비활동 회원에게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밀일성도 가족 출신이기 때문에 마땅히 활동화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또한 나는 교회에서 비활동 회원 가족과 함께 있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그러므로 주님은 그분의 영의 자녀인 우리가 불사불멸과 영생을 얻을 수 있게 그분의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셔야 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위대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 가운데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정말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한복음 5:39)

그리고 나서 그가 지상에 돌아오실 때 그가 심판하실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께서 떠나가라 하리라”(마태복음 7:22-23)

계시자 요한이 빛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임하여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계 4:1) 주님의 사자가 요한에게 놀라운 일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는 요한에게 앞으로 닥칠 새 하늘과 땅을 보이셨는데 그때는 병이나 아픔이나 슬픔과 죽음이 없을 것이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필요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비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주님을 알라”고 말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주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다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 21:1, 4, 23-24 참조)

요한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이것을 보여 준 사자에게 엎드려 경배하려 했읍니다. 그러자 사자가 이렇게 말했읍니다.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라”(계 22:8-9)

그 이전에 사자는 죽은 자들이 무론 대소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책들이 뿐 있고 모든 사람이 책에 기록된 그들의 행위

대로 심판받는 것도 보여 주었읍니다.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그 가운데서 내어 주었읍니다. (계 20:12-13 참조) 그때 사자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예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계 20:6) 첫째 부활의 아침에 나아울 만큼 합당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 아니겠읍니까?

그 사자는 그곳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올바른 생각을 지닌 사람으로서 인자가 그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의 구름 가운데서 오시고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나오고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로 들리워 올라가 눈 깜박하는 사이에 변화될 때 천년 동안 무덤에 남아 있고 싶어 할 사람이 있겠읍니까? 나는 철학자 시세로(주전 106-43년, 로마의 응변가이며 정치가)의 명언을 좋아합니다. 그는 짧은 현세보다는 오랜 기간의 사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읍니다.

오늘날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생활 양식 속에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들과 같이 이 지상에서 보다 잘 살고 문화적이고 고상한 생을 누리기 위해 12년 내지 20년간 학교에 다닙니다. 우리가 75년 내지 100년의 생을 위해서 12년 내지 20년동안 준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영생을 위해 준비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있는 일이 아니겠읍니까?

물론경에서 예언자 앤마는 이 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하였읍니다. (앤마서 34:32 참조) 나는 우리가 짧은 현재의 삶보다는 긴 사후의 생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후의 긴 세월이 실제로 얼마나 긴가를 알아보려고 가끔 멈추어 서서 생각해 봅니까?

여러분은 아마 내가 전에 이것에 대해 말한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35년 전에 아내와 내가 결혼할 때 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어머니, 오늘부터 3천 5백만 년 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어째서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었니? 생각만해도 피곤해진다.”

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어머니는 영생을 믿고 계시지요? 시간이란 단지 인간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이 없다고 들었어요. 시간은 영원한 원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반지를 예로 들어서 이 원리를 설명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이것을 자르면 거기에는 처음과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르지 않는 한 처음과 끝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어머니, 어머님이 그것을 믿으신다면 어머니와 저는 오늘부터 3천 5백만 년 후에도 서로 잘 알게 될 것임에 틀림없읍니다.”

시세로가 짧은 현세보다는 긴 후세에 더 큰 관심을 가진다고 말했을 때 그가 뜻했던 바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구세주께서는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에 지상을 다스릴 권세를 지니고 오실 재림에 대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하여 많은 비유와 말씀을 주셨읍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먼 길을 여행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준 비유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 종에게는 다섯을, 다른 종에게는 두 개를, 또 다른 종에게는 하나를 주었읍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회계할 때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은 “주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라고 말하며 열 달란트를 주인에게 주었읍니다. 그때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라고 하며 (많은 것을 맡는 것은 훌륭한 일이 아닙니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마 25:20-21)라고 말했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종은(우리는 모두 똑같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또 두 달란트를 벌어서 그것에 대한 충실성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마 25:24-25)

그때 주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삼아 있으리라”(마 25:28-30)

자신은 슬퍼 울며 이를 잘게 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코 끝나지 않는 길고 긴 다음 세상을 고대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제 나는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다른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등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그렇지 못한 다섯 처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랑이로다”하는 소리가 났을 때 기름을 준비한 다섯은 신랑을 맞으려 나갔으나 다른 다섯은 기름을 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누어 가질 만큼 충분한 기름이 없었으므로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혼인 잔치에 들어갔으나 다른 다섯 처녀가 돌아왔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마 25:1-13 참조) 만일 비활동적인 자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활동적이 되어야 할 필

요가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비유를 주셨을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다음 비유는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은 나사로가 어떻게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고 배를 채우려 했으며 개가 그의 상처를 핥았는지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후 부자와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즉, 그는 영광을 받았고 부자는 고통 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쳐다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쳐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전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누가복음 16:24-26)

그때 부자는 다섯 형제가 생각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누가복음 16:27-29, 31)

예수께서는 또한 그가 오실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하나는 테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 둘을 당할 것이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매 하나는 테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 둘을 당할 것인니라”(마 24:40-41)

친구는 테려감을 당하거나 자기는 천년간 버려 둘을 당한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아무런 목적없이 이와 같은 비유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창수가 나고 사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창수가 나고 사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마 7 : 24-27)

누가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어 역경의 폭풍우를 이겨 내지 못하기를 원하였습니까?

내가 오늘 여기서 호소하는 것은 그의 오심을 대비해서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굽애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 즉 이스라엘 자손을.....그 모든 쟁여 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렘 16 : 14-15 참조)이 더 이상 이야기되지 않는 날이 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어부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많은 포수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작은 산과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렘 16 : 16 참조) 그들은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기 위하여 세계 전역에 흩어져 있는 3만 명의 선교사를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렘 3 : 14) 얼마나 훌륭한 성약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속삭임에 주의한다면 그것은 마치 그분과 결혼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생각하면 훌륭한 일이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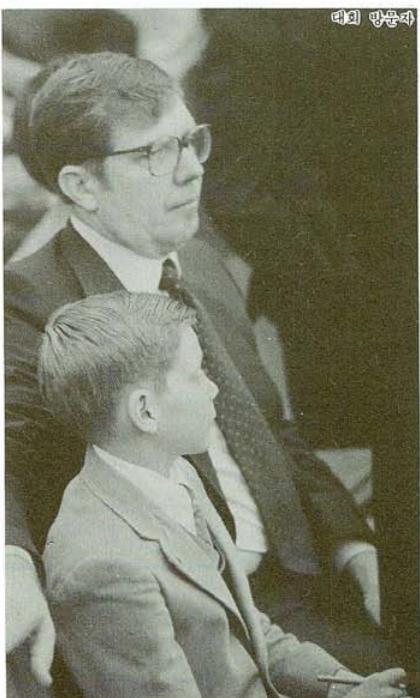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

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렘 3 : 14-15)

백성들이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함을 받아 이 톡剔 산맥의 계곡에 모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들에게 그의 마음에 합하는 목자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이 대회에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상고해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와 같은 장소를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 주셔서 아버지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받은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며 활동적으로 참여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아론 신권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권의 능력은 집회 참석이나 임무 지명을 받아들이고, 경전을 읽으며,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등의 일상적인 일을 여러분이 행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신권회가 시작되기 전에 일찍 태버내클레에 나와 집사, 교사, 제사들과 악수를 나누고는 합니다. 나는 수많은 장로와 칠십인과 대제사들 틈에서 그들을 찾아보아야 하는데, 아론 신권 소유자를 만난다는 것은 가치있는 일입니다. 대신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는 아론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론 신권의 권능에 대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년은 열두 살이 되면 아론 신권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은 인도하고, 보호해 주는 이 권능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능력은 실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믿게 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리석게도 전기 소켓에 손가락을 대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정확히 볼 수는 없었어도 여러분은 확실히 무엇이 있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전기를 본 사람은 없읍니다. 정말

기계를 다루는 과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들도 전기가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기의 힘이 일으키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기를 측정하고 조절할 수 있으며, 전기를 이용해서 빛과 열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실재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신권의 능력을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느낄 수 있고 그 능력이 초래하는 결과는 볼 수 있습니다. 신권은 여러분의 생활에서 인도하고 보호하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한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교회에 들어온 뒤에 선교 사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교사에 불과했다. 교사의 직분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지나 않을까 해서 감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파하고 싶다는 말을 하지 못했다.” (나의 일지 중에서, 출트레이크 시티 : 쥬브닐 인스트릭터 오피스, 1882년, 8페이지)

그는 자기의 소망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제사로 성임되었으며,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아간소로 갔습니다.

그와 그의 동반자는 악어가 우글거리는 높지를 진흙투성이가 된 채 지친 몸으로 160킬로미터 가량이나 헤매고 다녔습니다. 우드럽 형제는 무릎에 심한 통증을 느껴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동반자는 그를 통나무 위에 앉혀 놓고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드럽 형제는 진흙 속에서 무릎을 끊고 기도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상처가 나온 그는 혼자 선교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삼일 후에 그는 피로와 굶주림에 지친 몸

으로 진흙투성이가 된 채, 테네시주 멤피스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돈 한 푼 없었지만, 그 마을에서 가장 큰 여인숙으로 가서 먹을 것과 잠자리를 청했습니다.

그가 선교사라는 것을 안 여관집 주인은 웃으면서 그를 좀 놀려 주기로 작정했읍니다. 그는 우드럽 형제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설교를 해준다면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했읍니다.

멤피스의 부유한 상류층들이 많이 몰려들어 진흙을 뒤집어 쓰다시피 한 이 선교사를 보고 재미있어 했읍니다.

아무도 찬송과 기도를 하려 하지 않았으므로 우드럽 형제가 혼자 두 가지를 다 했읍니다. 그는 그들 앞에서 무릎을 끊고, 그에게 성령을 보내 주시기를,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과연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드럽 형제는 힘있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를 조롱하고자 몰려든 사람들이 비밀로 했던 행위까지도 밝혀 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말씀을 마쳤을 때, 아론 신권을 소유한 이 초라한 손님을 비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후로 그는 응충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나의 일지 중에서, 16-18페이지 참조)

그는 아론 신권의 권능으로 인도와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권능이 함께 할 수 있읍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아론 신권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아론과 그 자신에게 대대로 수여되는 것이므로 아론 신권이라 하느니라.” (교성 107 : 13)

아론 신권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그 이름들을 들어 보고 그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소신권

첫째, 아론 신권은 때로는 소신권으로도 불립니다.

“소신권이라 칭하는 이유는 대신권 곧 멜기세덱 신권에 부속된 연고니, 외형적 의식을 집행할 권능이 있느니라.” (교성 107 : 14)

이 말은 대신권인 멜기세덱 신권이 항상 아론 신권, 즉 소신권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아론은 아론 신권의 대제사, 즉 관리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멜기세덱 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론을 관리했읍니다.

소신권이라 불림으로 해서 아론 신권의 중요성이 조금이라도 감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이 “대신권에 속한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성 84 : 29 참조) 대신권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나 영적으로 큰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아론 신권 의식을 수행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서 나는 성찬을 돌렸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단순한 일상적인 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명예로움과 겸허해짐을 느꼈음을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레위 신권

아론 신권은 또한 레위 신권으로도 불립니다. 레위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의 한 사람인 레위의 이름에서 나온 말로, 모세와 아론 형제도 레위 치파였읍니다.

아론 신권이 이스라엘에 주어졌을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관리하는 책임과 행정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모든 레위 가족의 남자들은 성막의 의식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에는 모세의 회생의 율법도 포함되었읍니다.

아담의 시대 이래로 회생의 율법은 지켜져 왔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야의 회생과 속죄에 따르게 될 구속의 상징이었읍니다. 모세의 회생의 율법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 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회생의 의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견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과거의 회생 제물이나 오늘날의 성찬의 중심은 모두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그의 피흘리심과 우리 죄를 위한 속죄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의식을 집행하는 권능은 아론 신권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성스러운 임무이며 이를 수행함으로써 여러분은 고대의 주님의 종들과 함께 형제로 결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론 신권에 속한 의식에 참여할 때 그처럼 마음이 겸손해짐을 느끼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아론 신권이나 레위 신권으로 부르는 것이 옳은 일임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의무의 분배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모두 하나의 신권입니다.

### 예비 신권

마지막으로, 아론 신권은 예비 신권으로도 지칭됩니다. 이것 또한 타당한 명칭입니다. 아론 신권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대신권을 갖도록 하거나 선교 사업 또는 신전 결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론 신권 제사인 침례 요한이 고대에 주님의 오심을 위해 길을 예비한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또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아론 신권을 회복시켜 대신권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친히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마 11: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멀기 세백 신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나 지도자들을 눈여겨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로나, 칠십인, 대제사, 축복사가 되고, 또한 선교사, 정원회 지도자, 감독단,

스테이크 지도자와 가족의 가장으로 일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사와 교사와 제사로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앞으로 사도와 예언자로 이 자리에 앉아 교회를 관리하게 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론 신권을 예비 신권이라 부르는 것은 참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 신권 원리

여러분에게 신권의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론 신권을 받을 때, 여러분은 이들을 모두 받습니다. 여러분의 신권에는 세 가지 종류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신권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은 성임 받을 때 그 의식을 수행하고 아론 신권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한 전반적인 권능도 함께 받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권의 직분입니다. 직분마다 각기 다른 특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중 세 개의 직분, 즉 집사, 교사, 제사는 여러분이 십대일 때 받게 됩니다. 네번째 직분인, 감독의 직분은 여러분이 성숙하여 대제사로서 합당하게 될 때 여러분에게 주어집니다.

집사는 상임 역원으로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성 84:111; 20:57-59 참조) 정원회는 12명의 집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성 107:85 참조)

교사는 “항상 교회 회원을 돌아보며 저들과 함께 있어 격려”(교성 20:53)해야 합니다. 교사 정원회는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성 107:86 참조)

제사는 “설교하며 가르치며 해석하며 훈계하며 침례를 베풀며 성찬을 집행하며, 각 회원의 집을 방문”(교성 20:46-47)합니다. 제사 정원회 수는 40명입니다. 감독은 제사 정원회 회장이 됩니다. (교성 107:87-

## 88 참조)

여러분은 항상 이러한 직분의 하나님을 말고 있습니다. 더 높은 직분을 받게 될 때라도 여러분은 처음에 받은 권능은 계속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제사가 될 때는, 집사나 교사로서 행한 모든 것을 그대로 행할 권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권을 받게 될 때라도 소신권의 직분으로 행할 수 있는 모든 합당한 권능을 그대로 지니게 됩니다.

14년간 광리 감독을 역임한 바 있는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는 “나는(어른이지만 여전히) 집사일 뿐이오.”라고 자주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성임할 때 엄격한 형태의 성임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임문에는 신권을 부여한다는 것, 직분을 부여한다는 것 그리고 특별한 축복을 준다는 것이 포함됩니다.

나는 조셉 펠링 스미스 대관장과 함께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신권을 부여할 때 주는 일정한 성임문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그 신권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한 어느 배도자가 유포시킨 편지에 관해서 누군가가 스미스 대관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말하기에 앞서, 그 사람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 사람의 성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이렇게 말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사람은 단지 순전한 거짓말장입니다. 아니, 순전하지도 않은지 모르지요.”

직분은 신권의 일부이지만, 신권은 그 안에 포함된 어떠한 직분보다도 큰 것입니다.

여러분이 범법하여 스스로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 한 신권은 영원히 여러분의 것 될 것입니다.

활동적이고 믿음이 있다면 신권의 능력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정원회 회장으로 성별되면 한 가

지 또 다른 권능을 갖게 되며 정원회 회장으로서의 권리의 열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성임에 의해 신권과 신권에 내재하는 직분(집사, 교사, 제사)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장에 성별됨으로써 회장으로서의 열쇠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집사가 될 때, 아버지가 여러분을 성임할 수 있고, 또 일반적으로 그래야 하지만 합당한 신권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이 성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원회 회장으로 부름을 받는다면, 감독단이 여러분을 성별할 것입니다. 회장단의 열쇠는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감독단이 아니라면, 그러한 열쇠를 갖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회장단의 열쇠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신권과 그 안에 있는 직분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은 권능을 받은 사람, 즉 “성임되었음이 교회에 알려”(교성 42:11)진 사람에게서만 신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권이 학위증처럼 수여될 수는 없읍니다. 그것이 면허증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메시지나 편지로 여러분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합당한 성임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합당한 신권 소유자가 여러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을 성임해야 합니다.

총판리 역원이 그처럼 많은 여행을 하게 되는 한 가지 이유는 신권의 권리의 열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스테이크부장은 교회 관리 역원의 안수 성임으로 그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외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신권은 주님에게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주님은 신권이 부여되는 방법과 누구에 의하여 부여되는가에 관하여 크게 관심을 갖고 계

십니다. 그것은 결코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권능이 주어지는 방법에 대하여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능력은 성스럽고 보이지 않는 은사인 신권의 권능을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능은 성임을 통해서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능력은 순종과 합당성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 중에서 한 아이가 순종심을 배우게 된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이가 집사 연령쯤 되었을 때, 우리는 와이오밍에 있는 그의 조부의 목장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말을 훈련시키려 했습니다. 그 말은 그때까지는 산 속을 거칠게 달리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목장으로 끌어들여 말에 무거운 고삐와 줄을 매는 데는 거의 하루 종일이 걸렸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이 진정할 때까지 말을 매어 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말과 이야기하고 쓰다듬어 주는 것은 괜찮지만 말을 풀어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저녁 식사를 하려 갔습니다. 그는 밥을 굽히 먹어 치우고는 자기의 말을 보려고 달려 나갔습니다. 곧 나는 그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했습니다. 그는 말을 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을 끌고 가 훈련시키려 했습니다. 말이 그에게서 멀리 가버리려 하자 그는 내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당부한 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팔목에 줄을 감았던 것입니다.

내가 집에서 뛰어나가자, 말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줄을 풀지 못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말에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넘어졌습니다. 말이 오른쪽으로 돌아갔다면, 그는 목장 문 밖 들판으로

끌려가 분명히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말이 왼쪽으로 돌아, 잠시 울타리 한 모퉁이에 멈춰 섰으므로, 그 사이에 내가 줄을 말뚝에 매고 아들을 구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부자간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읍니다. “얘야, 네가 말을 다루려면, 힘 이외에 다른 것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말은 너보다 더 크고 힘도 더 세단다. 그런데 그 사실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테니까 말이다. 네가 말이 순종하도록 훈련시킨다면 그때는 말을 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순종은 네가 먼저 배워야 할 교훈이다.” 그 아이는 그렇게 해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두 번의 여름을 보낸 다음에 우리는 다시 그 목장으로 가 그의 말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말은 겨우내 걸들이지 않은 말들과 함께 폐지어 돌아다녔습니다. 우리는 저 아래 강가에 있는 풀밭에서 그들을 찾았습니다. 나는 언덕 위에서 그 아이와 그의 누이가 풀밭가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을 지켜 보았습니다. 말들은 귀찮다는 듯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가 휘파람을 불었었습니다. 그 말은 멈칫하더니 무리에게서 빠져 나와 아이들에게 총총걸음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순종심과 같이, 보이지 않는 사물에 내재하는 위대한 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리에 순종하함으로써 그가 말을 훈련시키는 힘을 얻은 것과 같이, 신권에 순종하는 것은 그에게 스스로를 다스리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일생 동안 신권 정원회에 속하게 될 것이며, 여러 형제님들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고 지지해 줄 것입니다.

그보다도, 여러분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아론 신권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은 대부분이 멜기세덱 신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직분의 명칭이 다르고, 더 많은 권능이 주어지지만,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권의 능력은 집회 참석이나 임무 지명을 받아들이고, 경전을 읽으며,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등의 일상적인 일을 여러분이 행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드럽 대판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제사로서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하고 복음을 전했으며, 전에도 내가 회중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사도의 직분을 갖고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사의 직분을 갖고 있었을 때에도 주님은 크신 능력으로 내 생명을 지켜 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든, 장로든, 칠십인이든, 사도든 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의 의무를 다한다면 반드시 도와 주십니다.”(밀레니얼 스타, 1905년 9월 28일, 610페이지)

침례 요한은 이러한 말로 아론 신권을 회

복했습니다.

“나와 같은 일에 종사하는 종들아, 나는 너희에게 메시야의 이름으로 아론 신권을 부여하노라. 이는 천사의 성역, 회개의 복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베푸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느라.”(교성 13편)

집사, 교사, 제사인 여러분은 성스러운 권능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성역을 베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권의 권능이 사랑하는 젊은 형제 여러분에게, 그리고 앞으로 올 세대를 이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신권의 능력은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참되며, 신권의 권능은 아론 신권 소유자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큰 힘을 지니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

# 아론 신권 소유자의 성역



에이치 버크 피터슨 감독  
판리 감독의 제 1 보좌

“구세주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십시오. 주님은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을 친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신권을 소유한 형제 여러분, 오늘 저녁은 내게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몇몇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부부는 딸을 다섯 두었습니다. 딸 아이들은 모두 예쁘고, 재능있고 충실히입니다. 그들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소년 시절에, 나는 일요일에는 늘 부친과 형제들과 함께 신권회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된 나는 항상 혼자 다녔습니다. 신권 지도자로서, 나는 수백 명에 이르는 소년들을 접견했으며 그들에게 아론 신권에 대하여 가르쳐 왔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경험이었습니다만, 내 아들은 하나도 가르쳐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야유회에도 수없이 참여했으나만, 내 아들을 데리고 가 본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저녁, 애리조나의 한 스테이크 센터에서 이제 열두 살이 된 첫 외손자가 아론

신권 집사로서 처음으로 신권 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나는 남자 아이 카우보이 장화를 사기를 20년간이나 기다려 오던 참이었습니다. 외손자가 첫 번 성탄절을 맞았을 때, 나는 그에게 그 장화를 선사했습니다.

오늘 저녁, 나는 외손자가 갖고 있는 신권에 대하여 그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 몇 가지 사항을 그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또한 집사 정원회 회원인 그의 친구들과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집사, 교사, 제사들인 교회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아주 특별한 아론 신권의 권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몇몇 형제들에게는 이 특별한 권능이 지금 당장 그처럼 큰 의미를 갖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또 크게 흥미를 느끼기는 하지만, 왜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그러한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잠시 손자 대련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는 애리조나에서 그의 와드 성찬식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연단에 앉아 있었으며, 손자가 그곳에 앉은 사람들에게 성찬을 돌리도록 지명되었습니다. 그는 내게 빵과 물을 전해 주어 구세주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는 아론 신권을 소유한 직분으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다시 혼신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나는 그의 할아버지이며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이지만, 그는 그의 권능으로 내가 성약을 새롭게 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했던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는 벅찬 느낌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의 미소지은 얼굴을 보면서 그도 역시 특별한 느낌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도 성스러운 시간에 교회의 대관장단에게 그리고 십이사도 정원회와 다른 총판리 역원들에게 성찬을 돌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외손자와 내가 똑같

은 신권의 권능을 사용하여 서로 주님과 성약을 맺도록 도와 준다는 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찬 시간은 매우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찬식에서 중요한 부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주님의 권능을 그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전에는 우리 손자가 할 수 없었던 몇 가지 성스러운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중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사 신권을 소유한 여러분이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교사가 되어 와드 회원들의 집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이해시키는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감을 받아 그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참으로 큰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복음 교사의 한 사람은 아론 신권 소유자인데 매달 집에 옵니다. 3주일 전에 그는 우리와 함께 기도했으며, 우리 집에 축복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신권 소유자이므로, 감독님을 도와 와드 회원들로부터 금식 헌물을 받아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돌보아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일보다 더 만족스런 임무는 없습니다. 감독님과 가난한 사람을 도와 주는 일로 볼 때 금식 헌물을 모으는 일은 여러분에게 하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거두어들인 금식 헌물을 감독님이 가난한 과부에게 얼마간의 식품을 가져다 주거나 집세를 대신 내 줄 때, 그 과부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장함에 따라, 보다 많은 신권의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사가 되면 이 모임에 참석한 많은 분들과 같이 성찬을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은 다른 사람을 침례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이곳에 참석한 수많은 젊은이들과 같이, 여러분도 침례요한이 구세주를 침례줄 때 갖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권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침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이 아론 신권의 권능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합당하게 생활한다면, 이 모든 것과 그 이상의 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를 신권이 요구하는 대로 지킨다는 것은 때로는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십대의 연령층에게는 매우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들은 자기 또래의 친구들이나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로부터 인정받을 필요가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아빠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학교에서 그러한 압박을 받게 되면, ‘아니오’라고 말해야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기가 또는 ‘예’라고 말해야 할 때 ‘예’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충실향 아론 신권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권의 능력은 몇 가지 간단한 표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하지 않는 한 신권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히도 경솔한 버릇이 몸에 밴 소년들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에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들이 신권을 갖고 있다 해도, 그 능력을 잃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말하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에서의 말씀이나 학교에서의 시험을 대비하여 연구를 해 본 후에야 영감 받을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옳지 못한 일을 행하라는 말을 들을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같은

것입니다.

또는 병드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 필요한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신령의 능력을 키우기를 원할 때 혹은 일상적으로 하는 일에서 영감받기를 원할 때 내가 할 몇 가지 일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1. 매일 10~15분 동안 경전을 읽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대개 물론경부터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내가 한두 번 읽고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해도 걱정하지 않으렵니다. 자주 읽겠습니다.

2. 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릎꿇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밤마다 기도하는 것을 잘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늘 하려고는 했지만, 너무 졸려서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좀더 커지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여러분이라면, 나는 밖에 나가 주먹만한 돌멩이 하나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끗이 씻어 베개 밑에 놓겠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어 침대에 들어가 머리를 베개에 대면 딱하고 부딪치게 됩니다. 그러면 침대에서 나와 무릎꿇는 것을 상기하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는 돌을 침대 옆의 바닥에 놓고 잠이 듭니다. 아침이 되면 침대에서 뛰어나오다가 빌이 돌에 채입니다. “아야!” 그래서 무릎꿇고 아침 기도드리는 것을 기억하게 되지요. 이와 같이 때로는 좋은 버릇을 들이기 위해 일깨워 주는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3. 나는 선교사로 나가려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기로 오늘 밤 결심하겠습니다. 나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밤 집에 가면 뚜껑이 있는 깡통이나 단지를 깨끗이 씻어내 방에 두겠습니다. 그리하여, 십일조를 낸 후에 선교 사업을 위한 기금을 어느 정도 저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으나 이로 인해 우리가 이제까지 말한 이 특별한 능력을 잃어버렸거나 아직 받지 못한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보라, 무릇 죄를 회개한 자는 용서받을 것이요, 나 주가 저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교성 58 : 42)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잘못을 잊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 아니하는지 이로써 알 수 있나니, 보라, 회개하는 자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 죄를 버리리라.” (교성 58 : 43)

큰 죄를 저질렀을 때 올바르게 생활하는 첫번째 단계는 부모님 중 한 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다면, 내일 바로 감독님께 가 보십시오! 부모님이나 감독님께 말씀드린 연후에는 기도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나면 좋은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귀기울여 듣는 청소년은 참으로 주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 모든 성스러운 임무를, 필요하다면 기적까지도 행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가르쳐 드린 대로 여러분이 더 열심히 생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몇 년 전, 내가 애리조나에 있는 한 와드의 감독으로 있을 때, 특별한 십대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옳은 일을 할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가까이 지내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도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가까이 있는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숫자로 보자면, 그들은 전체 학생들 중에서 손으로 꼽을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학교에서 교회 회원이 아닌 한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귀여거리였으므로, 남다른 환경 하에 있었읍니다. 게다가 심장병을 앓고 있었읍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하는 사람의 입술 모양을 보고 짐작하는 것 뿐이었읍니다. 그녀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을 알아들으려고 맨 앞에 앉았읍니다. 그녀는 훌륭한 학생이었지만 소리를 들을 수 없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으므로 교내 활동에 참여하기가 곤란했읍니다. 그럴 때는 참여자가 아니라, 방관자가 되어야겠지요. 그녀는 항상 옆으로 비껴 서서 구경꾼 노릇만 했읍니다.

그 와드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녀에게 친절히 대했으며 함께 놀아 주었읍니다. 그녀는 그들의 친절에 응했읍니다. 차츰 사이가 가까워지자, 결국 그녀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 한 가정에서 선교사와 공부를하게 되었읍니다. 그녀는 자기보다 과히 나이가 많지 않은 19세 된 두 명의 장로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읍니다. 그녀도 자신이 들은 것을 좋아하고 또한 믿었으며, 마음속으로 좋은 느낌을 받았읍니다. 그녀가 침례 받는 날이 정해졌읍니다. 우리도 모두 함께 가게 되었읍니다. 그녀와 한 선교사는 흰 옷을 입고 물 속으로 들어가, 선교사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를 침례하노라.”(교성 20:73)고 말함으로써 그녀를 침례주었읍니다.

다음 단계는 그녀를 확인하는 것이었읍니다. 몇 사람의 신권 소유자들이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었읍니다. 나는 그녀가 성신의 확인을 주는 사람의 입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러면 그녀는 확인하는 사람이 들려주는 축복의 말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깊게 들었읍니다. 후에 그녀를 내 사무실로 불러 들여, 그 자리에서 한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어 그녀가 알 수 있게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열 아홉 살 난 장로가 그녀를 교회의 회원으로 확인했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축

복을 주었읍니다. 그는 내 생각에도 좀 이상하다 싶은 약속을 그녀에게 하기 시작했읍니다.

사실, 나는 그가 하는 말이 약간 불안했읍니다. 그는 축복을 계속했으며, 나는 그러한 그의 말에서 고요한 평화의 영을 느끼기 시작했읍니다. 후에 나는 그녀와 마주 앉아 이렇게 말했읍니다. “선교사가 자매님에게 해준 축복을 다시 말해 주고 싶군요.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것이었읍니다.”

그녀는 잠시 사이를 두고는 눈시울을 적시며 말했읍니다. “감독님, 나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녀는 치유되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들을 수 있고, 심장도 정상적으로 뛰었읍니다. 그녀는 이제 복음과 일상 생활의 축복을 좀더 완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 이야기에서 많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아론 신권을 소유하신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점은 성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장로가 열 아홉 살 난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 스스로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스스로가 기적을 행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자신을 합당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두 손을 그녀의 머리에 얹고 섰을 때, 이 여학생에게 줄 특별한 축복과 자신이 그것을 전하도록 택함 받았다는 하늘의 메시지, 곧 영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는 귀를 기울였읍니다. 그는 순종했읍니다. 신권의 권능과 능력을 통해서, 한 젊은 생명이 온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세주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을 친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권능과 축복이 아론 신권을 소유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

#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앞으로 몇 달 동안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신권 정원회를 강화시키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세** 상의 방방곡곡을 여행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전쟁과 전쟁의 소문, 기근, 인플레이션에서 마야 중독, 기후 변화, 공해, 정부의 간섭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우리 주 구세주를 믿는 신앙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 암울한 일을 예언하는 자가 되는 이유를 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태는 점차 힘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련의 원인을 살펴보면, 그러한 것은 다 인간이 만든 것이며, 해결책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내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에게 준비가 갖추어져 있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되리라.”(교성 38:30)는 위안의 말씀으로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희망과 기회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을 찾고 공포를 없애 버리기 위해 우리는 주께서 이 지상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마련

하신 체제와 질서에 따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초창기부터 우리가 조직되어야 하는 방법에 따라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시켜 왔습니다. 내 생각에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큰 시련의 시기로 보이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부당하게 투옥된 시기를 택해 주님은 그에게 신권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예언자가 구원을 호소할 때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열마 동안이나 흐르는 물을 흐리게 할 수 있으며 어찌한 힘이 여터 하늘의 운행을 막을 수 있으랴. 어느 사람이 연약한 팔을 떠서 하나님이 명하신 수로를 따라 흐르는 미조리 강의 흐름을 막아 이를 되돌려 보낼 수 있으랴. 만일 그같이 할 수 있을진대 전능하신 이께서 말일성도의 머리 위에 하늘에서 지식을 쏟아 부으심을 막을 수 있으리라.

“보라, 부름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도다. 택함을 받지 못함은 무슨 연고뇨?

“이는 저희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얹매여 있고 또 인간의 영예를 갈구함이며 이 한 가지 교훈을 배우지 아니하였음이니,

“곧 신권의 권능은 하늘의 권능과 굳게 매어져 있어 뗄 수 없나니, 하늘의 권능은 의의 원칙이 아니고서는 지배되거나 운용될 수 없다 함이니라.”(교성 121:33-36)

인간이 신권을 활용하는 능력에 의해 성장과 완성에 있어서 한계가 지워진다면, 우리는 신권의 능력을 사용하고, 우리 자신을 좀더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교회의 수많은 스테이크를 방문하면서 스테이크와 와드 기준에서 신권 조직이 매우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체로 가장 큰 약점은 다른 및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의 조직과 운영

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권 체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들 정원회를 책임진 분들에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티븐 엘 리차즈 부대판장은 신권 정원회를 세 가지로 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권 정원회는 “첫째, 수업, 둘째, 형제애, 셋째, 봉사”의 세 가치를 위한 조직이라고 말했습니다. (1938년 10월 대회 보고, 11페이지) 그것은 신권 정원회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가 정의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째는 수업입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닌즉 너희는 지혜의 말씀을 부지런히 구하고 서로 가르치라. 참으로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성 88 : 118)

정원회 모임은 주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가르침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신권 소유자로서의 우리의 의무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지금은 세상의 신비에 관해 사색할 때가 아닙니다.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좀더 훌륭한 남편과 아버지 그리고 좀 더 훌륭한 정원회 회원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고, 이웃에 대한 책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번 여름에 나는 남부 와이오밍의 조그만 마을에서 대제사 그룹 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주일의 공파는 성도들이 의롭게 되고 성결케 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공파가 시작되자 교사가 형제들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를 잘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공파 진행방법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한 형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큰 흥미를 갖고 공파 내용을 들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여기서 들은 내용을 일상 생활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찾지 못

한다면, 우리가 배운 것이 곧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정원회에서 행한 일련의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그 전날 밤에, 그 동네에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는 교회 회원이었지만, 그는 아니었습니다. 이 대제사는 그 미망인을 찾아가 동정을 표했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그 집을 나서는 그의 눈길은 고인이 된 형제의 아름다운 농장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농장을 가꾸는 데 그의 삶과 노력의 대부분을 다 바쳤습니다. 자주개자리는 빛 때마다 되었습니다. 곡식도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불행한 자매가 그녀에게 갑작스럽게 닥친 문제를 어떻게 이겨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자매는 그녀의 새로운 할 일을 위해 스스로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는 그 그룹의 형제들에게 그들이 배운 원리를 적용하여, 그 미망인과 가족들이 보다 영구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그녀와 함께 농장을 운영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모임의 남은 시간은 그녀를 돋는 사업을 계획하는 데 보냈습니다. 공파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실을 떠날 때쯤 해서는 형제들은 모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는 한 형제가 문을 나서면서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일은 정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일입니다.” 한 공파를 배우고 나서 형제애가 강화되었으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 주기 위한 봉사 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정원회를 우리가 가장 훌륭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 되게 하여 성스러운 신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이행해 나가도록 합시다.

둘째, 형제애를 다지는 정원회입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제사 정원회의 고문으로 부름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도법 정원회를 위한 시상 프로그램을 제정

한 때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정원회 전체가 각 회원에게 관심을 갖도록 권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상은 개인별로 성취한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체 정원회가 이룬 업적에 대하여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혼신적인 젊은이들의 정원회였습니다. 그들은 한 회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퍼센트 임무를 달성했습니다. 빌의 아버지가 그 전 해에 세상을 떠난 관계로, 빌은 이 큰 슬픔을 이겨 내지 못하고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빌이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 쏟았으나, 그는 모임에 빠지고 점점 나쁜 버릇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빌이 어느 모임에 빠졌을 때, 한 정원회 회원이 그를 만나 보고 정원회 모임에 참석하도록 권하라는 임무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 정원회 회원은 다만 그 어머니하고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빌이 토요일 밤에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일요일 아침에 그를 깨울 수 없었노라고 설명했습니다. 두번째 주일이 되었으나 빌은 여전히 정원회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가 보았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번째 주일의 정원회 모임에도 빌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때 모두들 빌에 대하여 크게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빌이 없이는 온전한 정원회가 될 수 없으며, 다른 모임도 가질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나는 해결 방법을 물었습니다. 그의 집으로 모두 가서 모임을 갖자는 대답이 곧 나왔습니다.

우리는 차를 몰아 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상당히 협조적인 태도로 우리들을 빌의 침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빌은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임을 시작하는 험찬 개회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첫음이 시작되자 그는 총알에 맞기라도 한듯이 이불을 제치고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났

는가 하고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이야말로 내가 겪은 가장 아름다운 경험이 되었습니다. 정원회 회원들은 각기 빌에 대한 사랑을 표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빌의 침대 주위에 둘러앉아 무릎을 끊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내려서는 빌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로 뭉친 정원회 회원이 되어 약수를 하고 떠났습니다. 빌은 정원회 회원들이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았으며, 자신도 정원회에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십이사도 평의회의 려저 클로슨 장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신권은 회원들의 상호 유익과 교회의 발전을 위해 정원회로 구성되었습니다. 단순히 공과만을 연구하기 위해 모이는 정원회는 정원회의 목적을 부분적으로밖에 달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애의 정신이 정원회의 모든 계획과 운영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이러한 정신을 현명하게 지속적으로 걸려 나간다면, 다른 어떠한 조직도 신권 소유자에게 더 매력적인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원회 회원간에 형제애를 굳게 다집시다.

셋째, 정원회는 봉사하는 조직입니다. “너는 둘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2)고 구세주는 베드로에게 권고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서 회원의 의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소년 시절에 있었던 일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어렸을 때 일리노이주의 나부에 있는 맨션 하우스에서 그의 속부인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베풀 파티에 참석했을 때의 일을 말했습니다. 그 파티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다 떨어진 누더기를 걸친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는 지저분한 모습에, 머리와 수염은 더부룩하게 자라 엉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부랑자 같았습니다. 그때 예언자는 그 사람이 들어온 문의 반대편인 방 저쪽에 있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요셉이 운동가였으므로 재빨리 방을 가로질러 거지 행색을 한 그 사람은 쫓아가 불들고, 가까운 친지라도 되는 양 끌어안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신권을 소유한 형제였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인 그의 형제를 위해 온갖 고초를 다 겪고 큰 희생을 치렀던 것입니다. (스티븐 엘 리차즈, “신권 정원회—세 가지 정의”, 임프르브먼트 이라, 1939년 5월호, 294페이지 참조) 교회의 역사에는 큰 사랑과 이해로 정원회 형제에게 봉사한 정원회 형제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티븐 엘 리차즈 부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권은 주로 단순히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권능’으로 정의됩니다. 이 정의는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목적으로 나는 신권이 봉사하도록 위임된 권능이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혼히 나는 그것을 ‘완전한 봉사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오직 인간에게 부여된 신성한 권능을 활용함으로써만 인간은 그 온전한 의미와 생명력을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권은 봉사의 방편이 됩니다. 신권의 효용과 목적은 오로지 봉사라는 말로 정의됩니다. 계시에서도 계으른 자는 ‘그 직분을 맡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며’(교성 107:100)라고 분명히 되어 있으므로, 신권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잊기가 쉽습니다.

리차즈 장로는 이렇게 말을 계속했읍니다.

“신권은 정적인 것이 아니며, 신권에 성임되는 것도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임된 것에 만족해서 점잔만 빼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영원한 심판자의 면전에 서는 ‘나는 지상에 있을 때 대제사였습니다. 이제 대제사의 보상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리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떤 대답을 들을 것인가는 별로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대제사였을 때 무엇을 했느냐? 네가 갖고 있던 큰 권능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것으로 누구를 축복해 주었느냐?’ 이러한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이 그가 받을 보상을 예전하게 됩니다.”(대회 보고, 1937년 4월, 46-47페이지)

형제 여러분, 정원회 회원들에게 봉사하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합시다.

우리가 장래에 대한 두려움을 덜기 위해 가장 훌륭하게 준비하는 방법은 지하실에 일년치 식품을 쌓아 놓는 것이라든지, 저금 통장이나 금고에 쌓아 놓은 주식 증서와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족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진정한 안전은 신권 조직에 대한 이해와 신권의 원리를 혁명하게 적용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권 조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신권 정원회를 합당하게 조직하고 훈련시키며, 합당한 역할을 수행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와드와 스테이크로 돌아가 우리의 신권 정원회 조직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되고 있는지 평가해 보기로 합시다. 정원회 조직은 수업을 통해 형제들에게 신권의 임무를 교육시키는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회원들의 생활을 축복하고 형제애를 다지는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그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 밤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입어 앞으로 몇 달 동안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신권 정원회를 강화시키는 일이 되도록 굳게 결심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 청소년이 지켜야 할 네 가지 사항



고든 비 힙클리 부대판장  
대관장의 보좌

“오늘날의 젊은 형제 여러분에게 혁명하라,  
공정하라, 깨끗하라, 충실하라고 제언해 드립니다.”

나는 이제 총관리 역원들의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은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들은 말씀을 오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사람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생각할 때면 오래 전에  
어떤 신문에서 오려 낸 한 편지 기사에  
생각이 미칩니다. 그것은 맨 처음에는 영국  
에서 발행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의 유우머는  
이해하며 들어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기사는 단지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도입부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어느 영국 회사가 서인도제도에서 부동산을 갖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강한 폭풍우로  
건물 하나가 파손되어 수리할 사람이  
견되었습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하여 그는  
책임자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존경하는 부장님,

“그 건물에 도착해 보니, 태풍으로 위에  
있는 벽돌들이 부서졌더군요. 그래서 나는  
건물 위에 들보를 설치하고 도르레를 매달

아 몇 개의 통에 벽돌을 가득 담아 끌어올렸습니다. 건물 수리를 마치고 나니 벽돌이 많이 남았습니다.

“나는 통을 다시 끌어올리고 줄을 밑에 매어 고정시켜 놓고는, 다시 위로 올라가 남은 벽돌을 통에 채워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밑으로 내려와 줄을 풀어 놓았습니다.

“불행히도, 벽돌을 담은 통이 나보다 무거웠으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벽돌을 담은 통이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해 나는 줄에 매달려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줄을 꾹 붙잡고 있었는데, 반쯤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통에 부딪쳐 어깨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위로 올라가다가, 머리를 들보에 부딪치고 손가락이 도르레에 물렸습니다. 통이 바닥에 부딪치는 바람에 통 밑 바닥이 부서지고 벽돌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내가 통보다 더 무겁게 되었으므로 무서운 속도로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반쯤 내려올 때 올라오는 통에 부딪쳐 이번에는 정강이를 심하게 채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질 때 벽돌 위에 떨어져 날카로운 모서리에 여러 군데 상처를 입었습니다.

“나는 이때 정신이 나가 줄을 놓아 버렸습니다. 제대로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듯합니다. 다시 통이 내려와 내 머리를 한 대 더 심하게 후려쳐 이처럼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병가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은 사람이 이처럼 생각이 모자라고 앞을 내다보지 못할 수가 있을까 하고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협의하고, 복음의 가르침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얹혀 들고 사방에 명이 들고 상처를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밤 아론 선현 청소년들이 들을 수 있었던 많은 말씀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회중의 많은 분들이 앞날이  
창창하게 펼쳐져 있는 아론 신권 청소년들  
이므로, 멍들고 상처받기 쉬운 인생에서 그  
들을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를 들려  
주고 싶습니다.

“청소년이 지켜야 할 네 가지 사항”이라고  
선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것은 (1) 현명하라 (2) 공정하라 (3) 깨끗  
하라 (4)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 1. 현명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잘난 체하거나 건  
방지게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지혜롭게 되  
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래를 위해 두뇌와  
기술을 훈련시키며 현명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살아  
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받아야 할 모든 교육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는 훈련된 유능한 남성과 여성을 필요  
로 합니다. 교육을 소홀히하지 않도록 하십  
시오.

여러분 모두가 전문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택하여 행하  
든지, 그에 대한 훈련을 쌓으십시오. 스스  
로 자격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  
떤 분야의 것을 선택하든 앞서 간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에서 이로운 점을 취하기 바랍  
니다. 교육은 전문인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교육을 통해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무엇인가  
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  
업을 선택하든, 교육을 통해 그 경지에 이  
르는 속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읍  
니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  
하라. 또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  
라.”(교성 88 : 118)

여러 해에 걸쳐 교회는 종교적인 교육은  
물론 세속적인 교육에도 막대한 투자를 했  
습니다. 이 일의 초기부터 우리 지도자들은  
훈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읍니  
다.

현명하십시오. 앞날을 빛내 줄 학창 시절  
을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폐락을 위한 욕망  
을 채우는 것으로 보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인생에 대한 진 안목을 갖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대개 상당한 기간 동안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외양, 품행, 태도에서 현명하게  
되십시오. 패션 모델처럼 옷을 잘 입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외양을 정결히 하고 단정히  
하며, 언행을 품위있게 하고, 예의바르고  
정중한 태도를 기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물론 소년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의 태도로 교회는  
좋게도 또는 나쁘게도 보이게 됩니다.

현명하십시오. 앞을 내다보지 못하여 알코  
올, 담배, 마약을 가까이 하거나 중독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짓을 하는 것은  
아주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신을 흐리  
게 하여 자제력을 빼앗는 코카인, 마리화나,  
기타 마약을 사용하는 것은 심하게 말해  
바보 같은 것입니다. 마약을 사용하는 순간  
은 쾌감을 느끼나 반드시 더 괴로운 반작용  
이 옵니다. 오직 해를 입히기만 할 뿐인 것  
에 왜 돈을 쓰겠습니까? 여러분의 앞날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될 뿐인 습관에 왜 스  
스로 얹매이겠습니까?

맥주나 다른 형태의 알코올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양심이 흐려지게 되며,  
더 나아가서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수치  
스럽고 위험한 질병에 이르게 되어, 심지어  
는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담배는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연구 조사 보고에 의하면 담  
배는 중독되기 쉽고, 폐를 약하게 하며, 담  
배 하나를 피울 때마다 수명이 7분씩 단축  
된다는 통계 수치가 나왔습니다.

현명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그의 권고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는 훌륭한 약속입니다. “또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와 감추인 보화까지 찾으리니,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도 지치지 아니하리라.”(교성 89:19-20)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달려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도 지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현명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여러분을 얹어매고, 전강을 해치고, 정신을 흐리게 하며,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들을 피하도록 하십시오.

### 2. 공정하십시오.

우리는 대다수 학생들이 말일성도 고등학교에서 교회 회원이 아닌 학생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불평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이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두 다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정과 우애의 중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친절하게 대하여 이러한 원리를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학교에서 사귄 친구의 우정으로 교회에 들어온 청소년들이 많이 있읍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소년들 중에는 교회나 교회 회원들에게 반대하는 친구들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러한 차별 대우를 정당화하는 진정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는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도와 주고, 권고해 주며, 그러한 친구들을 정중하고 친절하게 인도해 주어 교회의 훌륭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키워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에드원 마크햄의 시가 생각납니다.

그는 원을 그려 나를 내몰고  
이교도라 모반자라 조롱했네.

그러나 나는 사랑으로 승리하는  
기지를 갖고 있었지.  
우리는 원을 그려 그를 끌여  
들였지!

(“앞선 기지”, 미국인의 애송시 중에서,  
헤이클 펠맨, 뉴욕, 더블데이, 1936년, 67  
페이지)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말일성도 소년 소녀가 말일성도가 아닌 소년 소녀와 데이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활동적이고 충실한 사람과 데이트한다면 행복하고 영원한 결혼 생활을 할 기회는 그 만큼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한 데이트를 함으로써 주님의 집에서의 결혼에 이를 확률이 커집니다.

내가 만류하고 싶은 것은 인격을 손상시키고 품위를 떨어뜨리며, 다른 사람을 혐담하는 모든 태도입니다.

운동 경기 도중에 야유하는 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물론 심판이 실수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선수들이 반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야유를 퍼부은다 해도 절대로 접수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공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 나가는 동안 대학에서 공부할 때나 그 이후에도 의혹을 사게 되는 부당한 행위는 피하도록 하십시오. 선의의 경쟁은 건전한 것입니다만, 부도덕하고, 정직하지 못한 부당한 습관은 특히 말일성도에게는 비난받아 마땅한 처사입니다.

공정하십시오. 공정의 기준에 관해 주님께서 가장 훌륭한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 7:12)

### 3. 깨끗하십시오.

주님은 “너희여 깨끗하라.”(교성 38:42)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특히 도덕적으로 깨끗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에서 인간의 덕성을 대신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덕성이 경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은 덕성을 경시할 수 없습니다. 말일성도로서 덕성을 잃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스스로의 자존심을 잃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범법을 한 상대방의 자존심도 상실하고 자신의 육신과 정신을 자제하는 힘을 잃고, 신권 소유자로서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회개도 있고 용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상심과 후회와 실망도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기회에 오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양전을 빼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덕성을 갖추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되십시오. 여러분이 읽는 책에 주의하십시오. 춘화를 다루는 잡지나 책들은 아무런 이득이 없고 크게 해만 될 뿐입니다. 그러한 것은 여러분에게 자제심을 약화시키도록 자극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내고 그 대가로 오직 의지력을 약화시키고, 천한 욕구만을 자극시키는 영화를 보려 간다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게 됩니다.

#### 4. 마지막으로, 충실히하십시오.

여러분은 태생이 고귀한 젊은이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뒤에는 훌륭하고 용감한 일을 한 위대한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내리기 힘든 결정을 내리고, 그러한 결정을 위해 큰 대가를 치른 경우가 많았으며, 그중에는 그들이 받아들인 진리를 버리기보다는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윌포드 우드럽 형제가 90세였던 1897년에 이 태버내를에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동안의 긴 인생 여로에서 주님과 주님의 위대한 사업에 대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경험한 이 노인은 이 회중들 앞에 서서 이처럼 사려깊

은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오래 머물 수는 없지만, 몇 마디 권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직분을 맡고 있으며, 성신권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명하시어 오늘날 이 세대에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젊은이 여러분, 지도자의 권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젊었을 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알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과 연결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을 살찌게 할 때 여러분에게 계시의 영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윌포드 우드럽 : 생애와 업적의 역사, 마티아스 에프 카울리, 솔트레이크시티, 북크래프트사, 1964년, 602—3페이지)

나는 여러분에게 세 명의 18세 소년들에 관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1856년에 천 여 명도 넘는 우리 성도들이, 그중에는 여러분의 선조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말할 수 없이 고생해 가며 이 계곡을 향해 평원을 횡단하고 있었습니다. 불운한 사태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그들은 출발이 늦어졌습니다. 그들은 와이오밍 고지의 눈보라와 강주위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태는 절망적이었으며, 사람들은 매일 죽어 갔습니다.

영 대관장은 10월 연차 대회를 막 시작하려던 차에 그들의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살아남은 성도들을 구조하기 위해 즉시로, 말, 마차, 물이꾼 및 공급품을 모았습니다. 첫번째 구조대가 마틴 부대에 도착해 보니, 고난에 시달린 사람들을 수송하기에는 마차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구조대는 손수레를 계속 밀고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11월 3일에 스윗 워터 강에 이르렀을 때, 차디 찬 물속에 얼음덩이들이 떠 있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던 그들로서

는 그 강은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얼음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죽음의 세계로 빌을 들여 미는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한때 용감했던 남자들도 얼어붙은 땅에 주저앉아, 여자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시련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때의 기록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구조대에 속해 있던 18세 된 청년 세 명이 구조하러 나섰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악운의 손수레 부대의 사람들을 거의 모두 차디찬 냉물을 건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너무 심하게 긴장하고, 얼음 물에 몸이 언 청년들은 그 영향으로 인해 후에 모두 죽었습니다. 브리검 영 대관장은 이 영웅적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어린 아이처럼 크게 우시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시 앤런 헨팅تون, 조지 더블류 그랜트와 데이비드 피컴볼은 영원한 세상인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솔로몬 에프 김볼, 임프로브먼트 이라, 1914년 2월호, 288페이지)

이때 이 청년들의 나이가 18세였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도 신권 프로그램은 실시되고 있었으므로, 그들도 역시 아론 신권 소유자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영웅적 행위는 위대했으며 그들이 도우려 간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건강과 목숨까지 희생한 것은 진실로 성스러운 일입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인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유산의 일부가 있습니다. 젊은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물려받은 위대한 유산에 충실하십시오.

선조들이 품은 참되신 신앙  
순교자들의 생명 바치신 진리  
정력 다해 수호하려  
영원토록 굳게 서리라.

(“의와 진리 지키기에” 친송가 146장)

내가 제시하는 “청소년이 지켜야 할 네 가지 사랑”은 이러한 것입니다. 혼명하라, 공정하라, 깨끗하라, 충실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성신권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젊은 여러 형제들이 그처럼 신권을 받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원합니다. 아멘. \*



## 완전한 자유의 벗



매리온 지 룸니 부대관장  
대관장의 제 2 보좌

“그리스도의 율법에 순종하면 영혼의 자유  
곧 가장 숭고한 형태의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나는 이 말씀의 제목을 “완전한 자유의  
벗”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  
을 달라.”는 패트릭 헨리의 유명한 말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유라는 말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러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는 이 말을 온전히 정의한 적이 한 번도 없  
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유를 외칩니다. 그  
러나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같은 것을 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유  
라는 말의 의미를 그 자신과 그가 일하여  
얻은 소득을 자신이 좋을 대로 처리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일하여 얻은 소득을 자  
신이 좋을 대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  
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자가 양  
의 목덜미를 물으려는 늑대를 쫓아내면, 양  
은 목자를 자유케 한 사람으로 감사하고,  
늑대는 똑같은 행위를 두고 그를 불만스럽  
게 생각합니다.”(연설, 1864년 4월 18일,  
존 바렛, 유명한 인용문, 제15판, 보스톤,

리틀 브라운 출판사, 1980년, 523페이지)

링컨 시대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으나 자  
유라는 말의 다목적적인 사용에는 아무런 변  
화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의 주요 내용은  
(1) 정치적 독립 (2) 경제적 자유 (3) 자유  
의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가 이러한 자유의 세 가지 면을  
모두 포함하는 자유, 아니,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세 가  
지 면의 자유를, 모두 얻도록 해주는 영  
혼의 자유를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다  
음과 같은 말씀으로 예시된 축복된 상태  
에 이르게 되었으면 합니다. “쉬지 말고 덕  
으로써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주  
의 면전에서 네 신임이 두터워지리니”(교성  
121: 45)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예  
수님의 말씀대로 “참으로 자유”(요 8: 36)  
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온전한 자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독립, 경제적 자유, 자유의지는  
인간을 자유케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  
나, 그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명제를  
뒷받침하는 몇 가지 예를 보여 드리고 싶습  
니다.

첫째, 정치적 독립과 권력에 대해서 이야  
기해 봅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알렉산더 대왕(B.C.  
356~323)에 관한 일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크나큰 용기와 정력과 정열적인  
상상력을 지닌 그는 채 완숙하지도 않은 32  
세의 나이에 모든 뜻과 목적을 이룬 당시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러나 그는 자유를 누리는 일과는 거리가 멀  
었습니다. 자신을 다스릴 수는 없었기 때문  
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얻지 못한 그는 자  
신의 부질제의 회생물이 되어 33세의 나이  
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윌지 초기경(1475~1530, 영국의 초기경,  
정치가)은 정치적 독립 및 정치적 권력이

진정한 자유에 별로 힘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슬퍼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는 오랜 세월에 걸쳐 영국의 세군왕을 섭쳤으며, 오랫동안 많은 자유와 정치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참을성없는 한 왕에 의하여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위대한 것을 박탈당했습니다. 그는 절망적으로 생의 마지막 문턱에 서서 그의 친구에게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오 크롬웰, 크롬웰!

내가 왕한테 봉사한 열성의  
절반만큼이라도  
신한테 봉사했더라면,  
신께서 나를 이 늘그막에 벌거벗겨서  
적에게 내던지는 않았을거야.  
(윌리암 세익스피어, 헨리 8세, 3막 2장)

여러 해 전에, 한 잡지 기사에 금세기의 경제적인 천재들에 관한 내용이 실린 일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는 이들 중에는 파산하여 수치스럽게 생을 마친 사람에, 자살을 한 사람도 있고, 감옥에서 지낸 사람들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현세적으로는 적어도 경제적인 자유를 획득했으나, 경제적인 부로 영혼의 자유를 얻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채체로 정치적인 독립이나 경제적인 자립으로 완전한 자유를 가져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자유의지를 영혼의 자유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사실 인간의 행동 과정을 선택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인 영혼의 자유에 있어서는 안될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는 정치적인 면에서나, 경제적, 개인적인 면에서 어떠한 형태의 자유도 누릴 수 없읍니다. 자유의지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됩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멘 동산에서 인간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모세서 7:32 참조)

그러나 자유의지는 귀중한 것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한 자유 그 자체는 아니며, 반드시 완전한 자유를 얻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실상, 많은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행사함으로써 자유를 얻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으로 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니파이인들은 한때 자유의지를 행사하여 오히려 정치적 속박으로 이끈 사건에 처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유의지를 자유롭게 행사하도록 허용해 준 정부 치하에서 살았을 때 그들은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저들의 법과 정부는 백성들의 투표로 이루어졌음이니, 악을 쫓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보다 많았으며”, 그리하여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범이나 공의로는 다스리지 못하였으매 다만 멸망이 자초될 뿐이더라.”(힐 5:2-3) 이러한 환경 하에서, 그들은 과거에 그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켜 주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해줄 의인을 대신하여, 그들의 정치적 자유를 빼앗을 것이 뻔한 악인을 통치자로 선택했습니다.

야벳인들은 자유의지로 왕을 선택하여 곧바로 자승자박하게 되었습니다. (이더서 6:21-7:5)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이스라엘 시대에도 되풀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에 의한 통치를 거부하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 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왕은 그들의 자녀를 종으로 만들고,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심한 노동을 시키고, 그들을 전쟁터로 보내게 되리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삼상 8:19-20)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은 사울을 기름 축복하여 그들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

간이 흐르자, 사무엘이 예언했던 그대로, 그들은 무거운 부담을 지게 되었고 그들의 아들과 딸은 왕의 종이 되었으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나라는 두 개의 왕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지파와 유다 지파는 차례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로서의 정치적 존립마저 끝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경제적 자립을 잃은 전형적인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애굽인들은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하여 스스로 식량을 비축하여 마련하는데 자유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정부에 의존했습니다. 그 결과, 기근이 닥치자 그들은 정부로부터 식량을 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은 돈을 주고 샀습니다. 돈을 다 써 버리자, 그들은 가축을 내놓고 후에는 땅까지 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먹기 위해서, 스스로를 팔아 종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41:54—56; 47:13—26 참조)

우리는 지난 세기에 이와 같은 길로 깊이 들어섰습니다. 내가 권고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의 근면성을 밀기보다는 정부에서 뒷받침해 주는 안정 기금이나 받도록 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포프(1688—1744, 영국 시인)가 이야기한 시골 쥐와 서울 쥐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시골 쥐는 부자로 사는 서울 쥐를 찾아가 잔치상에 차려진 기름진 음식을 먹다가 고양이에게 죽기게 되자 다음과 같이 불평했습니다.

“각하”

하고 시골 쥐가 말했다.

“이처럼 좋은 음식이라도 조금도 즐겁지 않아요.

나는 다시 시골의 오막살이로 돌아가 뻥 부스러기라도 먹으며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알렉산더 포프 “호레이스 제 2집의 여섯 번째 풍자시”, 218—21행)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인 자유를 잃게 되는 비극적인 결과를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읍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고 싶어 못견디는 알코올 중독자, 광포한 마약 중독자 또한 둘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인간성을 상실한 타락자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정치적, 경제적, 개인적 자유를 잃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는 영원한 원리이므로 끝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지니고 있는 자유의지는 그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느냐에 의하여 증가되기도 하고 감소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내리는 모든 그릇된 결정은 그가 그후에 자신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짓게 됩니다. 자유의지를 행사하여 그릇된 결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둘이킬 수 없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영락없이 비천한 노예가 됩니다. 자유의지를 행사하여 오히려 퇴보하여서 더 이상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이맨인 예언자 사뮬엘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완악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궁핍한 날에 주께 간구할 것이나 헛된 간구가 되리니, 너희의 황폐가 이미 너희들 위에 임하였음이요, 너희의 멸망이 분명하여졌음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그날에 울며 통곡하리라……이르기를,

“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던 날에 회개하였더라면 좋았으면만……”

“보라, 우리는 이제 악귀에게 둘러싸였고 우리 영혼을 멀하려 하는 자의 사자들에게 둘러싸였으니…… 오 주님이시여 당신의 진

노를 저희에게서 둘이키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너희가 그 날에 이같이 이르리라.

“그러나 보라 너희들의 시험의 날은 지났도다. 너희가 너희의 구원의 날을 미루어 마침내 영원토록 둘이키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하였고, 너희의 멸망은 분명하게 되었도다.”(힐 13 : 32, 36-38)

이 불쌍한 사람들은 멸망이라 불리우게 된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무리의 지배를 스스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운명은 바깥의 어두움 속으로 끌려 나게 되는 것으로, 그러한 형벌은 그들이 자유의지를 행사하여 선택한 것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본래부터 창조주에게서 자유의지를 부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가장 무서운 죄의 속박에서 구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이 자유의지를 제한하고 노예가 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옳은 선택을 하게 되면, 자유의지의 범위가 넓어져 완전한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인간은 이 과정에 의해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는 한편,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인간적인 자유는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거의 모든 다른 자유를 박탈당했으면서도 영혼의 자유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겪은 인생 경험은 어떤 점에서는 수많은 역경을 치르며, 빈번히 투옥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긴 사도 바울의 삶과 비슷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을 위한 경험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깊음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

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혈벗었노라”(고후 11 : 24-27)

이러한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그는 로마에 있는 감방에서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습니다. “관체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なり”(딤후 4 : 6-8)

바울은 영혼 속 깊이 완전한 자유를 누린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얻은 보상을 다른 사람도 얻을 수 있다는 그의 결론은 우리 각자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생활 형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며,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기차를 타고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를 지나가면서, 어느 건물에 “자유란 법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이라는 말을 적절하게 해석한다면 우리는 이 명문에 궁극적인 진리가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에 한 마디를 더 삽입하면 “자유란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교성 88 : 21 참조)가 됩니다. 이것은 완전한 자유의 법에 대하여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과 유대인 통치자간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몇몇 사람들은 그를 믿게 되었는데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로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요 8:31-32)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율법에 순종하여 얻는 자유가 바로 영혼의 자유, 곧 가장 충고한 형태의 자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더 나아가서는 국가가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해도 이에 관계없이 우리 각자가 능히 이루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율법을 배워 그에 순종하는 것 뿐입니다. 그것을 배우고 지킨다는 것은 현세의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한 자유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번창케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선교사로 나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두 젊은 청년

#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복의 메시지에는 세 가지 위대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아들되심과,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거룩한 사명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진실함과 신성입니다.”

**잠** 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예수님 생존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았다면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면 안나스와 가야바의 주장대로 그가 귀신에 죄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기적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당시 나사렛이나 가나 또는 가버나움에 살았다면, 여러분은 신분이 낮은 몇몇 어부가 전한 새로운 종교를 믿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구원의 계획이 없는 선조의 전통을 그대로 따랐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린도나 에베소나 로마에 살았다면, 여러분은 바울이 전파한 이상한 새로운 교리를 믿었겠습니까? 아니면 당시 널리 퍼져 있던 유행과 전통과 예배 형식을 믿고 따랐겠습니까?

여러분이 현재 뉴욕이나 런던 또는 파리에 살고 있다면, 또는 시카고나 로스엔젤레스나 솔트레이크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새로우면서도 오래된 종교, 새로우면서도 오래된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위해 새롭게 계시하신 새로우면서도 오래된 생활 양식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초기 성도들 가운데 세워졌던 교회와는 유사점이 전혀 없는 교회를 지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언자의 음성을 듣는다면, 여러분 앞에서 사도가 간증한다면, 그리고 주님의 종이 구세주의 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들려준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은 믿겠습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그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온전히 회복되었고, 주께서 다시 한번 그의 교회를 이 세상에 세우셨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하늘에서 내려진 말씀을 믿겠습니까? 또는, 안나스와 가야바와 같이 현상태에 머물러 있어,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인위적인 다양한 예배 형식에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을 맡기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면서 나는 감히 여러분에게 엄숙한 선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단순하며 아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우리를 지지하고 이끌어 줍니다. 우리는 앞날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과 얼마 안 있어 전쟁과 재난과 황폐함이 맹렬한 불길처럼 온 지상을 휩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슬픔에 찬, 우울한 시대입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들고, 인간은 무서워 하므로 기절할 지경이며(눅 21: 26 참조), 국가는 혼란에 빠져 어디에서 평화와 안정을 찾아야 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현대는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한순간의 잘못 생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공할 힘을 가진 무기를 풀어 놓기라도 한다면 해

가 떴다 지는 동안 수백만 명을 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일찌기 이처럼 긴박했던 시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온갖 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소돔의 모든 음란한 행위와 악행을 따른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된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상태는 인자가 오실 때까지는 계속 악화되리라는 것입니다.

온갖 악행이 지상을 뒤덮고, 인간이 주님의 의식을 변경하여 배도하며, 영원한 성약을 범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생활하여 육욕적이고 관능적이며 악독하게 되어 가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이웃을 구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말하며 그에게 계명을 주었느니라.”(교성 1: 17)

그렇다면 모든 인간에게 전할 우리의 메시지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음을 온전히 회복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을 거친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는 신성한 약속입니다.

회복의 메시지에는 세 가지 위대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온 인류가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한다면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첫째, 그리스도의 거룩한 아들 되심과 둘째,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거룩한 사명과, 셋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진실함과 신성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경고의 음성을 높이며, 주께서 예전에 하셨던 것같이 직접 성역을 베풀셨다면 말씀하셨을 것을 말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장과 거룩한 사명은 옛날의 예언자와 사도들의 경우와 다를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대변인이고, 사자입니다. 예전의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

리도 땅에서 매번 하늘에서도 영원히 매이게 하는 권능을 갖고 있는 합법적인 관리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론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나 충실했에까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의미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온전하고 완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그것이 영원하고 온전한 참된 복음을 갖는 것을 뜻한다면, 그것이 베드로와 바울이 믿었던 것을 믿고, 그들이 속했던 같은 교회에서 회원됨을 찾는 것임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굶주린 자를 먹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흠뻑 지키는(교성 59: 9 참조) 것을 뜻하는 것이라면, 말일성도를 제쳐놓고 어디서 참된 기독교인을 찾겠습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엄숙하고, 명백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힘을 다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려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우리는 그가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유일한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행 4: 12 참조)

우리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그 자신이 전지전능하신 주님으로서, 위대하신 여호와이시며, 이 지상과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임을 가르치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약속된 메시야이고, 아버지의 독생자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는 육신을 성전으로 만드셨으며,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이고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이며, 그는 어머니에게서는 페멸의 몸을 물려받고 아버지에게서는 불

멸의 권세를 물려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신을 지녔으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러한 이중적인 본성으로 그는 무한하고 영원한 속죄의 회생을 할 수 있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우신과 영의 사망에서 인간을 구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몇몇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너무나 중앙하는 나머지 주 예수조차 두번째 자리로 밀어 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요셉 스미스는 위대성이나 영적인 면에서 가장 뛰어난 예언자 열두 명이나 스무 명 중의 한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늘에서의 그의 위치는 예언자 중의 예언자, 선견자 중의 선견자가 됨도 사실입니다. 그는 이노스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셉 스미스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예언자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그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복음을 전파하며 의식을 수행합니다. 그들의 사명은 인간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 스미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보았으며, 천사의 방문을 받았고, 영원한 세상에 관한 시현이 그의 눈앞에 열렸습니다. 그를 통하여 복음이 회복되었으며, 주님은 그에게 왕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날 이 경륜의 시대에, 요셉 스미스는 그리스도의 계시자가 되고 구원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지시를 받아, 그는 이 지상에 유일하게 참된 살아 있는 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교성 1:30 참조)

교회는 참된 성도의 조직체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집합체이며, 복음은 구원의 계획입니다. 대신권은 복음을 관리합니다. 교회는 이 지상에서 주님의 사업이 수행되고,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방편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종인 우리들도 그의 명에 순종하고, 그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요셉 스미스에 의하여 새롭게 계시되었음을 증거하며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복음을 믿고 그의 교회에 들어와 그와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왕국의 상속자가 되도록 권합니다.

고대의 예언자들이 성역을 배풀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말을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 3:2 참조) 바빌론에서 나와 시온으로 몸을 피하십시오. 시온의 스테이크에서 피난처를 찾으십시오. 거룩한 곳에 서 인자의 재림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교성 45:32 참조)

참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율법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이르게 됩니다. 주님의 영이 넘쳐 흐르도록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롬 10:14-15)

참으로 “믿음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합당한 관리자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롬 10:17 참조) 고대에도 그러하였듯이, 현제에도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고전 1:21)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기쁘고 즐거운 영광과 명예와 승리의 메시지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안에서 기뻐합니다.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말일에 전쟁과 재난과 화폐함을 면하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슬픔과 고난이 모두 복음의 기쁨 안에 묻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되고 충실한 성도 중에서도 앞으로 다가올 날에 사악하고 성품이 천한 사람들과 함께 죽게 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단 그리스도를 알아 그에게 인봉된 후라면, 살든지 죽든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리와 의의 대업에 또는 우리 종교와 가족과 자유스런 사회를 수호하는 데 우리의 생을 바친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는 탐욕스런 눈길로 미래를 두려워하며 생에 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단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중재하심으로 하나님과 뜻이 일치되었다면, 우리가 평화로 운 곳으로 불러가 그곳에서 의인의 부활을 상속받기 위하여 기다리게 된다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지닐진대, 우리는 영화로운 불멸의 몸으로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곱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뇨.”(사 53:1)

누가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믿고, 우리의 메시지를 듣겠습니까? 누가 요셉 스미스의 이름을 존중하고 주님의 도구로 쓰인 그를 통해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고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들의 말씀을 믿었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요셉 스미스의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과 고대 예언자들이 말씀한 것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 스미스와 그의 메시지를 거부한다면, 베드로와 바울과 그들의 메시지도 거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께서 여러분 시대에 보내신 예언자를 받아들인다면, 또한 그들을 보내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복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일에 보내신 사람들이 가르친 구원의 계획에서 결점을 찾는다면, 고대의 예언자와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 같은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인 우리들의 의무는 회복된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능력과 수단이 미치는 한 이를 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와 또한 요셉 스미스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지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믿고, 진리에 따라 생활할 의무가 있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종파, 당파, 지파의 사람들에게 다음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권합니다.

나는 옛날의 성도들이 했던 대로 의에 주리고 묵말라 하는가? (마 5:6 참조)

나는 마음을 터놓고 기꺼이 법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려 하는가(살전 5:21)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과 진리, 곧 예나 이제나 인간을 변함없이 귀중한 존재로 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빛과 진리를 기꺼이 받고자 하는가?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그와 그의 후계자가 고대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왕국을 갖고 있는지 알아볼 용기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 해야 할 바를 알려 주는 개인적인 계시를 받기 위해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셨음을 간증드리며, 모든 사람이 다 나아와 우리와 함께 그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선교 사업으로 성결케 됨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선교 사업은……훌륭한 은사를 받게 해줍니다. 또한 선교 사업 기간은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고 새롭게 하는 시기이며……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나는 이 경륜의 시대에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음을 여러분께 엄숙히 간증합니다. 이 영화로우신 두 분은 실제로 청년 요셉 스미스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182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로부터 하늘은 계속 열려 있습니다. 계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거룩한 사자로 천사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하나님의 기록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승영을 위해 진실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 주었습니다.

참된 교회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시하여 조직되었읍니다. 예언자와 사도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증인이 됩니다.

열쇠를 가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음을 전파하기 위한 문호를 열기 위해 보내겠습니다. 그들의 사업으로 그 문이 열리고 있읍니다. 복음은 전세계에 전파되고 있읍니다. 주님에 의해 영감받고 지시받은 이들 예언자와 선견자와 계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불러 다음 계명에 따라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말세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

“저들이 나아갈 것이며 막을 자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 이는 나 주가 저들에게 명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오 너희 백성들아, 두려워 멀지마. 이는 나 주가 여기에 명한 것은 다 성취될 것임이니라.”(교성 1:4—5, 7)

현재 188개의 선교부에는 30,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82개국 및 지역에서 48개의 다른 언어로 회복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천 명에 이르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교회 회원 수는 500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을 성공시키는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아주 기뻐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성취된 주님의 능력과 그의 제자들의 혼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이 급박함을 느끼며, 우리가 과연 그 일에 박차를 가해 나갈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에 부응하는 기본 원리와 목적을 전심으로 이해하고 믿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약 30,0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봉사하고 있지만, 그것의 몇 배나 되는 사람들이 봉사해야 하며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무를 행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 일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계속 생각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나는 이 사업을 충실히 행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 할 수 있는 영감에 찬 말씀을 전할 권능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영감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간단한 말입니다. 그것은 자주 가르쳐 온 내용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거듭해서 들은 것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게 합니다. 이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통하여 주님을 섬김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행한다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흠없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에게 되돌아가 주님과 다시 거하며, 주님과 같은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세주는 우리가 그를 섬기고자 한다면 손을 내밀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뜻하신 바를 연구해 보면, 이 사업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업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처럼 말씀이 단순하고 그 근원이 신성하며 또 영원한 축복이 확실히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선교 사업의 두 가지 목적을 참으로 이해하고, 믿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 목적의 본질은 첫째, 선교사 자신이 성결케 되는 것이고, 둘째는, 개종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진리를 알고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교회로 입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실은 성결케 되는 과정에 있는 선교사에게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사업을 저지하려 합니다. 그는 절묘하게 어디서나 틈을 엿보며 그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이 사업을 행해야 하며 또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력으로 인해 회생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임을 당하여 그릇되고 어리석은 것을 시험하려고 참된 것으로부터

멀어져 가기도 합니다.

현재 선교 사업을 행하도록 부름받을 연령이 되었거나 앞으로 곧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을 연령에 이를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겠지요. “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내 입장은 달라요. 나는 위대한 변호사나 의사나 운동가, 아니면 다른 위대한 인물이 될 생각입니다. 분명히 당신이나 주님은 이처럼 중요한 시기에 내가 학업을 중단하기를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선교 사업은 내 미래의 계획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나도 선교 사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당신도 나처럼 멋진 데이트 상대자가 있다면, 떠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 그녀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잖아요?”

또 다른 이유를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요. “선교 사업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나는 얼마 전에 직장을 구해서 차도 사고 녹음기도 샀어요. 이제 막 내게 필요한 것들을 갖추게 되었거든요. 지금에 와서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나는 법을 했고 교회에 잘 참석하지도 않아요. 나는 전에는 늘 선교사로 나갈 계획을 세워 봤지만, 잘못을 저질러서 지금은 선교사에게 요구되는 표준에 따라 생활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개별적으로 들어 볼 수 있다면, 각 경우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개 부모의 올바른 권고와 가르침에 대해서 조차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려 듭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도록 모든 면

에서 여러분을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러분이의 합리화시키는 것에 동조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웠으나, 그 계획에 선교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들은 위대한 변호사나 의사나 운동 선수가 될 거예요. 이년 동안이나 세상에 나가 놀며 지내느라고 공부에 지장을 초래할 수는 없어요. 다른 집 아들들에게나 그렇게 하라지요. 내 아들은 특별한 아이예요.”

이처럼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려는 여러분 젊은이나 부모님들과 따로따로 만나 이야기 할 수 있다면, 간곡하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복음이 주님의 제자의 음성으로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는 엄한 계명을 그의 예언자들을 통해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무슨 권리로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의 지혜와 겨루려 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마음에 의심이 가득한 사람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인간을 지은 이는 내가 아니냐? 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죄 없다 하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속하고서도 이를 이루지 아니하면 때가 있더냐?

“나는 명령하나 인간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나의 약속을 취소하나니, 저들이 축복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때에 저들이 마음속으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 화 있나니, 저희 상은 땅 아래로 숨어버리며 하늘에서는 내려오지 아니할 연고なり.”(교성 58:29-33)

여러분은 지상의 지위나 소유물에 매어 있는 세상적인 명성과 명예를 충실히 차에

게 임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교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주님은 “왕위와 왕국과 주권 그리고 여러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결봉된 대로 각기 승영에” 이르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최고의 영광이요, 영원토록 그 자손이 계속”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교성 132:19 참조)

여러분은 변명하고 합리화시킬 여지도 없이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할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육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오면 교육을 받고 합당한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자 친구에 관해서 말해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주께서 사랑하시며, 순결하고, 영원한 가치를 이해하며, 승영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신전에서 결봉될 수 있는 주께서 선택하신 딸을 마련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일에 충실히 않는다면 그러한 일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성결케 해주는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 라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젊은 자매들에게도 역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젊은 자매들은 “그가 떠나면 어떻게 하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떠나지 않도록 말립니다. 그러나 먼 곳에 가더라도 그와의 관계는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선교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도록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선교 사업에 합당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은 마땅히 받게 되어 있는 축복을 스스로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가게 하십시오. 단지 가게 할 것만이 아니라, 가도록 권고하십시오.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

힘이 될 수도 있읍니다. 오직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읍니다. 그가 깨끗하게 되도록, 그가 준비를 갖추도록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도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마땅히 해야 합니다. 현재 많은 자매들이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읍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약속된 축복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비록 이 생에서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어머니가 되는 것이겠지만, 먼저 선교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범범을 했기 때문에 선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악에서 돌이키는 길이 있읍니다. 회개의 단계를 밟을 수 있읍니다. 여러분은 합당한 자격을 온전히 되찾기 위한 단계를 밟을 수 있읍니다. 여러분은 온전한 상태를 되찾아 주님의 사업을 할 수 있읍니다.

내가 선교 사업을 해야 하며,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각 감독과 스테이크 부장들과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이런 말을 하겠읍니다. “여러분은 판사입니다. 여러분은 그들과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의무를 이해하고 행할 때까지 노력해야 하는 성스런 의무를 지고 있읍니다.

“여러분은 나무에 달린 열매가 자라 무르익어도, 아무도 거두어들일 생각을 하지 않아, 그대로 땅에 떨어져 뜯쓰게 될 때까지 내버려 두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이 그려 할진대,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을 들어가며 책임을 추궁받게 될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훌륭한 계획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결케 되는 과정입니다. 질서와 규율로 이루어지며 모든 행동이 성령과 일치하는 환경에 놓이게 될 때 선교사의 경험은 큰 변화를 가져 오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권능이 부여됩니다. 신비로운 일이 계시되며, 좋지 못한 습관이 개선됩니다. 성결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선교사는 암흑의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칠 수 있는 빛을 발하는 자가 됩니다.

할 일은 참으로 많이 있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서 감추인 자”로 그의 사업을 하기 위해 이 시대에 태어난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교성 81:9 참조)

여러분은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합당하게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면 하더라도 그 사업은 계속될 것입니다. 속도는 느리겠지만, 결코 중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우리에 속하지 않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성결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가르치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 복음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성결케 되겠습니까?

선교 사업은 선교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하늘 나라의 생활을 일정한 기간에 조금이나마 경험해 볼 수 있는 훌륭한 은사를 받게 해줍니다. 또한 선교 사업 기간은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고 새롭게 하는 시기이며, 성신이 여러분에게 승영을 위한 위대한 계획의 지식을 인봉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시기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개종시키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 자연히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스스로를 성결케 하기 위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봉사는 다른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쳐 그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장로들을 보내 나의 복음을 모든 백성과 이방인과 국민에게 전하라. (교성 133:8 참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느냐 아니냐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찰즈 에이 디데이  
칠십인 제일 정원회

“망설이는 것, 즉 먼저 자신을 섬기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당면하는 가장 큰 유혹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해요!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의식이 깨 이래 절철한 진흙 구덩이에 뻣뻣하게 누워 있던 사람이 쇠 음성으로 떠듬거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는 무겁게 몸을 뒤척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다 바쳤습니다. 우리의 힘과 몸과 마음과 삶 자체와 남아 있는 모든 낙을 말입니다. 우리는 죄수 생활을 하고 있지만, 두 손으로 그것을 움켜 잡아왔습니다. 우리는 일어서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아 왔으며, 현재 다스리고 있는 왕이 저지르는 불의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치욕스럽고 구역질나는 광경을 참아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희생을 해 왔다면,’ 의양을 알아보기 힘든 그 사람이 다시 돌아누우며 말을 이었읍니다. ‘그것은 나라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나라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에 반대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앙리 바뷰스, 불 밀에서 : 어느 분대의 이야기, 핏츠 워터 테이역, 뉴욕 : 이 티 유톤 출판사, 1917년, 345 페이지)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하고 벽을 향해서 있던 한 사람이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사격 분대에게 짤막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준비, 거총, 사격! 조용한 침묵이 뒤따랐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의 진영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탈주병들이 처형당하는 광경을 목격했읍니다. (1917년에 불란서에서 있었던 어떤 전장의 장면입니다.)

어느 선교 지역에서 한 선교사와 신권 지도자간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오고 갔읍니다.

“장로님은 주님께 봉사하도록 주님의 예언자에게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이 부름받았을 때, 주님의 예언자에게서 서명 받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는 장로님이 다른 개인적인 일을 뒤로 제쳐 놓고 주님께 봉사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바치고 관심을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지요.”

그러자 지체없이 대답이 나왔읍니다.

“더 이상 봉사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싫고, 나라도 싫고, 음식마저 싫습니다!”

“그럼, 좋은 건 무엇입니까?”

“아,”하고 그는 천천히 대답했읍니다. “나는 내 차를 몰고 싶어요. 나는 집에 가고 싶어요.”

어느 곳에서 여러 해 전에,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가 몇 명의 자녀들과 함께 거실에 물려 앉아 가족 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 곳에선 한 가지 비극이 발생하였읍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가지 말고 함께 살자고 애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사이를 두고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난 함께 살 수 없다. 내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해.” 그리고 그는 떠났읍니다.

또 2주 전 샌프란시스코의 신문에는 “세 사람이 죽기로 결심하고 베이 브릿지에서 뛰어내리다.”란 짤막한 기사가 실렸읍니다.

그리고 약 2000년 전에, 오천 여 명의 유대인들이 모인 군중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오천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읍니다.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문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요 6:25-29)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요 6:40)

그러자 유대인들은 불평했읍니다. 몇몇 제자들조차 불평했읍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두 가지 사항이 결정되었읍니다.

첫째는, “이려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려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요 6:66) 그들은 그들의 갈 길을 갔읍니다.

두번째는,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 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요 6:67-68) 그들은 유일한 참된 걸인 그 길을 따라갔읍니다.

버리다, 피하다, 포기하다, 물려나다, 항복하다, 거부하다, 퇴임하다, 군복하다, 배도하다, 철수하다, 어기다, 단념하다 등, 이러한 말은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읍니다.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국가에 대한 의무, 교회에 대한 의무, 가족에 대한 의무, 자신에 대한 의무, 하나님에 대한 의무 등을 행해야 할 때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있읍니다.

망설인다는 것은 어떤 과정을 선택할 때 주저하는 것, 동시에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는 것,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반도 넘게 살아온 사람이 당면하는 가장 큰 유혹은 먼저 자신을 섬기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면 이탈하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자이든, 가난하든, 힘이 있든 없든, 충실히든 안하든— 모두 유혹을 받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에 적응해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대변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 아버지나 우리 자신이나, 부모님, 감독님 또는 이웃에게 말을 막 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난 실일조를 그만 내겠어요.” “집을 나가겠어요.” 또는 “저를 해임시켜 주십시오.” “제 생활은 제가 책임지겠어요.” 그것은 침묵으로 반대하는 것으로부터 불평과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전세 이래로 주님은 우리 자신을 섬기고 먼저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셨읍니다.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요, 본질은 하나님의 우상이며 낡은 것이니 멸망할 때 바빌론처럼 파멸하리라.” (교성 1:16)

주님도 우리가 이러한 사태를 피하도록 도와 주셨읍니다.

“그려므로 땅의 주민에게 임할 재앙을 알고 있는 나 주는 나의 종 요셉 스미스 이세를 불러 하늘에서 그에게 계명을 주었느라.”

“이 계명을 받은 자들이 이 교회의 기초를 닦아 유일하고 참된 살아 있는 교회를 회미하고 어두운 데서 이끌어 내어 온 땅 위에 세울 권능을 갖게 하려 합이니, 나 주는 이 교회를 매우 기쁘게 여기느니라. 기뻐한다 함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하여 말함이 아니요, 교회 회원 전체를 가리켜 말함이니.”

(교성 1:17, 30)

주님은 살아 있는 예언자와 그의 교회를 통하여 끊임없는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그와 그의 아버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립니다. 일단 그를 알게 되면,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 나가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교회 그리고 국가에 대한 영원한 의무는 우리 모두가 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주님이 나파이인을 가르치실 때 주신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거니와,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니 삼 12: 48)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실망시키거나 우리에게 도망해 버리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주님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를 섬기도록(교성 59: 5 참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교성 84: 44) 준비를 하라고 거듭 명하셨습니다.

순종하고 섬기면서 견디어 나가는 것은 버리고 탈피하는 것의 반대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이 계속되는 것이며, 시련 속에서도 굳건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고통받으며 참을성 있게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고난을 참는 것입니다. 버티어 나가며 고통파슬픔을 이겨내고 파괴적인 세력에 굽하지 않는 것입니다.

역경에 처해 있음을 알았을 때 힘이 되어주는 것은 우리가 혼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환란 중에 인내하라. 이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이를 견디라. 보라, 네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교성 24: 8)

조지 큐 캐넌은 “복음 진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큰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성실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험받고 시련받아야 함은 필요한 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자신을 알게 되고 또한 자신의 약점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 형제 자매들도 우리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않고 나쁜 생각에 빠지지 않고 또는 참을성없이 초조하게 굴지 않고, 인내하고, 유순한 성품을 기르며, 명랑하게 되는 은사를 갖는다는 것은 귀중한 은사입니다.”(지렐드 엘 뉴奎스트 편,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벳 출판사, 1957년, 2: 198)

물론, 여러 가지 장애와 문제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냉소적이 됩니다. 실망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신앙을 잃는 사람도 있지만, 메시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고 구속주이시며,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위대한 생의 확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영원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질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국가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알게 됩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라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니 삼 13: 24)

조지 엘버트 스미스 대관장의 할아버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역과 악마의 영역은 하나님의 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선에서 주님의 편에 머물러 있다면, 악마는 여러분을 유혹하려 그곳까지 올 수 없읍니다. 주님의 편에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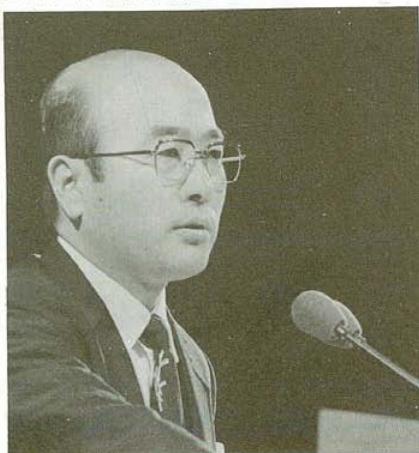
있기만 한다면 안전합니다. 그러나……여러분이 그 선에서 악마의 쪽으로 건너간다면 여러분은 그의 영역 안에, 그리고 그 권능안에 있어, 악마도 여러분을 할 수 있는 한 그 선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함으로써만이 여러분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대회 보고, 조지 앤더스 스미스 인용, 1945년 10월, 118페이지)

계속해서 성신의 영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두 개의 힘, 즉 교회와 세상,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러한 힘이 두 개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멀어져 나가지 않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발을 교회에 붙이고 우리 자신이 온전하게 영원히 매진해 나가도록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왕과 어릿광대에 관한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어릿광대에게 상을 주기로 결심하여, 그를 불러들여 그에게 멋진 지팡이를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보다 더 못난 바보를 찾을 때까지 이 멋진 지팡이를 네가 갖고 있거라.”

요시히코 기무라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왕은 아주 중한 병을 앓게 되어, 어릿광대를 불러 자기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긴 여행길을 떠나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릿광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여행을 위해 준비하셨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못했노라.”

그러자 어릿광대는 왕에게 지팡이를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영원히 계속될 여행을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시지 않았으셨다면, 이 지팡이는 왕이 가지셔야 합니다. 폐하는 나보다 더 바보이십니다.”

우리는 준비를 갖추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가장 큰 유혹을 이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의혹이나 시련의 순간에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것마저 저버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세익스피어의 작품에 나오는 헬럿은 절망과 자기 파멸에 이르려 할 때, “사느냐, 죽느냐?”(헬럿 3막, 1장, 56행)가 문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군인이 되느냐, 아니냐,  
선교사가 되느냐, 아니냐,  
아버지가 되느냐, 아니냐,  
자기 자신이 되느냐, 아니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느냐, 아니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제자가 되어 생활할 수 있으며, 우리의 간증을 갖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가 되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이고 구속주가 되시며, 요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 진리를 회복한 예언자이시며, 이 교회는 거룩한 참된 교회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인간 대 인간으로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교리에 불만을 품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읍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처를 낫게 해주고 의문을 풀어 줄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유명한 지휘자였던 작곡가 아투로 토스카니니(1867—1957, 이태리 지휘자)는 와이오밍의 벽지에 있는 한 외로운 양치기 목자에게서 짤막한 내용의 편지를 받았읍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라디오와 낡은 바이올린뿐입니다. 라디오는 뱃데리가 다 많아서 곧 못쓰게 될 것이고 바이올린은 음이 틀려 사용할 수 없답니다. 저를 도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 일요일에 연주를 시작할 때 ‘가’(A)음을 크게 내어 주시면, 내가 ‘가’ 줄을 조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른 줄도 조율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디오 뱃데리가 다 많으면, 내 바이올린을 켜겠습니다.”

토스카니니는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 전국에 방송될 라디오 연주회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 연주를 듣고 있을 산지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이제 오케스트라에서 ‘가’ 음을 연주하겠습니다.” 연주자들은 모두 함께 완전한 “가”음을 냈읍니다.

외로운 양치기 목자는 다만 한 음만이 필요했읍니다. 조금만 도움을 받으면 제대로 음을 잡아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 음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를 도와 줄 사람이 필요했읍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줄은 쉽게 조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줄이 제 음을 내게 되어 외로운 목자는 협주자들을 갖고 기쁨을 얻으며 훌륭한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읍니다.

오늘 아침에 나는 뱃데리가 다 많아 가거나 혼악기의 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는 한때는 구세주와 주님의 종의 말씀이나 가르침으로 감동을 받았으나, 다른 관심이나 활동에 마음이 쏠리게 된 사람들에게 마음의 느낀 바를 전해드리고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교회의 중요한 책임을 맡지 않아 참여하지 않거나, 상처받고 합당치 못한 느낌을 갖고 있을 수 있읍니다.

어떤 사람은 음을 바로잡지 못하였읍니다. 그들은 가락을 잊어버렸거나 원래의 악보대로 연주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구세주는 생활 방법을 알려 주시고 관심을 갖고 권고하시며 사랑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 28-30)

주님은 “완전한 자는 다 내게로 오라”하거나, 또는 부자만, 가난한 자만, 건강한 자만, 죄가 없는 자, 또는 가장 오래 기도한 자 또는 병자만 오라고 제한하시지 않았읍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오라고 권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명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는 말로 위안과 평안을 줍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자녀를 사랑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임을 믿으라고 간곡히 권고하십니다. (요일 5:1-3 참조)

구세주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침례를 받아 그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잠시 그리스도의 무리에서 길을 잊은 사람들도 있고, 또한 자의로 이탈한 사람도 있으나, 대개의 경우 교회 회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그렇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는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지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시받은 대로 산에 모여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생의 중심이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은 그를 경배했읍니다. 그들은 주님이 곧 그들을 떠나리라는 것을 알았읍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열 한 명의 사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8, 20)

마지막 가르침은 사람들을 찾아 침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가야 할 길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데려와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계명과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며, 영에 의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계명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도 길을 잊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종을 통해 구세주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주님은 복음의 메시지를 모든 나라에 전하기 위해서는 침례받은 모든 사람이—몇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스도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동류의식을 고집하는 큰 벽이 있었으나, 구세주는 죄인을 집에 들여 놓아서는 안된다고 믿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세리나 죄인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불친절한 행위를 꾸짖으시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마 9:12)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적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불평했으나, 예수님은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하셨으며, 회개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한 죄인에 대한 하늘에서의 기뻐하심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세주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잊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잊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잊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리라”(마 18:12-14)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잊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눅 15:6-7)

마이클 던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물론 교회에서 왔다는 것 외에는 그들의 이름도 귀담아 들지 않았고, 그들이 말하는 내용도 주의해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물론이었다는 것을 알아냈으며, 내게 가정 복음 교사가 필요하나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16년 동안이나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왜 예 라고 대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생애에서 무엇인가를 잊어버렸다는 것을 확신시켜 줄 여러 가지 일이 함께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에, 우리 이웃에 한 물론 가족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가지 않았으나, 우리의 두 아들이 축복을 받지 않았다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아내는 물론도 아니었고, 기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부족한 것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내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와 곧 연결이 되었으며, 그들은 정규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방문이 계속되면서 우리 가족의 모습이 영원히 변하게 된 과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신원회에 처음에는 별로 참석하지 않았으나 차차 규칙적으로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결코 지혜의 말씀을 지키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다섯 살이 된 우리 큰 아들도 주일학교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나마 십일조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나를 내조했지만 교회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두 선교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러 달 뒤에, 나는 장로로 성임되었고, 바로 아내를 침례주고 교회 회원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후에 위성턴 신전에서 한 가족으로 인봉되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까지 있었던 여러 상황을 돌이켜 보면, 감독단과 장로 정원회 회장단과 다른 사람들의 우리에 대한 사랑과 기도와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장로 정원회 회장(지금은 내가 맡고 있는 직분임)이 활동 촉진에 특별히 역점을 두고 일하며, 더우기 스테이크부장단의 일원이 우리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와드에서 약간 비활동적인 회원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언자 에스겔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죽은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잊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겔 34: 3-4)

바쁜 업무를 처리하는 라디오 방송국 간부와 함께 로스엔젤리스 비행장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나는 그와 그의 아내는 회원인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나 한번도 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파티와 주말을 즐기는 사회 생활에 몰두하였던 것입니다.

결혼 생활 8년에 세 자녀를 둔 그들은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나 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명의 가정 복음 교사가 왔다 갔습니다. 참된 목자인 새로운 가정 복음 교사가 그들의 생활에 끼어 들었으며,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새로운 가정 복음 교사는 이 사람에게 교회에 한번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애덤슨 형제는 계속해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혜의 말씀을 지키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했으며,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환영하지 않아도 좋다고 했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형제님을 모시고 교회에 가겠습니다.”

애덤슨 형제가 교회에 참석한 첫 번 일요일에, 그는 자기에게서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서 옆에 앉은 사람들이 자리를 옮겨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게 교회에서 일하고 기도하라 하겠지.”하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정 복음 교사는 일요일 아침에 그가 변명을 하거나 가지 못하겠다고 할 기회를 줄까봐 전화도 하지 않고 곧장 그의 집으로 차를 물고 와서 “준비되셨습니까?”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 가정 복음 교사는 일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애담슨 형제 가족들은 기이한 업적을 읽고, 교회는 그가 이제까지 귀가 달도록 들어 온 지혜의 말씀보다 더 많은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지혜의 말씀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에게 아무것도 주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이 교회가 무서운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교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구세주의 사명과 하나님 아버지와 회개에 대하여 알았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 속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지혜의 말씀은 이미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습관을 버리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자연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여러 가지 복음의 원리가 그들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 자신도 별로 의식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예배당에서 일하였고 또 어느 날인가는 감독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게 모임에서 기도를 부탁하셔도 되겠습니다.’”

구세주는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눅 22:32)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교회의 보호하에 맡겨져 있습니다. 즉 교회는 그들을 보살펴 주고 그들이 올바르게 있도록 지키며,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을 살찌게 합니다. (모로 6:4 참조)

아이다호주에 있는 조그만 물론 마을에 살고 있는 노부부는 교회 회원으로 일생을 지내 왔습니다. 남편은 86세였는데 남편은 그때까지도 아론 신권 제사였습니다. 이들 가족이 교회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은 새로운 가정 복음 교사는 그들의 집을 방문해도 되느냐고 물었었습니다.

이 노부부는 누군가 그들을 염려해 주고 있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교사들은 복음의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부부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86세된 이 노인은 장로가 되었으며, 아내와 함께 신전에 가서 현세와 영원을 위해 결혼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사려 깊은 가정 복음 교사들이 이 가족을 방문하지 않았던들, 그들은 필수적인 복음의 축복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들 가족이 늙기 전에도 이들에게 관심을 가진 목자들이 연결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가정 복음 교사들이 결국 그곳에 올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참된 교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늘 무엇인가 잃어버린 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진리의 핵심은 작으나마 끝까지 남아 있어, 명성이나 돈이나 세속적인 폐락과 결코 대치되지 않습니다.

구세주는 어린 아이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하늘 나라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주님은 “인자가 온 것은 길 잃은 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마 18:11)고 말씀하고, 모든 죄인들에게 회개하도록 하셨습니다.

마이클 바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 생활에 실패했습니다. 나는 교회의 원리에 반대되는 생활을 해 왔습니다. 나는 교회에 비활동적이며, 돌아갈 수 조차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업에 성공하여 가장 좋은 차를 물고 다녔으며, 값비싼 옷도 샀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혼히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읍

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회사에서 켄 휠러라는 사람을 채용했는데, 그의 행동으로 보아 나는 그가 물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곧 친해졌으며, 그는 나를 교회로 청했습니다. 나는 가고 싶었지만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에게 가자고 권했으며, 나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나도 돌아가고 싶었지만, 내게는 그런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에 혼자 있다가, 나는 절망감에 빠져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주님께 기도드리며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튿날 켄이 내게 기분이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그도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필을 내 어깨에 두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사장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것은 전날 밤 내가 구한 도움이었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느낌을 받았으나, 모두 다 관심을 가져



빌드 더 오더리, 웨인 대미대를 함께하는 회의자

주어 편안해졌습니다. 지금은 가장 좋은 차를 몰고 다니거나, 일류 옷을 입지 않으나 그 어느 때보다 더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계속했습니다. “교회에서 떠난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오기를 몹시 원하지만,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간증을 잊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감을 잊은 것입니다.”

떨어져 나간 사람들은 친구를 필요로 하며, 그것도 목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교리에 불만을 품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상처와 의구심을 치유해 줄 진정한 사랑과 따뜻한 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주 하나님은 암흑 가운데서 일하시지 아니하시며,

“세상의 유익이 되지 않는 일을 행치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가 세상을 사랑하십이요, 세상 만인을 주 앞에 인도하시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십이라.....

“.....주가 이르시기를 땅 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에게로 오라.....

“주께서 누구에게 주의 구원에 참가하지 말라 명하시더냐?.....아니라, 주는 만인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시며, 만 백성 앞에 나아가 회개를 전하며 가르치라고 그의 백성들에게 명하셨느니라.”(네이 26:23-25, 27)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이올린의 현을 조율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 가르치고, 활동화시키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으로 이끌어 주어, 그들이 완전한 “가”음을 내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업은 주님의 사업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 요셉 스미스 : 우리 세대의 예언자

---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은 150여 년 동안 여러 면에서 연구 대상이 되어 왔으며, 비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전해져 그 열매가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지와 교회와 회원들은 그의 간증과 사업의 진실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우리 세대, 곧 현대 예언자의 부름과 사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의 신앙은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예언자이며, 또한 그가 물론경의 출현을 1823년에서 1827년 사이에 천사가 그를 방문한 결과라고 말했다는 주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알게 된 사람들 중에는 이런 현대에, 천사가 지상을 방문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천사로 본다고 주장하는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4000여 년 동안 지상에서 계시로, 필요하다면, 천사의 성역으로 교회의 일을 인도해 오셨다는 간증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임박하여 말일에 일어날 상황을 설명할 때, 요한은 신약전서

에서 구세주가 돌아오시기에 앞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경고를 받게 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한 경고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외치게 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어 봅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계 14:6-7)

계시자 요한의 이러한 간증을 받아들인다면, 새로운 계시와 하늘의 사자가 지상을 방문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19세기 초에 이 천사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방문하셨음을 우리는 엄숙히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우리 시대에 예언자에게 나타났다는 발표는 신약의 예언과 전적으로 일치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에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재림 이전의 말일에는 참된 예언자와 거짓된 예언자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핵심이 되는 질문은,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을 대변했는가? 그는 참된 예언자였는가? 입니다.

오늘 내가 의도하는 바는 이 세대의 예언자로서 요셉 스미스의 사명을 뒤받침하는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변인이라는 요셉 스미스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물론경이라는 경전이 발행된 것이었습니다.

물론경은 미대록의 고대 주민들의 기록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신 뒤에 미대록에 있는 백성들을 방문하여

성역을 베풀 기록입니다. 그 기록의 주요 목적은 후대의 세대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경은 성경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또 다른 기록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요한이 예언한 대로, 하늘의 천사로부터 고대 기록을 받았습니다. 이 천사는 그에게 나타나 금판에 새겨져 둘 상자에 담긴 고대 기록이 묻힌 장소를 밝혀주었습니다. 얼마간 세월이 흐르자, 젊은 예언자에게는 그 판과 그것을 번역할 도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경전으로 세상에 발행되었습니다.

또한, 요한이 간증한 대로, 그 책에는 “영원한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 선교사들에 의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물론경의 기원에 대하여 우리가 갖고 있는 증거의 정당성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책을 읽고, 이러한 것이 참된 것인가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질문해 봄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드리거니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대한다면 성真是 진실성을 확인하여 주실 것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은 엄숙하고 진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간증하고 있읍니다.

참된 예언자에 관해 알려진 특성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메시지에 대하여 변명을 하지 않았으며, 사회적인 반발에 부딪쳐 조롱과 박해를 받는 것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요셉 스미스는 진리를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기존 교회가 난립하여 그는 하나님에게 그중 어느 것이 옳은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는 밝은 빛 기둥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

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17)

요셉은 두 분 중에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느 기독교 종파가 옳으냐고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것도 옳은 것이 없으니, 아무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의 간증을 심히 경멸하며 그에 대하여 그릇된 이야기를 하며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대의 사도 바울과 같이 젊은 예언자는 자신의 간증을 부인하지 않고, 이와 같은 말로 자신의 주장을 지켜 나갔습니다.

“나는 분명히 시현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도 알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며 정죄받는 일인 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25)

참된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아보는 방법은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것이 성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주님은 도세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일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신 18:22)

요셉 스미스의 많은 예언을 여기에 견주어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832년에, 그는 남부 제주와 북부 제주가 남북 전쟁으로 인해 나뉘어지게 되고 이 전쟁은 세계 전쟁의 시작이 되어 결국 온 세상의 나라들이 가담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특히, 그는 남북 전쟁으로 남캐롤라이나에서 반란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성 87편 참조) 이 예언은 1851년에 세상에 공포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듯이, 남북 전쟁으로 남캐롤라이나가 합중국에서 탈퇴해 나가게 되었고, 다른 주들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캐롤라이나의 섬터 요새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군수품을 보냈을 때, 연방 군대는 그 요새를 향해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1861년 그 운명의 날 이래, 온 세계가 전쟁에 휩쓸려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합중국이 유혈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는 노예 제도의 부당성을 인식하여 미합중국 의회에 그것을 폐지할 것과 공유지를 판매하여 노예 소유자들에게 지불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일고의 가치도 없이 묵살되었고, 남북 전쟁으로 약 5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한 사람에게 내려진 가장 놀라운 것이 되겠는데, 요셉 스미스는 여러 사람 앞에서 스티븐 에이 더글라스라는 젊은 판사에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판사님, 당신은 미국의 대통령 자리를 열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말일성도에 등을 돌린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을 짓누르게 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진리를 증언했음을 생전에 보고 알게 될 겁니다. 오늘 한 말은 일생 동안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정사, 5 : 394)

스티븐 에이 더글라스는 미국 대통령이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응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857년에 행한 정치적 연설에서 그는 교회를 “이 나라 안에 생긴 더럽고 구역질 나는 종기”와 같다고 악랄하게 공격하며 의회에 그것을 없애버리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 자리에 대하여 더글라스만큼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은 없다고 했지만,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그는 당선 득표수에 훨씬 못미쳤습니다. 승리는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시골 사람에게 돌아갔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 일년 뒤에, 더글라스씨는 인생의 절정기에 완전히 파산한 인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된 예언자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을 구세주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된 예언자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 7 : 20)는 기준으로 거짓 예언자들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의 “열매”를 몇 가지 살펴봅시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교회 회원들이 낸 십일조와 현물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말일성도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 25 : 40)고 하신 구세주의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여성들이 그들을 위한 조직을 갖지 않는다면 교회가 완전하게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42년에 여성 상호부조회를 조직하여 그것이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큰 여성 조직이 되었습니다.

유타주는 처음으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인정한 주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이 교회는 선교사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이 주님 재림이 전 시대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24 : 14 참조)

선교 사업은 모든 젊은이와 많은 기혼 부부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 훈련은 가정에서 시작되며, 교회 임무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훈련을 쌓게 됩니다. 젊은이를 위한 신

권 훈련은 열두 살에 시작되어 일생 동안 계속됩니다. 그 밖에도 교회는 선교사 훈련원을 운영하는데 그곳에서 선교사들은 각 나라의 모국어로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이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교회가 처음에 100만 명 회원을 얻기 위해서는 117년이 걸렸습니다. 두번째 100만 명을 얻는데에는 16년이 걸렸습니다. 세번째 100만 명은 9년이 걸렸습니다. 네번째 100만 명은 6년이, 다섯번째 100만 명은 단지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년도 못되어, 300만 명이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현재는 세계의 71개국에서 약 30,000명의 선교사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그들 자신이 마련한 선교사 기금이나 가족이 보내 주는 경비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와 그의 뒤를 이은 예언자들은 교회의 모든 회원들을 위한 교육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처럼 강조함으로써 여러 가지 훌륭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고등교육국의 정책 연구실 카네기 평의회의 의장인 클라크 웰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타주는 전국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볼 때 교육에서 앞장서 있습니다.

“유타주의 3~34세 주민의 학교 등록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유타주의 16~17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 층의 학교 등록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25세 이상의 주민이 교육을 받은 평균 핫수는 유타주가 1위입니다.

“유타주는 전체적으로, 교육 발전의 본보기가 되어 왔으며, 많은 지도자를 배출해 냈습니다.”(“지도자의 새로운 영역”, 1974년, 유타 대학 출업식 연설, 솔트레이크시티 : 유타 대학, 1974년, 2~4페이지)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 중에서 과학적인 연구 대상이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진 건강의 법입니다. 1833년에 주어진 그 계시에서, 교회 회원은 커피, 홍차, 담배 및 모든 알코올 음료를 삼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은 “배꼽에 건강을 얻으며 뼈에 꿀수를 얻으리라.”(교성 89:18)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많은 과학적인 연구에 말일성도 교회 회원들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는 유타주에 있는 말일성도는 미국 전체 인구보다 폐암에 걸리는 비율이 65퍼센트나 낮고, 심장 질환에 걸리는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35퍼센트가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처치 뉴스, 1979년 6월 23일, 5, 10페이지)

물론이 전체 주민의 2퍼센트도 못되는 웰리포니아에서 행해진 다른 연구에서, 유시 엘 에이(웰리포니아 로스엔젤레스 대학)의 방사선 물리학자이며, 교회 회원이 아닌 제임스 언스트롬 박사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언스트롬 박사는 물론이 폐암에 걸리는 비율에서 전국 평균보다 75퍼센트나 낮으며, 전체적인 암 발생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45퍼센트나 낮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는 이 연구 발표를 끝맺으면서, 물론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옳은 일을 행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빌 데이빗슨 인용, “우리가 물론에게서 건강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패밀리 서클, 1976년 1월호, 82페이지)

요셉 스미스는 1833년에 지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의학은 계시된 지혜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참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마 7:20) 됩니다.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은 150여년 동안 여러 면에서 연구 대상이 되어 왔으며, 비난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전해져 열매가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지와 교회와 회원들은 그의 간증과 사업의 진실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예언자들이 그들의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하고, 박해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

과 같이, 요셉 스미스는 그의 세대 사람들에게 펍 박받고 순교하였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우리는 힘 있게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앞에서 위대한 생애를 보냈고 또 위대하게 죽었으니, 옛적에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 대부분이 그려 하였듯이 자기의 사명과 사업을 자신의 피로 써 인봉하였고……”(교성 135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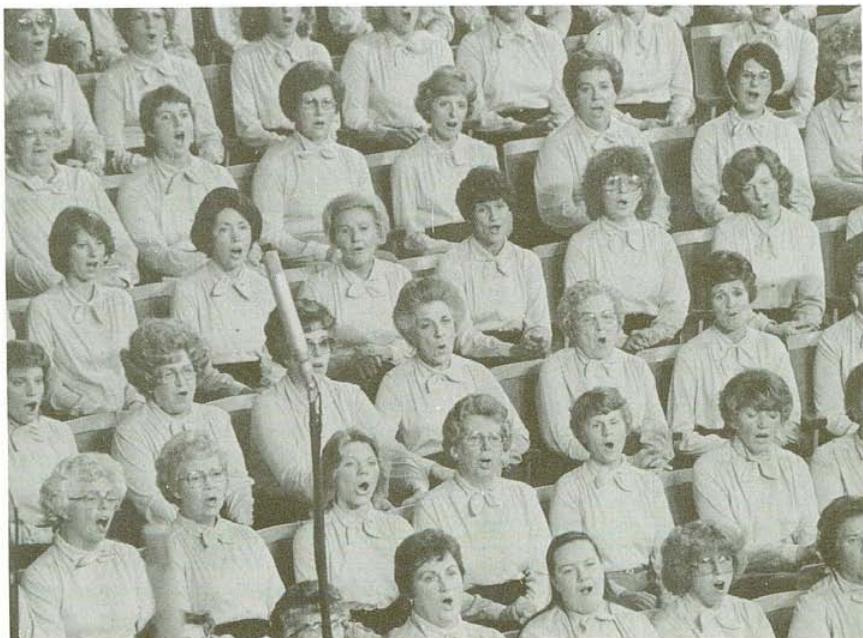
여러분에게 간증드리거니와 하나님은 하늘에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의 구속주이시며, 위대한 교사일뿐만 아니라, 기독교계에서 주장하고 있듯

이, 하나님의 독생자, 곧 구세주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였으며, 이 지상에서 산 가장 위대한 여러 예언자들 중의 한 분임을 간증드립니다. 그는 구세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크고도 가장 마지막이 되는 일로 현대의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이끌어 나아갈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날 교회를 인도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으며 살아 계신 예언자는 주님의 자녀를 축복하기 위한 아버지의 프로그램을 추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권능을 갖고 있음을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심과 이 모든 것이 참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를 간증드립니다. 아멘. \*



솔트레이크시 지역에서 온 자매들로 구성된 합창대

## 예언자를 따르라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교회 대관장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마찬 가지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으며 이 높은 직분에 있어서 그를 계승했습니다.”

페 더스토운 형제님이 그의 기도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밀일성도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 하나는 교회 대관장을 노래하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 페더스토운 형제님이 인용한 아름다운 주제와 더불어 전세계의 회중에 의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저의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를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네.

주께서 위안과 즐거움을  
그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밝은 빛 비추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 위해 일하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 능력 가지고 선지자가  
우리 인도하고 충고하게  
거룩한 빛으로 비추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를 위하여” 찬송  
가, 317장)

교회 안에서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님보다 더 사랑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 밀일성도가 사는 지역에서 누구를 위한 기도가 가장 많이 드려지겠습니까?

킴볼 대관장님은 온 세계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만큼 그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서슴없이, 한없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와 같은 친절을 베푸십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받고자 하는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노력하십니다.

주님은 그를 위하여 홀륭하고 혼명한 분들을 보좌로 주셨습니다. 바로 엔 엘든 태너 대관장님,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님과 같은 분들입니다. 헝클리 부대관장님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이이며, 혼명한 분이이며, 정력적입니다. 신앙의 용기를 지니신 분이며, 지브로울터 혜협의 요새처럼 굳건하고 튼튼한 분입니다.

이 형제님들은 대관장님만큼 혼신적이며 항상 모든 것을 바쳐 일하고 언제나 대관장님을 지지하며 그들에게 닥치는 모든 일에 친절과 뛰어난 지혜로써 조언합니다.

대관장단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홀륭한 조화를 이루며, 교회의 하나님의 정원회로서 기능을 발휘하며 영감을 받아 성도들을 인도합니다.

대관장단은 교회의 관리 평의회이며, 이 형제님들이 모든 것을 관리합니다. 그들은 이 경륜의 시대의 모든 열쇠와 권세와 은사와 축복을 갖고 있습니다.

대관장은 관리 대제사입니다. 그의 보좌들은 그에게서 위임을 받아 그와 함께 지상에서 가장 높고 거룩하게 조직된 이 정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합니다. 대관장단의 네 분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며 예언자며 선견자요 계시자입니다.

계열상, 그 다음에는 십이사도 평의회가 있습니다. 이 형제님들도 하나님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 대관장만이 온

전히 이 모든 열쇠를 갖고 행할 수 있읍니다. 이 특권은 한 시대에 지상에서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십이사도도 교회 대관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일하고 있읍니다. 그들은 대관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온전히 혼신하여 그 일을 완수합니다.

이 현대의 교회에 사도와 예언자를 세우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관장단과 십이사도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는 것은 근거없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권능을 받은 사람들의 안수에 의해서 성임되고 성별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인에게 보낸 서한에 설명한 바와 같이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5:4 참조) 그들은 계시에 의하여 지명받고 다른 살아 있는 예언자들에 의하여 성임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도록 완전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 (교리와 성약 1:38)

참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대변자이며 지상의 관리 대제사인 교회 대관장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임을 받았으며 이 높은 직분에 있어서 그를 계승했습니다.

그는 성임을 통해 이 말일에 교회가 다시 설 때 거룩한 천사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부여했던 모든 열쇠와 은사와 신권의 권세를 부여받고 있읍니다.

교회 대관장은 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십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읍니다. 요셉 스미스께서 그 모든 권세를 무덤으로 가져 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합

당한 권능을 지닌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므로 자연히 이 사업은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종인 예언자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고 엣 선지자 아모스는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모스 3:7 참조)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권능도 없으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할 권능도 갖지 않은 예언자를 지상에 보내신 적이 있읍니까?

구세주께서도 친히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에 예언자를 두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들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에베소서 4:12) 부름을 받고 성임되지 않았읍니까?

그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참된 교회의 기초가 되었으며 구세주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엡 2:20 참조)

또한 그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엡 4:13) 이르기까지 교회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들은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쾌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엡 4:14) 하려고 남아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그와 같이 인도해야 할 필요성은 베드로와 바울 시대에 못지 않게 큽니다. 당시에는 정말로 모든 가르침의 흐름이 성도들을 공격하였고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사람의 쾌술”을 가르쳐 성도들을 “유혹”에 빠지게 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고대의 교회 회원과 마찬가지로 예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 사는 우리도 성역을 베푸는 사업에 있어서 영감받은 가르침에 의지해야 하며, 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대의 성도들과 비슷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태도는 다를 바가 없으며 부도덕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현대의 교회의 지도자로 예언자를 주셨으며, 그들은 고대 예언자들과 같은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과거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언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교회는 옛 교회와 똑같은 교회이며, 똑같은 신앙이며, 제시되는 구원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고대의 백성들은 지도자를 단순한 어부나 천막 만드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거룩한 부름을 받은 자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주님이 그런 형제들을 주님의 선택된 종이라는 새로운 부류의 사람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현대의 지도자들을 이전에 갖고 있던 직업이나 개인적인 경력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현재 그대로의 하나님의 종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나 바울처럼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거룩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시대를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 할진데 우리가 그들의 음성에 귀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악마는 성도들을 대적하여 끔찍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형태의 유혹, 증오심, 편협한 마음, 부패 등으로 우리를 포위하려 합니다.

그의 방법은 참으로 사악한 것이며, 니파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 준 그대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가 인간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일으키며 선한 것에 대하여 성을 내도록 책동하며,

“많은 다른 자들을 달래어 육욕의 악식처를 쾅게 하며 이르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

이 잘 되리라.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며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하리니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속으로 인도해 가느니라.

“또한 다른 자들은 달콤한 말로 피어 저들에게 저속이 없다 하며 이르기를, 악마란 없는 것이며, 나는 악마가 아니로다 하며, 저들의 귀에 속삭여 말하기를 저들을 움켜잡아 무서운 사슬로 얹어 멜 때까지 하며, 그때로부터 저들은 빠져 나오지 못하게 되리니.”(니이 28:20-22)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에서 지금처럼 유혹이 많았던 때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이처럼 타락한 이때에 성장기를 보내지 않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말하는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장하는 세대를 위하여 마약성 약물과 성적인 유혹, 영화나 잡지, 신문 등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음란한 내용 및 여러 가지 형태의 수많은 유혹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느 곳이 안전하겠습니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보호되는 지붕 밑이 아니라면 어디가 안전하겠습니까? 오늘날은, 의로운 여덟 사람만 구원받고 지장의 모든 주민이 홍수로 멸망된 노아의 시대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대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현대 계시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가 한 세기 이상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으나 그들이 고집을 부리며 마음을 강퍅하게 하고 귀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노아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현대의 예언자의 경고의 음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노아 시대의 백성들보다 더 많이 우리의 선견자와 계시자의 말씀에 따르게 될까요? 우리는 저들의 파오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나 않습니까?

경전에 보면 많은 사람이 귀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되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의 종을 따르며 그들의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에게는 온갖 환란이 닥칠지라도 충실한 사람들은 하나님 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홍수로부터 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루살렘에 망할 때 리하이의 가족을 구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를 섬기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명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사악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시대의 위급한 사태를 외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곳에서 있을 만큼의 상식과 현명한 판단력을 갖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그런 것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언자에게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기꺼이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악마의 사악한 공격에 대적하여 하나님의 왕국을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언자에게 순종함으로써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갖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누가 주의 편이냐?

지금 보일 때라.

두렵없이 물노니

누가 주의 편이냐?

(찬송가, 51장)

우리가 주의 편이라면, 그의 예언자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나는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인 스펜서 더블류 캠볼 대관장님이 모세나 이사야나 요셉 스미스와 똑같이 선견자요 계

시자며 예언자이고, 그들과 똑같이 거룩한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회복된 교회를 위하여, 또한 하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주님을 섬기고 그의 계명을 지킵시다.

나는 현재까지 거의 38년 동안을 십이사도 평의회의 일원으로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나는 여섯 분의 교회 대관장을 모시고 일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 그분들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분들이 토의하는 것을 들었고 이 여섯 대관장에게 영이 충만함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 여섯 예언자, 여섯 계시자, 여섯 선견자를 알고 있었고 사랑했으며, 오랜 세월 동안 그들 가운데 거룩한 영이 임재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역사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우리가 계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이 형제님들이 거룩하게 지명된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그들을 따른다면 그들을 부르신 분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반대로 만일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여 손을 들거나 음성을 높인다면, 또는 그들을 무시한다면, 그런 행위를 통하여 그들을 종으로 택하신 거룩하신 분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예언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 속 깊이 느끼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외형적인 것을 제거하고 모든 가식을 벗어 버릴 때의 진실하고 근본적인 충성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의 종을 배척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기름부으신 분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며 또 자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그들과 어려서부터 이웃에 살아 서로 잘 알고 지내 왔고 그들에게서 특별한 면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과거에 매일매일 평범하고 틀에 박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함께 어울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기존의 틀에서 들어 올리사, 그들의 인생에서 새로운 지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성역을 베푸시며 그들을 높은 직책으로 불러 올리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성한 의투, 즉 그들의 거룩한 임무와 예언의 외투를 내려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오는 빛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들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열두 명의 교회 대관장, 즉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열두 대제사가 있었읍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이 사업을 위하여 일생을 바쳤습니다. 한 분은 폭도의 홍탄에 맞아 순교했읍니다. 다른 분들은 오래 살면서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충실한 종들에 대하여, 이들은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의 판사가 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는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해의 영광과 같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있는 분들입니다. (교성 76:53, 59, 68, 70 참조)

주님은 예언자들을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로 삼으실 것으로 영원히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8:17 참조) 주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들도 그들에게 영광을 들리고 그들을 지지하며 그들을 따를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실상 기도의 말씀이 되며 동시에 성약이 되는 이 훌륭한 찬송가를 우리가 늘 진실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빛으로 밝히시려  
주신 복을 감사하오며  
풍족한 그 손으로 주신  
모든 축복 감사하옵고  
즐겨 주의 일하고  
계명 힘써 우리 지키나이다.  
(찬송가 59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프로스 알 맥콤비 장로와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 하나님의 사업에 대적함



칼로스 이 애시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장단

오늘날의 반 그리스도인에 대항하여 보호받기 위한 아홉 가지 단계의 계획을 제안함

이 번 대회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지명을 받고 그 주제에 대하여 생각하는 동안에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 한 분과 전화로 어떤 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었읍니다. 그때 나는 대화를 나누다가, “이번 대회에 알맞은 말씀 주제를 정해야 하는데 도움을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었읍니다.

그는 자신있게 “그럼요.” 하시더니 “기도 하십시오, 칼로스 형제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읍니다.

그러므로 나는 수많은 기도의 결과에 대해 여러분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1857년 11월 1일에 조지 에이 스미스 장로가 역사에 남을 훌륭한 설교를 하셨는데 말씀 중에 옛날 중국 우화도 들어 있었읍니다.

“전국을 순회하는 어떤 여행자가 매우 크고 부유하고 아름다운 도시에 도착하였읍니다. 그는 그 도시를 보고 안내자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이 백성들은 틀림없이 의로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큰 도시에 작은

악마 한 놈밖에 보이지 않으니 말이오.’

“그 안내자는 이렇게 대꾸했읍니다.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선생님, 이 도시는 완전히 악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 한 놈이 모든 사람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여행해 가다 보니 울퉁불퉁한 오솔길에 이르렀는데 어떤 노인이 크고 험악하게 보이는 일곱 악마에게 둘러싸여서 언덕의 중턱을 올라가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행자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저것 보시오. 저 사람은 틀림없이 지독하게 악한 노인일 것이요. 저 사람 주위에 악마가 저렇게 달라붙어 있지 않소.’

“그 안내자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저분은 이 나라에서 유일한 의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가장 큰 일곱 악마가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방해하려 하지만 그들이 모두 힘을 합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교집, 5: 363-64)

스미스 장로는 이 우화를 이야기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악이 현재 온 세상에 만연되어 있으므로 저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데는 극소수의 악마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악마의 군대는 모두 총집결하여 ‘물론’을 감시하고 인간의 자녀의 마음을 휘저어서 물론을 쳐부수고 말살시키는 일의에는 할 일이 없읍니다.”(설교집, 5: 364)

어느 경륜의 시대를 막론하고 악한 무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살시키려고 했읍니다. 어떤 때는 악마가 직접 미혹하는 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또는 자기 편에 서 있는 자들을 통하여 흥계를 꾸밀 때도 있었읍니다. 그 예로, 물론경에서 예수를 절대하는 세 사람에 관한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악마에게 속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여 외치고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 하였읍니다. 그들의 간계는 그 형태가 모두 비슷했

옵니다. 그들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거짓 말을 퍼뜨리고 예언을 어리석은 전설이라고 하며,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을 왜곡시킨다고 비난하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이 어리석고 헛된 희망이라고 말하면서 괴롭혔습니다. (야곱서 7장, 앤마서 1, 30장 참조)

옛날의 반 그리스도인에 관한 기사를 읽어 보면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그릇되었으며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였는가를 보고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속고 기만당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든 사실에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그런 반 그리스도인을 고대 역사의 한 구석에 쳐박아 두고, 우리는 아무 보호망도 쳐 있지 않은 걸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존재가 말살될 수도 있습니다.

1820년 봄부터 루시페가 말일성도와 그들의 지도자에게 맹렬히 공격을 퍼부었읍니다. 반 그리스도, 반 물론의 행렬과 배도적인 무리가 줄을 이어 나타났습니다. 이런 무리는 지금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으며 새로운 거짓말과 거짓된 비난을 홍수처럼 퍼붓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을 말살시키고 간증을 훔쳐가는 무리는 참된 신앙인 사이에 의혹의 씨를 뿌리고 또 평화를 깨뜨리기 위하여 개인적인 접촉, 인쇄물, 라디오, 텔레비전 및 매스컴 등 모든 수단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두 달 전에 어떤 감독으로부터 마음 아파하는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근에 개종한 어떤 사람을 파문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이 세 개종자는 개종자의 간증을 깨뜨리는데 성공한 매우 열성적인 배도자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배도자는 요셉 스미스와 그 뒤의 예언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출판물이 변경

되었다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 배도자가 사용한 접근 방법은 빛보다는 어둠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대로 따르자면 누가의 기록이 마태복음의 내용과 똑같지 않고,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본 시현에 대하여 두번이나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전서를 모두 불태워 없애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9:1-9; 22:4-11 참조) 수많은 배도자들의 생활 속에는 현대의 예언자와 지속적인 계시에 대한 믿음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아 계신 예언자들과 살아 있는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다른 것에 구원에 관한 소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악의에 찬 나쁜 의도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우리도 맞서서 쳐야 합니까? 이제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구세주의 가르침과 일치하며 그대로 따른다면 과거와 현재의 예언자들의 현명한 권고에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1. 우리의 신앙을 잃게 하려는 사람을 피하십시오.** 신앙을 잃게 하려는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그들이 인간의 마음과 가슴에 뿌리는 씨앗은 암처럼 자라서 성령을 짊아 먹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자는 전설자이자 파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진리를 빙어들이며, 충만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선교사를 보냅니다. (교리와 성약 98:12 참조) 새로운 개종자가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는 이 떨멸의 생에 관한 인생의 장을 제시하였읍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전세와 다음 세상의 존재에 관련된 두 개의장을 더 제시하였습니다.”

**2. 계명을 지키십시오.** 브리감 영 대광장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높은 곳을 향해 전진해 나가

며,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원수를 치실 것입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윗소 편, 출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57년, 347페이지) 만일 우리가 거룩한 율법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당당하게 서서 마귀의 궤계를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엡 6:11-18 참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됩니다.

3. 밤금 권고받은 대로 살아 계신 예언자를 따르십시오. 교회 지도자 중에 다음과 같이 가르치신 분이 계십니다. “항상 교회 대관장님을 주목하십시오. 만일 그가 어떤 것을 하라고 지시하였는데 그것이 틀린 일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대로 한다면 주님이 그로 인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결코 그의 대변자가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여 길을 잃게 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히버 제이 그랜트, 1960년 10월, 대회 보고, 78페이지, 배리온 저 롬니 부대관장 인용)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임받은 사람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면, 지도 표시도 없는 저희 발을 걷거나, 영혼을 위기에 몰아 넣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교성 43:2-7; 52:9 참조)

4. 교리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다투거나 분쟁을 일으키지 마십시오. 구세주께서는 “서로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악마에게 속한자니.”(니암 11:29)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의로운 목적을 달성하려 하면서 사탄의 솔수에 의지한다면 일관성을 잃게 됩니다. 그런 모순은 우리를 좌절케 하며 성령을 잃게 하고, 궁극적으로 패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기 양심의 지시에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또 사람마다……똑같은 특권이 허용됨을 주장한다.”(신앙개조 제11조)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5. 경전을 상고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경전을 개인적인 안내자나 나침반으로 생각한다면, 길을 잊고 혼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엘마서 37:44 참조) 쇠막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가 그것을 불들면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6. 교회의 일무로부터 빛나가거나 벗어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올바른 길에서 이끌어 내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여 잘못된 길을 걷게 하려는 작전을 썼습니다. 그러나 구세주께서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마태복음 4:10)고 말씀하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었습니다.

7. 우리 원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는 니파이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선을 행하며, 못된 일로 너희를 이용하며, 너희를 팽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니암 12:44; 마 5:44; 니암 12:10-12 참조) 구세주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를 몰라서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23:12 참조)

8. “정결한 신앙 생활”을 하십시오. 기독교인들은 봉사에 참여하십시오. 병자와 가난한 사람을 도와 주십시오. 부모가 없는 고아와 미망인을 방문하십시오. 교회 사람 이거나 바깥 사람이거나 모든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십시오. (야고보서 1:27; 엘마서 1:30 참조)

9. 우리가 답을 알 수 없는 질문도 많이 있으며, 오직 신앙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천사 한 사람이 아담에게 “어찌하여 너는 주께

희생을 바치느뇨?"라고 물었읍니다. 아담은 "나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것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했읍니다.(모세서 5:6 참조) 우리도 미리 충분한 설명을 들지도 못한 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우리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을 받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은 복음의 첫째가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진보의 원리입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가 실제한다는 것을 복음 선교사가 있다는 사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교사들은 죄를 대적하는 전쟁의 제일선에서 싸우면서 머리 위로 쳐들어 오는 원수의 불화살을 맞고 있읍니다. 그러나 모든 선교사와 회원 여러분이 방금 말씀드린 9가지 규칙을 꾸준히 따르고 행한다면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 되고 신앙과 간증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동시에

1. 우리의 대업에 대한 반대가 바로 이 대업의 신성함을 증거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들의 권세에 대하여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사탄의 권세가 연합하여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2. 이런 박해를 우리가 맞서서 이겨 낸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생활을 단련시키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찬송가에 이런 구절이 있읍니다.

"불같은 시험이 앞에 놓이나  
내 은혜 충만히 널 채워 주리라.  
그 불길이 널 해하지 못하리라.  
그 불길 통하여 신앙 굳게 하리.  
순금만 주 앞에 나타내리라."  
(“굳도다 그 기초”, 찬송가, 16장)

구제주는 자신이 겪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읍니다.(히 5:8 참조) 요셉 스미스에 대한 반대는 그에게 경험이 되고 유익이 되었읍니다.(교리와 성약 122:7 참조)

3. 우리가 늘 헤쳐 나가는 이 물결은 예언자 요셉과 그 외의 사람들이 헤쳐 나간 깊은 박해의 물결에 비하면 작은 웅덩이에 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교리와 성약 127:2 참조)

4. 우리를 대적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도 우리의 대업은 정당하며 우리가 결국 이기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초기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힘을 얻었읍니다. "어느 사람이 연약한 팔을 떠서 하나님이 명하신 수로를 따라 흐르는 미조리 강의 흐름을 막아 되돌려 보낼 수 있으랴. 만일 그같이 할 수 있을 진대 전능하신 이께서 말일성도의 머리 위에 하늘에서 지식을 쏟아 부으심을 막을 수 있으리라." (교리와 성약 121:33)

브리감 영 대판장은 이렇게 말씀했읍니다. "물론 사상을 배격하는 것은 오히려 그 성장을 돋는 것이 될 뿐입니다. 절대로 위축시킬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십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웨소 편, 솔트레이크시티, 레저렛 출판사, 1941년, 351페이지)

우리 신앙의 가장자리를 땀들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한 중심지를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도자과 상의하고 계속해서 성도들과 우정을 쌓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부터 영양을 취해 나가면 그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없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거나 여러분의 존재를 말살시키는 여지를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로 6장 참조)

또한 나는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소중한 간증을 빼앗아 가는 중대한 절도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행동을 계속하면 다만 무익하고 공허한 한밤의 꿈으로 이끌려 갈 뿐입니다. (니이 27:3; 행 5:33—39 참조)

죄에 대적하는 싸움에서 하나님은 우리 편을 도와 주십니다. 비록 우리 수가 적고 영토가 작을지라도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리로 무장"(니일 14:14)하고 전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오늘날 전세계의 선교 사업에 관한 두 가지 일화”

**형** 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오늘 오후 여러분 앞에 서는 특권을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참으로 살아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의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갖추고 계신 것을 압니다. 그는 과거에도 그의 자녀에게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고,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우리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미대륙에 살았던 백성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셨습니다.

물론 경에서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임하는지라. 저들이 눈을 들어 주변을 살피나 그 음성을 깨닫지 못하니라. 이는 거친 음성도 아니요 큰소리도 아니요 비록 적은 음성이었으나 온 몸을 속속들이 파고 드는지라, 몸에 떨리지 않는 곳이 없었고, 저들의 영혼을 퀘뚫어 가슴을 불붙게 하였으며,

“세번째로 음성이 들릴 때 비로소 귀가 열려 듣게 된지라, 소리나는 쪽으로 눈을 돌려 곧게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 소리가 하늘로부터 나는데,

“보라 세번째 소리가 들릴 때 이를 깨달아 듣게 되었으니, 소리가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로 인하여 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았으니, 저에게서 들으라.”(나파이 삼서 11:3, 5-7)

나는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반구에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침례받으실 때의 장면을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 3:16-17)

나는 1820년 봄 어느 이론 아침에 뉴욕주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소년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나의 머리 바로 위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 기둥을 보았으며 그 빛 기둥은 머리 위로 점점 내려와 드디어 그 빛은 나를 비쳤습니다.

“그 빛이 내 위에 머물렀을 때 글로 표현 할 수 없는 찬란함과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에 한분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요셉 스미스서 2:16-17)

나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요셉이 하나님의 참된 살아 있는 예언자였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시대의 요셉 스미스처럼 또한 서반구와 동반구의 고대 제자와 사도들처럼 나도 하나님 아버

지께서 친히 전하신 간증이 참되다는 것을 압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말씀을 들어 봅시다.

나는 나사렛 예수가 유대 땅에 태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그가 갈릴리 바닷가와 팔레스타인 땅과 평야를 거니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가 친구인 나사로의 누이 마르타에게 전하신 그 간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제 몬순 장로님은 다음과 같은 성구를 인용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한복음 11:25-26)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하여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바로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지상에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권세와 권능을 요셉 스미스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이 지상 생활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복을 통하여 영원한 행복과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일본과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간증을 믿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이 대회에 오기 직전, 13년 전에 남편을 잃은 여성으로부터 감동적인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두 아들을 키워야 했습니다. 저는 고등 학교에 다니던 큰 아이의 침례식에 참석하였을 때, 주위를 감싸고 있는 훌륭한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훌륭한 영성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충만하고 겸손한 태도들이었읍니다. 저는 제 아들이 흰 옷을 입고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테이크부장의 부인이 컷속 말로 그의 죄가 쟁겨질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훌륭한 경경에 감동되어 눈물이 솟아나왔고 마음속으로 기쁨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 자신에 관하여 알고 싶어졌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도 죄를 쟁을 수 있을까? 내 죄가 쟁겨지며 다시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나도 침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그녀도 4일 동안 선교사와 공부하고 기도한 후에 구세주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침례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의 작은 아들도 침례 받았습니다. 지금 마사교 아난 자매와 두 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함께 한 가족으로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인봉을 받기 위해 동경 신전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출풀과 절망으로부터 행복과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이 복음의 힘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권세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입니다!

나는 복음이 회복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이 지상에 다시 세워졌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나는 겸손하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초대하여 이렇게 권고하고 싶습니다. “와서 이 생명의 물을 드십시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저에게서 들으라.”(니파이 삼서 11:7)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말씀드립니다. 물론 경은 성경과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권세를 갖

고 있읍니다.

구세주의 음성을 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형제의 예를 들어 볼까요? 최 형제는 9개월 전에 그의 아내와 두 자녀와 모친을 버려 두고 그 집을 나갔읍니다. 어느 날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의 광주시에서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리며 전도하다가 이 가족을 찾게 되었읍니다. 그 가족은 선교사들과 공부를 시작하여 곧 침례받았읍니다. 그 선교사들은 이 가족과 함께 가정의 밤을 시작했읍니다.

어느 날, 일곱 살 된 딸이 선교사로부터 물론경을 사서 자신의 짤막하지만 훌륭한 간증을 적어서 아버지에게 보냈읍니다. 두 선교사는 그 물론경을 아버지에게 가져 가서 이 복음의 참됨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하여 동요됨이 없이 굳건한 간증을 전했읍니다. 그 아버지는 왜 이 사람들이 자신과 자기 가족을 이다지도 염려해 주며 친절히 대해 주는가 하고 의아스러워 했읍니다. 그는 밤이 되자 물론경을 읽기 시작했고 다정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읍니다. 그는 크게 영감을 받고 그것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읍니다. 또

한 자기 딸이 쓴 간증을 읽었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아빠, 아빠, 아빠, 아빠와 함께 가정의 밤을 하고 싶어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우리는 아빠를 사랑해요. 나는 아빠를 사랑해요. 아빠가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해요. 나는 아빠가 이 책을 읽으시기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빠를 사랑하고 계셔요.”

최 형제는 물론경을 읽고 큰 영감을 받고 자기 딸의 간증에 감동되어 그 선교사들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하였읍니다. 그래서 이 가족은 다시 결합되었으며, 현재 최 형제는 광주 제 3 와드의 감독으로 있읍니다. 오늘 그는 물론경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살아 있는 본보기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앉아 있읍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나라와 혈족과 방언에게 사랑하시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증을 전할 주님의 선교사가 참으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이웃 중에는 틀림없이 수많은 최 감독과 수많은 아난 자매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스페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이 주님의 예언자임을 암니다. 그는 살아 계신 예언자입니다. 그는 우리가 결음의 폭을 넓히고 때가 급박해졌음을 인식하여 빠른 속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며 그것도 당장에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킴볼 대관장님, 대관장님은 주님의 살아 계신 예언자이십니다. 대관장님은 옛날의 유크처럼 경멸과 등창으로 고난받은 바 있으나, 그러면서도 앞으로 전진하고 또 하나님의 산을 오를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관장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는 대관장님이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결음의 폭을 넓히고 이 훌륭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다른 최 감독과 아난 자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좀더 겸손하게 이 주님의 종에게 주목합시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 이유를 가르침



폴 에이치 던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명을 주십니다. 그의 계명은 행복으로 가는 이정표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 앞에 서서 위대한 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기쁨인지 모릅니다. 나는 우리가 친구라는 사실만으로도 기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회는 영적으로 승화되고 친분을 나누고 훌륭한 권고의 말씀을 듣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권고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거의 모든 운동을 다 해보았으나 스카이다이빙만은 해보지 못한, 한 젊은 운동 선수의 이야기를 해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는 점프하는 방법에 관한 몇 개의 이론 과정을 이수했읍니다.

처음으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리는 날이 되자, 그는 약간 겁이 나서 교사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읍니다. “내가 정말로 이걸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 교사는 이렇게 말했읍니다. “걱정 말아요. 예비 낙하산을 더 달아서 보호해 줄 테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해서 900미터의 고도에 도달했읍니다.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는 떠밀려 나갔읍니다.

약 600미터의 고도까지 내려왔을 때 낙하

산을 펼치는 끈을 잡아당겨야 한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낙하산 끈을 잡아당겼으나,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낙하산을 잡아당겼으나,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세번째 낙하산을 잡아당겼지만 그것도 역시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그는 놀랍게도 지상으로부터 올라오는 다른 사람을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엇갈려 지나쳤읍니다. 그 젊은 사람은 이 새로운 친구에게 이렇게 외쳤읍니다. “여보세요. 낙하산에 대하여 좀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 친구는 이렇게 소리쳤읍니다. “아니요. 당신은 폭발물에 대해서 좀 아는 것인가요?”

우리는 누구나 훌륭한 권고의 말씀을 필요로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부모와 젊은이들이 다음과 같이 질문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복음의 보다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고 또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떠한 개념이나 원리를 배우거나 행동 방식을 바꾸는 데에는 다섯 가지 중요한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첫째, 가르치고자 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합니다. 둘째, 자주 반복해야 합니다. 셋째, 이유를 이해시켜야 합니다. 연령의 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규칙의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네째 단계인 확신과 다섯째 단계인 적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세째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의 질문에 대하여 “글쎄, 경전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지.” 또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명하셨어.”라고 흔히 대답합니다. 젊은이들은 왜 경전에 그렇게 언급되었으며 왜 지도자들은 그렇게 권고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대학교에서 직접 경험했던 일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젊은이들과 함께 매우 특별한 모임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전 결혼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세 젊은 여성과 함께 걷게 되었는데 그 중의 한 자매는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녀가 교회 회원이 아닌 청년과 데이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체로 사람은 데이트하는 상대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 상례라고 조심스럽게 전한 다음 “나는 신전에서 자매의 인봉 의식을 수행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매는 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저는 신전에서 결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그렇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젊은이 특유의 표정으로 나를 보면서 “왜 신전에서 결혼해야 하지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교사 여러분, 그런 질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대부분의 교사들처럼 잠시 멈추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영감의 인도를 간구하면서 “글쎄, 왜 신전 결혼을 하지 않으려 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알고 싶으세요?”

그래서 나는 “그래, 꼭 좀 이야기해 주렴.”하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아버지를 잘 알고 계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꽤 잘 알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밖에 나오면 참 좋으셔요. 사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분이지만, 좀 위선적인 편이 있어요. 아빠가 집에서 엄마와 우리를 대하는 것을 보셨으면 좋을 걸 그랬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엄마 아빠는 신전에서 결혼하셨어요. 나는 그런 결혼 생활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아무아무 형제와 자매님을 얼마

나 잘 아세요?”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들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알고 말고”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집 아기를 돌봐 준 것을 아세요? 그 사람들도 신전에서 결혼했어요. 나는 그런 식의 결혼 생활은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아무개 부부를 잘 아시지요?”라고 물었습니다. 그 부부는 교회 회원이 아니지만, 그 지역 사회의 훌륭한 일원입니다. 그들에게는 열 자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나는 그 집의 아기들도 돌봐 주었는데 나도 그런 결혼을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머니, 아버지, 교사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경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실 자녀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젊은이들은 이유와 까닭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좀 난처했습니다. 바로 옆에는 다른 젊은 여성들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매에게 “자매는 어떻게 생각하지?”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빈틈없는 자매였습니다. 그녀는 그 친구에게 “젠, 그건 옳지 않아.”라고 말했습니다.

젠은 “왜?”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가 믿고 가르치는 것이나 우리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할 수 없는 두세 가지 예를 들어서 교회 전체를 판단하고 있잖아. 한 가지 물어 볼께. 네가 최근에 어떤 개인적인 위기에 처해서 데이트나 시험이나 사회적인 문제 등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아빠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너의 방에 와 침대 옆에 앉아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오늘 밤 축복해 줄까?’하고 말씀하신 적이 최근에 있었니?”

젠은 그녀를 쳐다보고 “우리 아빠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우리 아빠는 그렇게 하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녀의 아빠가 정규적으로 가족을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가족 기도에 관한 경험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쉬지 않고 약 여덟, 아홉 가지에 달하는 그러한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젠의 마음에 약간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젠의 눈빛에서 이런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나도 그런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몇 달 후에 신전에서 그들의 결혼 의식을 집행하는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나는 변화가 일어난 그날 밤 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절로 즐거워집니다.

결혼 전후의 잘못된 선택은 대부분이 방황이나 의도적인 과오 때문이 아니고 오해나 의사 전달과 이해가 잘 안된 것이 원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부부가 영원한 결혼이 어떤 것이며, 그것이 왜 중요하며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이해한다면, 아무도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상 아무도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젊은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금하시고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권고하시며, 경계하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져 본 적이 있습니까? 그의 계명이 단지 그의 독단적인 변덕이나 일종의 인위적인 시험이거나 일부에게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일반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계명은 현명하신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에 넘치는 권고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바로 나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개념을 받아들이면 그 계명에 대해 달리 정의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이유, 즉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명을 주십니다. 순결이 그 완벽한 모범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덕

그 자체에 보상이 따르며, 한 사람의 영원한 동반자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잘 간수하면 그런 서약이 더 아름답고 더 기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때입니다. 그것은 지금 동전 1개를 원하느냐 나중에 금강석을 받기 원하느냐 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문제입니다. 결혼 전의 관계에서 생기는 순간적인 페락은 그 어떤 것이라도 결혼하여 하나가 되는 웨센 더 큰 기쁨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방종은 결혼 후의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순결은 은행에 예금한 돈과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간직하면 단 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기쁨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는 전에 어느 누구의 것도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쁨을 저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면? 이미 우리가 약속을 하여 이제 결혼식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경우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성약입니다. 하나님과 배우자에 대한 성약이며,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과 배우자 쌍방에 대하여 더 깊은 사랑과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이 세상에서 너무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권고에 대항하여 논쟁을 벌이고 미덕을 파괴하는 것은 너무 사랑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이기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랑이든지 영원한 것이 되려면 육체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존경심, 신앙, 신뢰, 흠토, 명예와 영적인 요소와 정서적인 요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속성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의 관계나

영원한 관계가 존재할 수 없읍니다. 가정을 배경으로 하는 텔레비전의 연속극에는 이런 속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나는 심각한 불행으로 가득 차 있읍니다.

만일 여러분의 경우에 있어서 육체적인 요소가 지배하는 상황이라면, 바로 그 사실로 인해 좀더 그런 요소를 다스리고 다른 차원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말은 현명한 엘마가 그의 아들 시블론에게 권고할 때 사용한 말이며 그때 그가 한 말은 이 원리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격정을 다스려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하며”(엘마서 38:12) 욕망을 다스리게 되면 힘과 권세와 사랑이 커집니다. 말을 다스릴 수 있는 확실한 두 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한 가지 방법은 죽이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엘마는 결코 우리의 격정을 죽이라고는 하지 않았읍니다. 여기서 뜻하는 것은 격정이 나쁜 것이므로 그런 것을 가지면 안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과 우리가 그 힘을 존중하는 대상을 다스리자는 것입니다.

말은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사람은 말을 다스려서 그 힘을 통제하고 그 힘을 좋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합니다. 격정은 우리 자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격정을 다스려서 그 힘을 통제하며 결혼을 강화시키고 영원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격정의 힘을 사용합니다. 사람은 말이나 격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적인 관계는 낭비해서 없애버리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훌륭한 잔치에 사용하기도 전에 손상시키기에는 너무나 고귀한 순은 제품과 같은 것입니다.

“이유”를 이해하여 배움으로써 합당한 태도가 발전되고 품행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우리가 현명하게 또한 이해심을 갖고 가르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대회 발표자

# 확대되어 나가는 요셉 스미스의 유산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셉 스미스의 고매함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인류의 존경을 받으면서 점점 더 높이 서게 될 것입니다.”

18<sup>44년</sup> 6월 28일 금요일 아침, 일리노이 주, 이미 한 여름의 태양이 뜨겁게 내려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 아침 8시경부터 윌라드 리차즈 박사와 사뮤엘 에이치 스미스 외의 일행 9명은 일리노이의 나부시로부터 카테지 사이의 먼지나는 길을 따라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열을 막기 위해 덮개 위에 나뭇 가지를 쌓은 두 대의 마차가 이 엄숙한 일행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차에는 38세의 젊은 나이로 목숨을 잃은 1.8미터 정도되는 요셉 스미스의 시신과 그 보다 몸집이 더 큰 44세인 그의 형 하이람의 시신이 뉘어 있었습니다. 리차즈 박사와 살해된 두 사람의 형제인 사뮤엘은 나부를 향해 지친 발걸음을 옮기면서 바로 그 전날 요셉과 하이람이 얼굴에 페인트 칠을 한 폭도들의 총에 피격 당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보호한다는 그들의 구실하에 카테지 검옥에 갇혀 있던 두 회생자와 리차즈 박사 그리고 존 테일러에게

150명 내지 200명에 달하는 약탈자들이 감옥으로 몰려와서 회생자를 쏘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의 사망 소식은 이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본부가 있는 나부시에 전해졌습니다. 마차와 지친 호송인들이 나부시에 들어서자 수천 명의 시민이 나와 삼가애도하고 통곡하면서 이 일행을 맞아들였습니다.

피에 얼룩진 두 시신은 나부 맨션에서 마차로부터 조심스럽게 내려져 머리부터 발 끝까지 깨끗이 셋겨졌습니다. 상처난 곳을 솜으로 채워 넣고, 부패하지 않도록 약을 바르고 그 두 사람의 데드마스크를 떴습니다. 그리고는 두 시신에 좋은 수의를 입혔습니다. 이런 준비가 끝나자 그날 밤 이 두 사람의 미망인과 자녀와 수많은 친지들이 와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토요일이 되자 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 들어 사랑하는 예언자 요셉과 그의 형인 축복사 하이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그들을 묻었습니다. (교회 정사, 6: 614-31 참조)

요셉 스미스의 원수들은 그들의 불명예스런 행동에 우쭐해 했으며 수많은 사람이 요셉 스미스로 인해 회복되어 그의 생명을 바친 교회는 이제 요셉 스미스와 함께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원수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었겠지만, 이 교회는 사라지지도 않았고, 그의 죽음과 동시에 그의 사업이 중단되지도 않았습니다. 1세기 반 동안에 행해진 모든 일은 이 특별한 사람인 요셉 스미스의 사업의 영원한 본질에 대하여 훌륭한 간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회복시킨 이 교회는 이 세상의 수많은 지역에서 놀라우리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선교사 제도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교회의 관리 체계는 모든 합당한 남자 회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서 여성의 높은 위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훨씬 이전부터 영감받은 전장의 법과 세상적인 복지에 관한 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현재 살아 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난 모든 인간에게 영원한 승영을 가져다 줄 열쇠와 구원의 원리와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누구나 궁극적으로 요셉 스미스가 진리의 계시자이고,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요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어 지상에 그리스도 교회를 다시 세우는 임무를 부여하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으며 요셉 스미스와 그의 사업에 대한 나의 간증을 입증해 주는 몇 가지 사항을 겸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증거는 과학적이거나 역사적인 것을 초월한, 영적인 것입니다.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지상에 회복되고 그를 계승한 모든 예언자들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학적인 방법만으로 완전하게 증명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은사와 권세에 의하여 이해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써, 1833년 2월 27일에 요셉 스미스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에서 홍차, 커피, 담배, 알콜성 음료가 몸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지만 내 생각으로는 지혜의 말씀에 담겨 있는 가장 위대한 약속(교성 89편 참조)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를 받게 된다는 것과 멸망의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 한 것같이 우리를 지나치게 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89:

## 19, 21 참조)

요셉 스미스의 가장 중요한 공헌 가운데 하나는 고대 기록에서 나온 신성한 경전인 물론경을 번역하고 출판한 일입니다. 1830년에 이 경전이 처음 나왔을 때에는 이 기록이 금속판에서 나왔으며 북아메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의 고대 문명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요셉 스미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역사적인 증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런 외형적인 증거가 발견되고 있으며 요셉 스미스가 물론경에 대하여 진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을 확실히 믿기 위한 증거 역시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 책의 비판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물론경의 기원에 대하여 다른 면으로 설명하려 했으나,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기원에 대하여 구구한 이론이 생겼다가 없어지곤 했으나 여전히 이 책은 살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학자들도 요셉 스미스처럼 교육도 받지 못하고 미국의 개척지에서 자란 소년이 물론경을 지어 내서 쓴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매우 높은 차원의 개념이 많이 들어 있고, 저술 방식이 각각 다르며, 편집 방식으로 봐서 한 사람이 물론경 전체의 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자라면 진실로 요셉 스미스가 개정된 애급으로 새겨진 고대의 금판에서 물론경을 번역했다는 것을 신앙으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경에 대한 요셉 스미스의 설명에 대하여 맹렬하게 공격해온 그 어떤 논리도 사실에 입각하여 올바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1세기 반 동안에 나타난 증거와 이 모든 것이 차츰 요셉 스미스가 완전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참된 사실을 말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요셉 스미스에 대한 나의 간증을 말씀드리면서 나는 그가 위대한 영적인 권세와 함

께 인간적인 약점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거나 완전한 사람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자신이 인간적인 감정과 불완전한 속성을 지닌 육신의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정직하게 수행하려 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842년 10월 29일에 나부에 방금 도착한 몇몇 교회 회원에게 준 편고의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단지 한 인간일 뿐이며 내가 완전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나에게 완전하기를 기대한다면 나도 그들이 완전할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나의 약점과 팬리 역원들의 약점을 용납해 준다면 나도 그들의 약점을 용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정사, 5 : 181)

나는 그의 이런 출직한 태도에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인간적인 약점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질책도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엄하게 이런 문제이 올 때마다 그는 주님의 대변자로서 그런 계시를 읊겨 적는 사람에게 그것을 받아 적게 했습니다. 그 한 가지 예가 고리와 성약 5편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나는 너 나의 종 요셉에게 명하노니, 회개하여 내 앞에서 더욱 올바르게 행하여 다시는 인간의 설득에 넘어가지 말라.”

요셉은 완전해지려고 애썼으나, 스스로 완전하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거대한 사기극을 조작해 내거나 속이려 했다면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에 대하여 그렇게 진실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약점을 출직하게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찬 훈계를 출직하게 발표한 것은 그의 정직성을 훌륭하게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가 선포한 것은 인간적인 본성에 반대되는 발언이며 자신의 이익에 반대되는 것을 인정하였으므로 좀 더 굳

건한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 출직하게 말함으로써 종오와 조소와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으나 마음을 열어 놓고 사실 그대로의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역에 있어서 초창기에 그런 인생의 난관에 대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시련을 본 지 불과 3년밖에 안된 1823년에 모로나이 천사로부터 그의 이름이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의 백성들에게 좋게도 전하여지고 나쁘게도 전하여지며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의 백성들의 입에 좋게도 오르내리며 나쁘게도 오르내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셉 스미스서 2 : 23 참조) 그러나 그에 대한 박해가 너무 심했으므로, 요셉 자신도 깜짝 놀라 한번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해서 어두움의 세력이 연합하여 나를 거스리려 왔겠습니까? 어찌해서 내가 아직 어린 시절에 내게 대한 반대와 박해가 일어났을까요?”(요셉 스미스서 2 : 20) 그러나 그는 모든 시련에 당당히 맞서서 극복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강해졌습니다.

요셉 스미스의 약점이나 인간적인 결점은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안됩니다. 그런 것은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와 그의 사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느 특별한 때에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종 요셉 스미스여, 진실로 주께서 네게 이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는 네가 바친 현물과 네 스스로를 미약한 자로 인정하였음을 크게 기뻐하노라. 이는 세상의 미약한 자를 통하여 나의 지혜를 나타내 보이려고 너를 들어 올렸음이라.”(교리와 성약 124 : 1).

나는 요셉 스미스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암으로써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성격은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자식과 같아서 모든 연령층의 사람과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

의 주의를 끌었읍니다. 그가 영향을 준 많 은 사람들은 지극히 지적이고, 협신적이고,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요셉 스 미스의 사업을 위하여 바친 희생과 고난과 혼신과 또한 그들이 보인 용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윌라드 리 차즈 박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요셉에게 보인 충성심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요셉은 카테지 감옥에 가기 전에 리 차즈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읍니다. “‘우리 가 감옥에 들어간다면 우리와 함께 같이 들어가시겠습니까?’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읍니다. ‘요셉 형제님, 형제님은 나에게 함께 강을 건너자고 하지도 않았고, 카테지로 오라고 하지도 않았으며, 함께 감옥에 가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형제님을 버릴 것 같습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드리지요. 만일 형제님이 반역죄로 교수형을 선고받는다면 내가 대신 교수형을 당하고, 형제님을 석방시키겠습니다.’ 요셉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읍니다. 그러자 박사는 ‘아닙니다. 그렇게 할겁니다.’라고 대답했읍니다.”(교회 정사, 6 : 616)

요셉 스미스가 순교한 후에 실용주의자이며 능력이 뛰어난 브리감 영이 예언자로서 그의 뒤를 이었읍니다. 브리감 영은 요셉 스미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읍니다.

“내가 처음 그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는 천국과 이 세상을 동시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성직자들도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천사와 악마에 대하여 정확하게 나에게 말해 주지 못했읍니다. 그들은 애급의 암흑처럼 깜깜했읍니다. 내가 요셉을 보았을 때 그는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늘을 쥐하여 땅으로 이끌어 왔읍니다. 그리고는 땅을 쥐하여 들어 올리고, 분명하고 간단하게 하나님의 것을 열어 보였읍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의 훌륭한 점이었읍니다.”(브리감 영 설교집, 존 에이 웨소 편,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텍 출판사, 1954년, 458페이지)

이 교회가 1세기 반 동안에 이룩한 결과는 요셉 스미스의 이야기의 진실성에 대한 위대한 증거가 됩니다. 이 교회의 사업은 놀라운 방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일성도라는 큰 집단은 요셉 스미스와 그의 사업에 대한 간증을 충실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요셉 시대로부터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다는 요셉의 기사가 참되며 그가 지상에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했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요셉의 죽음 이후 세월이 흐름에 따라, 틀림없이 그에 대한 역사는 여러모로 분석되고 결합을 찾으려 하며, 비판과 의심을 받게 되고, 면밀하게 조사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참되다는 증거는 계속해서 더 쌓일 것입니다.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협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혹독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그려했듯이 그들의 신앙은 혹독한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 자신처럼 수백만 명이 그가 회복시킨 복음에 충실히 살다 죽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요셉 스미스의 고매함이 더욱 크게 두드러질 것입니다. 그는 인류의 존경을 받으면서 점점 더 높이 서게 될 것입니다. 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가르친 메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그가 지상에 회복한 사업은 영원한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문에는 요셉 스미스의 사업이 참되다는 것에 대한 간증이 유산으로 전해 오고 있습니다. 나는 어린 소년 시절에 어머니의 무릎에서 이 유산에 관해서 배웠읍니다. 나의 고조부이신 에드워드 패트리지는 요셉 스미스가 박해를 받고 생명을 잃기 전에 여러 해 동안 예언자 요셉과 무척 가깝게 지냈읍니다. (교회 정사, 4 : 132 참조)



대관장의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부처가 9월 26일에 개최된 상호부조회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그는 요셉에게서 침례받았습니다. 예언자가 받은 계시에 의하여 그는 회복된 교회의 첫 감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교리와 성약 41:9) 우리 할아버지는 그 부름을 수행하면서 폭도로부터 극심한 고통을 겪고 모욕을 당했으나 위낙 굳건하고 신앙이 깊었으므로 자신을 지명한 그 계시의 참됨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언자와 가까웠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요셉의 마음과 영혼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미혹당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생애와 죽음이 모두 그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혼신과 고난과 회생은 그가 무언중에도 요셉을 하나님의 영감받은 종으로 믿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유산 외에도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도구로써 구세주가 직접 지상에 계시던 때 이후로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많은 진리를 계시했다는 것을 내 영혼에 확신시켜 주는 나 자신의 내적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이 연단에서 가르쳐진 것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우리 모두에게 남겨 준 점점 크게 확대되어 가는 진리의 유산의 연장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신 대로 인류를 구원하고 승영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다시 사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 자신이 누군가를 기억하십시오



엔 엘顿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의 제 1 보좌

“만일 우리가 일상 행하는 모든 일을 정직하고 칭송할 만하고 올바르게 해 나간다면, 바로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관하여 알고 싶어하는 내용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나는 이 대회가 이 때까지 참석한 대회 중에서 가장 훌륭한 대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대관장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시어 주님의 영이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실 필요가 있었으므로, 틀림없이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연사들에게 축하드리고 싶고, 훌륭한 합창단에게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대회에 참석하여,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배우고 조언을 듣고 혼계받았습니다. 내가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님과 함께 일할 당시 그분은 대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너 부대관장님, 우리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그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일깨워 주십시오.” “그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것이 내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우리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 줄 때 신앙개조의 몇 구

절을 인용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신앙개조 제 1조)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매일 기억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그대로 해야 할까요? 좀더 열심히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예 그런 것을 하지 않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영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나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끌며, 복음 안에서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 백성들에게 그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가 우리 영의 아버지라고 믿고 그에 따라서 행동합니까?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합니까? 만일 우리가 항상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대로 생활하겠습니까?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인에게의 선행을”(신앙개조 제 13조)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정직하게 생활합니까? 진실, 순결, 인자, 유덕으로 생활합니까? 이 교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를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사업할 때 항상 이 원리대로 행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항상 그것을 의식한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한 가지 예로 들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때까지

내가 들은 이야기만큼 훌륭하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캐나다의 앨버타 주 정부에서 일하고 있을 때 텍사스의 달라스로 가서 수많은 법률가가 모인 자리에서 연설하도록 초대되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가 나를 청중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나를 소개하면서 내가 물론 교회에 감독을 했고, 지금은 캐나다의 애드먼튼 지부의 지부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 누구든지 물론 교회의 감독직을 맡고 사람은 더 이상 달리 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나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었던 이 교회의 회원과 이 교회에서 직책을 맡았던 밀을 만한 사람들을 칭찬한 것입니다. 나는 ‘귀환 선교사가 ‘나는 평판이 좋은 귀환 선교사입니다.’라고 말하면, 그에 대하여 ‘자네는 더 이상 달리 소개할 필요가 없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신권 소유자가 자신이 살아온 방식으로 인하여 주님이 ‘저 신권 소유자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나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선한 일을 보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둘릴 수 있게 생활하는 것은 이 교

회 회원의 막중한 책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만일 이 교회와 4백만의 교회 회원과 그 외에 복음 또는 복음 원리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정직하고 청송할 만하고 옳으며 어떤 면에서나 신뢰할 수 있게 해 나간다면 바로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관하여 알고 싶어하는 내용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대회를 마치고 떠나면서 앞으로는 좀더 나은 행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모두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직해지고 완전한 십일조를 내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신전에 가서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을 하고 가족과 함께 인봉될 준비를 갖추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모두 선한 모범이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 교회의 위대한 힘이 될 수 있도록 그 결심을 그대로 간직하고 집으로 가서 여생을 그 결심대로 생활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제3회 세계 대회 참석자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역원  
밀일성도 대관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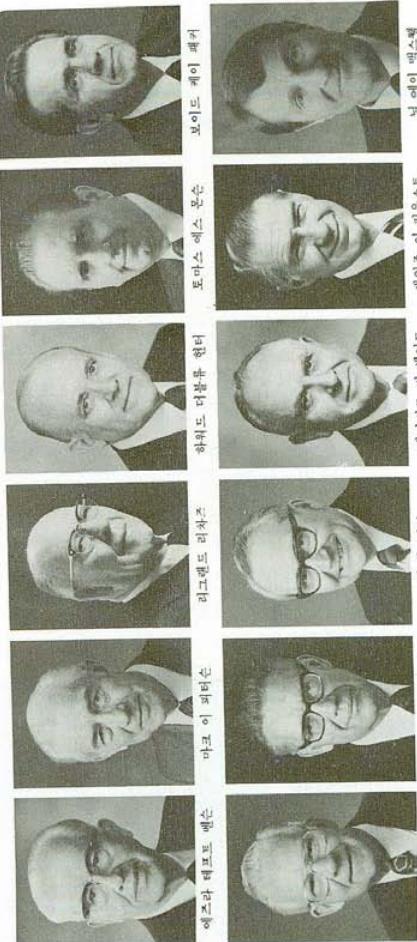


엔. 앤드. 데니. 브래들리  
제 1 보좌  
스탠서 더블류. 킴벌 대관장

엔. 앤드. 데니. 브래들리  
제 2 보좌  
에리온. 지. 룰. 뉴. 부대관장

고든. 비. 험클리  
보좌

십이사도 평의회



마틴. 제이. 에쉬

보로스. 양. 애링顿

엘. 블. 제이

데일. 마이. 드. 비. 해이트

닐. 레이. 앤스워스



## 편의를 초월하는 사랑



제이 리차드 클라크 감독  
관리 감독의 제 2 보좌

“우리가 개인적으로 희생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절대로 편한 것이 아닙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우리 복지과의 새 관리 책임자인 글렌 페이스 형제의 15세

된 딸 틱키 페이스는 학교 친구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네 아빠는 어디서 일하시니?”

“교회 사무실에서 일하셔.”

“교회 사무실이 어디에 있니?”

“신전 옆에 있는 높은 빌딩이 있잖아!”

“네 아빠는 어떤 일을 하시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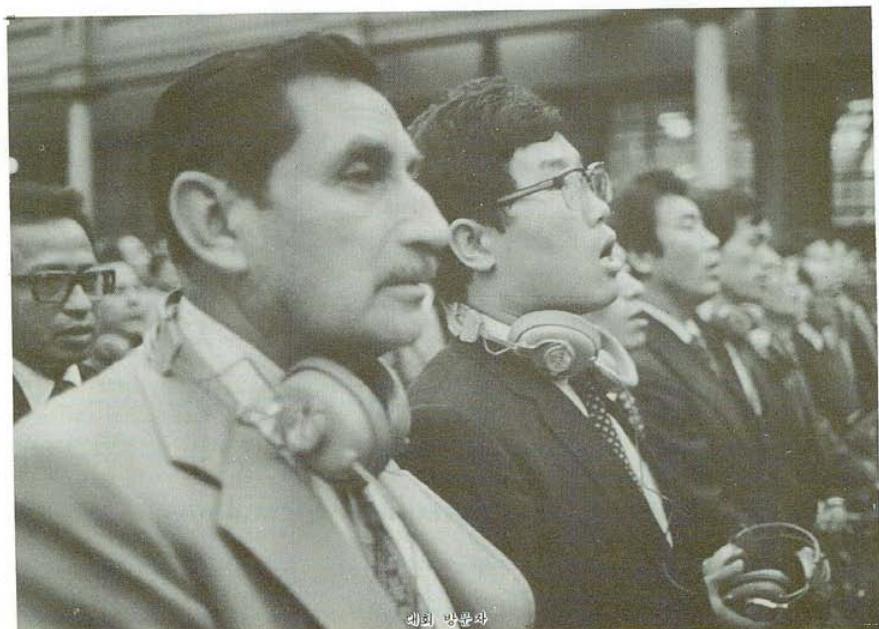
“복지과를 책임맡고 계셔.”

“복지과가 뭐지?”

여러 가지로 설명했으나 친구에게 큰 감명을 주지 못했다고 생각한 틱키는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들어봐. 만일 지금부터 복천년 사이에 교회 회원이 한 사람이라도 굽어 죽는다면 그건 우리 아빠 책임이야.”

복지 사업은 여러 가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지 사업을 농장, 통조림 공장, 감독의 창고, 데저벳 산업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사업은 교회의 주된 사명, 즉 성도를 온



教会 哉문자

전케 하는 일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복지 사업은 회원 개개인을 위하여 복음을 실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룹이나 제도화 되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구세주와 같은 수준에도 달하기 위하여 혼자서 사다리를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지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가 행하신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신의 성품에 참예하는 자”(벧후 1:4)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벧전 2:21)

1897년에 캔자스의 토피카에서 젊은 목사인 찰즈 셸던 박사가 ‘그의 발자취’를 따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그가 실험한 것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었습니다. 그는 실직한 인쇄공으로 가장하여 토피카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는 이 “기독교” 사회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한 기독교 목사가 회중에게 다음과 같이 재미있는 제언을 했습니다.

“나는 일년 내내 정직하고 진지하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할지원자를 원합니다……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당장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주님이 우리 입장에 계시다면 행하실 그래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제자에게 행하라고 가르치셨다고 믿는 그대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철저하게 따르도록 제언합니다.” (찰즈 앤 셸던, 그의 발자취를 따라, 뉴욕, 그로셋 앤드 턴랩, 1935년, 15—16페이지)

그 책에서는 그 제언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훌륭한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실험에 흥미를 느꼈으며 만일 오늘 말일성도에게 그것을 실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

일에 사는 기독교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최고의 법(하늘 왕국의 법)”(야고보서 2:8)은 “연약한 자를 복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교성 81:5)하는 것임을 압니다. 우리는 이 사상의 중요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들의 필요 사항에 주의를 돌릴 때 구세주에 대한 깊은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철학자 윌리엄 조지 조단은 “인생에서 커다란 네 가지 기아 즉, 육신의 기아, 마음의 기아, 가슴의 기아, 영혼의 기아를 알아냈읍니다. 이것은 모두 실재하는 것으로 인식해 주고 충족시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윌리엄 조지 조단, 개인주의의 왕관, 뉴욕, 플레밍 에이치 페렐 출판사, 1909년, 63페이지)

1. 육신의 기아는 우리가 가장 잘 의식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욕구입니다. 육체적으로 배고프면서 영적으로 강해지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2. 마음의 기아는 지적인 양식, 교육과 개인적인 발전을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3. 가슴의 기아는 외롭고 자신을 낚게 평가하고 오해받는 상태에서 교우 관계와 동정과 인정받는 것을 갈구하는 기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의 가슴의 기아를 채워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 자신의 가슴의 기아를 충족시키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4. 영혼의 기아는 영원한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하는 영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조단, 63—75페이지 참조)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생의 모든 기아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6:

35) 우리는 모두 세상의 기아를 퇴치시키기 위하여 구세주의 능력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적절한 순간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많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유명한 컬럼리스트인 에마 봄백 여사가 자신의 한 가지 경험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작은 것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에 수없이 걸려 오는 전화와 방해가 되는 대화로 곤욕을 치렀던 어느 아침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떠나기 전에 30분 동안 혼자 앉아서 생각도 하고 책도 읽고 상념에 잠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순간 옆 자리에서 나이 든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틀림없이 지금 시카고는 출겠지요.’

“나는 무표정하게 ‘그럴거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나는 거의 3년이나 시카고에 가지 못했어요. 내 아들이 거기 살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책을 읽으면서 ‘참 좋으시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시체가 이 비행기에 있어요. 우리는 결혼한 지 53년 되었어요. 나는 운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이가 죽자 수녀가 병원에서 여기까지 차를 태워 주었어요. 우리는 천주교 신자도 아닙니다. 장의사가 내가 그이와 함께 공항에 오게 해주었어요.”

에마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만큼 나 자신이 미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인간이 절망 상태에 빠져 자기 말을 들어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무관심한 나그네는 진짜 인생의 드라마는 외면한 채 소설에 더 흥미를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필요로 한 것은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었습니다. 충고나 지혜나 경험이나 돈이나 도움이나 전문적인 지식이나 동정심이 아니라 단 몇 분 동안 자기 말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쉬임없이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비행기에 올랐으며, 나와는 다른 구간에서 지정 좌석을 찾게 되었습니다. 나는 외투를 벗어서 걸다가 그 할머니가 새로운 옆 사람에게 ‘시카고는 출울거예요.’라고 호소하듯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옆 사람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에마 봄백, “당신은 듣고 있습니까?” 만일 인생이 한 그릇의 버찌라면 나는 그 씨앗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뉴욕, 맥그로 힐 출판사, 1978년, 197-98페이지)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혜를 베푸는 행동을 보고 스스로 “왜 나는 저런 것을 생각해내지 못했을까?”하고 자문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그처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분별력을 터득한 것같이 보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필요사항을 재빨리 파악하는 능력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고 우리는 다시 좋은 의도를 성취시키지 못한 채로 남게 됩니다. 우리의 친절한 행동만이 우리 가슴의 의로운 소망에 필적할 수 있습니다.

시인인 존 드링크 위터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루는 탐성을 탓하여 “기도”라는 시를 썼는데 그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결어야 할 일을 알고 있으니,

당신의 뜻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사이 이상의 것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행할 의지를 허락하

읍소서,

우리가 할 것으로 알고 있는 대로 행할 힘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할 일을 행하겠다는 톤튼하고 혼 둘리지 않는 목적 의식을 허락하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사오니 지식은 구하지 않나이다.

다만 주여 우리가 할 일을 행하는 의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나이다.

우리가 할 일을 실행하는 의지를 주옵소서.

(종교시 결작선 중에서, 제임스 달턴 모리슨 편, 뉴욕, 하퍼 앤드 브라더즈 출판사, 1948년, 418페이지)

나는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할 때마다 곧 감독과 상호부조회 회장이 머리 속에 떠오릅니다. 그들이 와드 회원을 위하여 혼신적으로 봉사하는 데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원리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가슴을 울리는 개척자에 관한 기사를 인용하겠습니다.

“오래 전에 유타주 남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나의 증조모는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 기간은 물론과 비회원들의 사이가 적대 감정으로 극도로 악화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증조모가 나가시던 와드의 한 젊은 자매가 비회원인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결혼은 물론도 비회원들도 반기지 않는 결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 젊은 부부는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산모는 산고로 몸져 누워 아기를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매의 딱한 처지를 안 나의 증조모는 곧 와드의 여러 자매 집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차례로 이 젊은 부부를 위해 아기를 돌보아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거절했습니다.

“나의 증조모가 혼자 이 아기를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나의 증조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상당히 먼 길을 걸어 이 젊은 부부의 집으로 가 아기에게 먹을 것도 주고 목욕도 시키고 빨래 같은 모두 모아서 집으로 가져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너무도 피로하고 몸이 허약해져서 도저히 일어나 그들의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만일 자기가 가지 않으면 아무도 그 아기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데 생각이 미쳤습니다. 할머니는 억지로 기운을 차려 젊은 부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지칠대로 지친 할머니는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큰 의자에 쓰러져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잠자는 동안 할머니는 온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게 타올라 뼈 마디를 모두 녹이는 듯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머니는 꿈속에서 아기 그리스도를 목욕시켰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목욕시켰다는 큰 영광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제 할머니에게 다음과 같은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 왔습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으니라.’” (주님의 명을 받아, 1977-78년도 멜기세덱 신권 정원회 개인 학습 지도서, 146-47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영웅적인 행위는 우리에게 이해력을 가져다 주는 평강을 보상으로 주시는(빌립보서 4:7 참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행하여 성령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마태복음 25:21)라고 속삭이는 음성을 듣는 행위일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훌륭한 자매님이 지난 8년 동안 겉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 있었었습니다. 약 6년 전에 그 자매와 남편에게 충실히 가정 복음 교사가

지명되었습니다. 그 남편이 가정 복음 교사에게 매주 일요일 아침에 신권회에 참석하는 동안 그 교사의 아내가 집에 와서 병약한 아내와 함께 있어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6년 동안 매주 일요일이 되면 그 가정 복음 교사는 아내를 데리고 이 집을 방문하여 남편이 모임에 참석하는 동안 병든 부인과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이 되면 가정 복음교사의 아내는 이 노부부를 위하여 자기가 직접 만든 파자나 그 외에 특별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이 차매는 병사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이 사랑이 많은 가정 복음 교사와 그의 아내에게 그들이 수년 동안 베푼 행위에 대하여 깊이 감사하고 사랑을 표시하려 하자 그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우리에게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자매님의 훌륭한 어머니를 방문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하지요? 이제 일요일 아침의 한 시간 반은 나에게 있어서 일주일 중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는 구세주의 지상 생활에서 마지막 순간에 있었던 일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를 염려하고 또 어머니의 복지를 염려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노부모를 공경하는 현실적인 아들딸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걱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약 2년 전에 신문의 상담 난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친애하는 애비 여사,

“나는 지금 비행기에 앉아서 당신의 기사에서 자기 아버지가 오면 사생활이 침해당한다고 생각해서 아버지가 잠시 자기 집에 들르는 것을 싫어한 아들에 관한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들이 자꾸 오라고 해서 2주 동안 네브라스카의 오마하에 있는 아들과 함께 지내려고 그곳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기사에 나의 시선이 끌린 것입니다. 나

도 처음에는 아들의 개인 활동에 방해가 될까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편지를 쓴 아들이 전에 부친과 함께 집에 사는 동안 자기 아버지의 사생활을 침범했던 것에 관하여 조금이라도 생각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읍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다른 활동을 하고 싶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들과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하여 단 1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단지 그런 시간을 더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섭섭할 따름입니다. 아이들과 집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너무나 짧게 느껴집니다.

“물론 당신은 이런 주제에 관하여 더 잘 쓴 편지를 수천 통이나 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편지는 부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단지……내 방식일 따름입니다.”

“친애하는 애비 여사, 우리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으며 이 미완성 편지가 그의 주머니에 들어 있었읍니다. 아내와 나는 부친을 둡시 그리워합니다. ‘아버지가 오시기를 진심으로 원한 아들’—서명, 윌리엄 슴지크,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애비계일 뱐 뷔런, 데얀트 뉴스, 1979년 12월 3일, 7페이지)

형제 차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생하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절대로 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스로 봉사할 기회를 찾기로 작정한 사람은 자신의 편익을 제쳐놓고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나는 구세주가 혈통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이웃의 필요에 대한 민감한 인식 태도를 개발하는 데 30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그의 사명을 완수할 준비를 갖추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앤마서 7장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게 됩니다.

“그가 세상에 나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온갖 시험을 당하시리니 그가 이렇게 하심은 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리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라.

“……육신을 입은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여 자비로 가득 차게 하시리니, 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내는 길을 아시려 합이었느니라.”(엘마서 7:11-12)

최근에 어떤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여 교회에서 가정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렸는데 대회가 끝나자 어떤 자매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 저는 남편을 여원 자매로서 오늘 감독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에 대하여 진실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문제가 많아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령 지도자들은 각자 자기 가족이 있고 그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의 문제가 더 많아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자매님을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훌륭한 가정 복음 교사가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자매는 “예, 가정 복음 교사가 있어서 대개 한 달에 한 번 정도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족과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매님을 방문하고 이해해주는 방문 교사가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예, 상호부조회에서 가끔 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내가 올바른 대답을 찾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 옆에서 우리 대회를 듣고 있던 어떤 훌륭한 자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어요. 저도 과부였어요. 바로 얼마 전에 재혼했지만 자매님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매님의 가정을 방문해도 될까요? 자매님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톰 둘리 박사는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

고 현재는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서 질 수 있는 사람들에 관하여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았습니다. 그것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앨버트 슈바이처 박사의 평소의 신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서운 고통의 혼적이 있는 사람들의 우정에 관한 개념이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육체적인 고통이 어떤 것인지 경험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전세계적으로 은밀한 유대 관계로 맺어져 있다. 그런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이제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질병에 관해서는 잊어도 좋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그는 이제 눈이 열리게 되었다. 이제 그는 고통과 싸우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아는 그 해방과 구원을 다른 사람들도 얻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이전에 병들었던 사람뿐만 아니고 고통을 겪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도 이런 우호 관계에 속하게 되는 것인 바 사실상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있겠는가?”(토머스 둘리, “전 세계적인 우호 관계”, 지혜의 말씀, 토머스 시즌즈 편, 시카고: 제이 비 퍼거슨, 1966년, 150페이지)

다시 셀던의 책을 인용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사도가 강조해야 할 것은 각 개인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없는 선물이란 헛된 것입니다.’ 각 개인의 직접적인 노력을 요구하지 않는 소위 기독교 정신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기독교 정신이 아닙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말자취를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바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라고 해서 그 길이 그리스도 당시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똑같은 길입니다.”(셀던, 그의 말자취를 따라, 239페이지)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나는 우리가 복지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내 영혼을 살펴보고, 내가 나의 이상인 구세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는 곤궁한 사람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방법에 좀더 유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 (벧후 1: 4)을 얻는 일에 다시 몸바쳐 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구세주의 특별한 영이 복지 사업에 함께 함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그는 이 사업을 사랑하시며 또한 이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물론경에서 성 약의 백성들에게 권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복음이요, 너희가 이를 알진대 교회에서 이를 행하며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너희 도 이를 따라 행하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면 복을 받아 마지막 날에 높이 들리우리니,

“내가 너희에게 줄 공의로운 심판으로 너희가 이 백성들을 심판하게 될 것을 기억하라. 이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와 같은 자라야 하느니라.”(니 삼 27: 21 ~ 22, 27)

우리가 그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와 같이 되기를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들

# 결혼 생활과 가정을 위한 안전한 장소



바바라 비 스미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결혼 생활과 가정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사랑하고, 일, 혼신, 봉사, 청지기 직분을 다하고 책임감과 자립 정신을 길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복지의 기본 원리, 즉 사랑, 혼신, 일, 봉사, 청지기 직분과 책임감 그리고 자립 등은 개개인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빌립보서 2:12 참조)데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적용될 때에는 결혼 생활과 가정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지 말씀드려 볼까요?

집언 31장의 말씀은 현숙한 여성의 훌륭한 장점을 열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더”(10절) 값집니다. 그리고 11절에는 결혼 생활에 대하여 주목할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즉,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이 구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명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로 남편은 그의 마음을 아내에게 맡기었고, 둘째, 아내는 그것을 안전히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는 가정을 이루기로 약속을 맺은 모든 남녀가 그들의 사랑을 위해 안전한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는 중요한 진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주는 사랑을 부드럽게 받아들여 줄 상대방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윌리엄 버틀러 에이즈(1865—1939 아일랜드의 시인, 극작가)의 다음과 같은 삶귀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그 남자는 온 마음의 소원을 그의 애인의 발 밑에 놓고 애원했습니다. ‘사뿐히 밟으옵소서. 그대는 내 모든 꿈을 밟을 것이오니.’ (“그는 성직을 원하다”, 옥스포드 인용 사전 3판, 뉴욕 : 옥스포드 대학 신문, 585페이지)

청교도 여류 시인인 엔 브래드스트리트(1612?—1672, 미국 여류 시인)의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라는 시에서도 그와 같은 신뢰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같이 되었다면,  
바로 우리들일 거예요.  
아내의 사랑을 받는 남편이 있다면,  
바로 당신일 거예요.  
(리차드 엘만, 미국 시에 관한 새 옥스포드 북, 6페이지)

복음 생활에서 신앙이 중요한 것과 똑같이 인간 관계에서는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는 그 위에 얼마든지 더 건설할 수 있는 기초요 출발점입니다. 신뢰가 있는 곳에 사랑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사랑에는 혼신이 필요합니다. 즉 두 사람의 생활을 성스러운 것에 혼신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깃드는 안전한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혼신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그의 마음을 아무 조건 없이, 즉 절반만이나 일부분이 아닌 온 마음을 주었다는 집언의 말씀에 주목해 봅시다.

혼신한다는 것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남녀가 성스러운 신전에서 결혼 성약을 맺을 때, 그들은 아브라罕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이 함께 하는 새롭고 영원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 단위는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모세서 1:39) 주님의 거룩한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여 “자신의 가정”을 갖기를 원하는 젊은 신부 후보는 훌륭한 결혼 생활에는 애타심, 즉 “자기의 유익을 구치”(고전 13:5) 않는 사람이 필요함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중심으로 하여 장래의 계획을 세우는 남편은 자신이 해의 왕국의 가정에서 지게 되는 책임을 잘 알 수 없게 됩니다.

사랑과 혼신에 기초를 둔 결혼 생활의 유익에 관해 잠시 살펴봅시다.

1.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방으로 하여 금 가능한 한 많은 발전을 하도록 도와 줍니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 비 헤이트 장로가 그의 아내로 하여금 스페인어 강좌를 받게 하려고 자신이 저녁 식사 준비를 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들었는데 이 얼마나 고무적인 이야기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잠재력을 완성으로 또 재능을 간증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을 키워 나갈 때 쌍방이 발전하게 됩니다. 강한 유대로 맺어진 결혼 생활은 쌍방이 그들의 영원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똑같이 발휘하게 되어야 합니다. 아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적절히 사용하려 할 때 남편은 뒤에서 밀어 주어야 합니다. 아내는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남편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2. 사랑과 혼신으로 이루어진 안정된 결혼 생활에서는 서로 자유로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려는 남녀간에는 작건 크건 해결하고 조정해야 할 많은 상이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결혼 생활이 안정되면 상이점이 반드시 불화를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이점은 만족스런 해결책이 나설 때까지 격의없이 숙고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결혼 성약이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영원한 가족 단위를 전설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약속에 비추어

숙고되어야 합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고 있는 동안에는 결혼 생활은 아무런 손상을 받지 않으며 다만 결정 과정에 상당한 토의를 요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어느 여인은 여동생 집을 방문하는 중에, 이러한 토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의견 차이가 친절하고 솔직한 의견의 교환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 집에서는 출직한 토론을 할 수 없었으며, 조그만 문제에 의해서도 결혼 생활이 위협을 받게 된다고 후에 털어 놓았습니다.

어떤 결혼 관계는 거의 우호 협정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부가 약속과 신뢰, 혼신과 사랑의 초석을 놓으려면, 개인 의견이 존중되고, 사랑이 짹트고, 견해 차이를 포용하고 통합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공평히 대해 주면 편애가 없으므로, 시기심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물론 경을 읽어 보면 백성들이 참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는 위에 말씀드린 바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니파이사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또한 저들은 저들의 온갖 소유를 공유하였던지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구별이 없이……모두 하늘의(사랑의) 은사를 받았으며”(니사 2, 3절)

4. 끝으로, 사랑과 혼신은 행복의 기초가 됩니다. 이 역시 니파이사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의 마음에 깃들어……불화가 일지 아니하였고,

“시기나 분쟁이나 폭동……을 범치 아니하였으며……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없었으니”(니사 15-16절)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혼신으로 안정된 가정은 일과 봉사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

십시오. 일하는 사람이 존경받을 때 가정은 일에 의해서 강화됩니다.

여성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하여 자신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힘들어 봉사해 준 상대방이 감사함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이 명랑한 분위기 조성에 습관화되어, 필요한 관리를 하지 않거나 혹은 가정을 순조롭게 운영해 나가는 데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기술면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가정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질서를 유지하는 데 미흡한 어머니들에 대해서도 감사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 그 어머니가 하는 일을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라는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평가함으로써 다른 식구들이 도와야 할 바를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한 일을 분담한다든가 혹은 집안 일을 쉽게 하기 위하여 생활 습관을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질서있는 가정에는 행복이 깃듭니다. 그 질서를 유지하는 근본 책임이 어머니에게 있다 하더라도, 가족이 모두 질서를 유지하는 데 관심은 가져야 합니다. 어머니가 밖에서 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모든 가사에 대한 가족의 협동은 극히 중요하게 됩니다.

때로는 남편 혹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가족이 존중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은 밖에 나가 가족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을 가족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가정의 밤을 활용하여 가장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가족에게 상세히 이야기하는 기회를 마련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가장의 일에 대하여 가족들이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노고를 더욱 명백히 이해하게 됩니다. 가장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의 일에 대하여 가족들이 긍지를 느끼는 것은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어린 자녀도 그들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를 말음으로써 일하는 것을 존중하게 됩니다. 가정은 어린이들이 일하는 방법을 배우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실수를 한다 해도 심각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 교정될 수 있고 또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부터 일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의 가치를 배운 어린이는 행복한 어린이입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장래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알 수 없지만, 부모는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의 지도하에 공구와 장비에 관한 책임, 지시에 따라 하기, 주의를 기울이되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기, 그리고 과제를 성공적으로 끝낼 때까지 노력해 보는 것 등을 함께 생활해 가며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대개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일을 즐겁게 자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할 때 봉사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봉사 정신은 가정에서 익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사 정신이 있는 가정에 축복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어느 가족이 있습니다. 내 친구는 이웃에게서 친절한 봉사를 받아 왔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 친구는 그녀의 이웃이 부드려우면서도 능숙한 태도로 병자를 돌보고 수줍어하는 사람을 후대해 주며, 낙담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강의에 참석하고 있었을 때 가까이에 앉았던 여자가 아픈 얘기를 안고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내 친구는 혹시 도울 일이 있을까 하고 따라 나갔는데 이미 그곳에는 다른 여인이 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없이 도와 주는 태도는 익숙하고 민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웃 여자 생각이 난 내 친구는 결국 물어 보았고 그들이 자매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자매는 가정에서 봉사의 의미를 배웠던 것입니다.

니다. 봉사는 비이기적인 것이므로 가정에 서는 영성을 키우고 사랑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책임감은 일하는 데 필요한 조건입니다. 책임은 가정의 일에 체계를 세우며, 결혼 생활에 질서를 잡아 줍니다. 책임을 정하고 사후에 보고하도록 계획함으로써 가정 불화를 막고 또한 인간적 수양을 쌓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책임이 학습 경험이 되게 하려면,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죄선을 다해 노력한 것에 대해 인정받지 못할 때에는 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드리는 아침 저녁의 기도는 보고 드리는 것과 같이 됩니다. 가정의 밤 시간에 계획되고 성취한 일에 관해 토의함으로써 가족에게 소속감과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교회에서, 세상의 일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는 말은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복지의 기본 원리는 우리를 강화시키고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이러한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가정은 요새화되어, 즉 사회의 범죄로부터 보호받게 되고 폭풍우가 칠 때 안식처가 됩니다. 가정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됨으로써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생겨도 정신적 산출로써는 여전히 가족 단위로서 하나일 뿐입니다. 부모는 안전한 피난처를 마련하게 되며, 자녀는 그들의 사랑의 유대에 의해 강화됩니다.

가족 단위는 친족을 포함한 대가족의 일부분을 이루며, 교회의 모든 회원들과 함께 활동에 참여하지만, 영원한 의미의 가족 단위는 완전해야 하며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깊은 의미에서는 가족은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할 때는 주님의

영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이 난관에 부딪쳐 일시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때라도 그들은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의 자원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주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미치므로 그 가정은 여전히 강하고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에 완전히 따르는 생활로 각 사람과 각 가정이 주님의 힘에 의해서 더욱 더하여지고(아브라함서 3:26 참조), 역경과 시대적 변천에 따르는 고난에 강하게 맞설 수 있게 될 때 자립이 가능해집니다.

한 집안의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대학에서 학장직을 역임한 어느 형제가 신전장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 다시 선교부장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부장의 직을 마칠 때 쯤 그는 뇌일혈로 쓰러져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불평을 하고, 자기 연민과 거부감에 젖기에 앞서, 이제까지 늘 그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어 온 복음의 능력에 의지하는 새로운 경험을 시도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그의 아내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준비해 온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시기가 우리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부상조는 일시적이지만 복지는 영원합니다. 현세의 생명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원리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사랑, 일, 혼신, 봉사, 청지기 직분이나 책임, 그리고 자립 등 복지의 기본 원리를 우리의 마음속과 신천 그리고 가정 등의 신성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정을 강화하는 데 우리가 완전히 적용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기도합니다. 아멘. \*

## 봉사의 기쁨을 발견함



조안 랜들

“가족 봉사 계획은 반드시 거창하거나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희 부부가 오늘 여러분께 복지의 원리가 봉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미친 영향을 말씀드릴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집 아이들은 즐거운 성탄절과 관련된 모든 것, 츄리나 음식과 선물 등을 다른 가족에게 넘겨 준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고 꽤 놀랍게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전날 이른 아침 그들의 이웃집에 불이 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집 자녀들은 이웃집 친구들의 상황을 전해듣고는 가족 회의를 열어 한 사람도 예외없이 그 이웃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데 동의했습니다.

곧 그들은 선물 상자에 붙어 있는 이름표를 바꾸어 달고 크리스마스 정찬을 위해 준비한 모든 식품을 상자에 넣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츄리까지도 옮기기로 했습니다. 준비한 모든 것을 비밀리에 이웃집에 옮긴 후 집에 돌아온 그들은 조금 흥분했지만 사랑을 느꼈습니다. (예온알 하트손,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 이야기, 41페이지 참조)

우리 자녀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가족이 모든 것을 이웃에 주기가



친선인 제임스 챈피의 아내 앤 아프리아 찰로타 뮤어 아프리아 자매(중)와 함께 대회 방문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어렵지 않았을까요?” “이웃 가정이 모든 것을 그냥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그후 얼마 안되어 우리 자신이 도움을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 살게 된 지 한 달밖에 안되었을 때, 나는 여덟 번째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 두 달 가량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자녀들도 집 안 일 돋는 것이 버릇이 되어 규칙적으로 집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각자가 더 많은 일을 떠맡았는데도 불구하고 곧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도움을 받는 것에 관하여 수년간 가르쳤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를 돋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우리를 돋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곧 그들의 친지함에 대해서 가슴 벅찬 감사를 느꼈습니다.

은퇴한 부부가 아침에 와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 놀았습니다. 와드 갑독님은 성찬 모임을 배려하여 우리 집까지 성찬을 배달해 주었습니다. 내가 어른들과 대화하기를 즐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 몇몇 자매들은 바쁜 중에도 나의 집에 정기적으로 들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부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여 우리 집으로 가져 와서 같이 저녁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와이셔츠들이 없어졌는가 하면 깨끗이 다림질까지 되어 다시 나타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나를 부르세요”라는 글귀가 새로운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제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적잖 찾아와서 “부엌을 치워 드릴까요? 혹은 진공 소제기를 주시겠어요?”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도와 줄 생각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도와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

었습니다.

강하게 마음을 스치는 생각이 또 있었습니다. 도움이 주어질 때에는 어느 때고 그들의 가정에서도 그와 똑같은 일을 가족을 위해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데 식구가 많은 어느 가족이 집에서 만든 아이스크림 한 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사랑스런 자매는 우리 딸의 8학년 수료식에 입을 드레스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다정한 친구는 매주 집에서 새로 만든 빵을 한 아름씩 가지고 와서, 우리 가족이 상점에서 산 빵이 아니라 집에서 만든 빵을 먹어 왔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친할머니와 의할머니가 우리집에 오셔서 2주 동안 집안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당시의 내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친절한 선물을 주는 것을 잊지 않아야겠다.” 봉사하는 것이 생활 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자녀들의 질문에 참된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회생이 따르는 것이니까요. “받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과 우리가 도와 주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웃 과부의 집에 페인트칠을 해야 한다는가, 이웃에 새로 이사온 사람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 훌륭한 일을 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다호주에 살 때, 누구나 좋아하던 와드의 개척자였던 “조 아저씨”를 위하여 여러 가지 조그만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간 후에도 때때로 그의 생각이 나서 “조 아저씨”를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그에게 편지라도 띄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계속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결국 그에게 몇 자 적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조 아저씨”가 운명하셨다는 연락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가 첫 번째 지시를 무시했기 때문에 봉사 할 기회를 잃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기념품 중에 전에 다니던 와드의 어떤 자매가 보낸 감사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이 자매의 집에 지붕을 고치는 것을 돋기 위해 이른 아침에 떠나면서 세 살과 다섯 살 된 두 아들을 데리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 자매가 나와서 보고 우리의 어린 두 아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은 곤궁한 사람을 돋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러한 열의는 곧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법입니다. 우리 딸이 집에 돌아와 지난한 이웃집 문에 음식을 갖다 놓을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말했을 때 온 가족이 즉시 동조했습니다.

가족 봉사 계획은 반드시 거창하거나 독창적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가족이 복지 농장의 일에 참여하는 것도 오락을 위한 소풍 못지 않게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봉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어린이를 정기적으로 초등협회에 데려다 주는 일. 우리가 이 일을 해본 결과 꼬마 친구는 곧 매주일 우리가 정말로 그를 데리려 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무 상호부조회 회장, 바버라 스미스 자매

2. 초등협회, 학교, 가정 복음 교사에게 짧은 감사의 편지를 쓰는 일. 그들은 관심을 가져 주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놀랄 것입니다.

3. 와드 합창단에 열심히 참석하는 일. 저희자는 감사할 것이고 여러분은 음악을 통해 봉사하는 것입니다.

4. 원예 작물을 나누는 일.

5. 늘 혼자 지내는 사람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는 일.

6. 남모르게 봉사하는 일. 좋은 음식을 함께 만들어 이웃의 협판에 놓은 다음 초인종을 누르고 사라지는 일은 매우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7. 딸에게 이웃의 부부가 신전에 참석할 동안 그집 아기를 돌보도록 격려해 주는 일.

8. 이웃간의 우정 증진을 위해 있는 음식으로 간단히 이웃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일. 비회원은 이런 봉사를 통해서 감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9. 사전에 계획하는 일. 장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미리 은행 구좌를 열어 놓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10. 복음을 생활화하는 훌륭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

상호부조회에는 오래 전부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한 어린이가 밖에서 놀다 집에 들어와 보니, 어머니가 과자를 만들어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누구에게 주실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이 사소한 일에서도 우리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는 늘 남에게 봉사하는 가정에서 자랐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손을 내밀어 봉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강한 간증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봉사를 통해 강화됨



### 나일 랜들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를 통해 복음 원리를 실천하게 되면, 곧 위대한 결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꼭** 5년 전 지난 달에 우리 집에서는 당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경험했는데, 그 일로 우리 식구들이 변화되었답니다. 양녀를 집에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날을 환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달리 양부모될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 그 아이는 바로 다음날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원은 했지만, 우리 부부는 우리가 한 약속에 대해서 갖가지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을 잘못했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당시 우리의 자녀들만으로도 우리는 힘겹게 느끼고 있던 터였습니다. 우리에겐 다섯 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어질러 놓기만 하지 책임지고 정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이도 아닌 다른 아이가 또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앉아 준비를 했습니다. 자녀들은 그들 나름대로 짧은 시간내에 언니를 맞을 준비를 다했습니다.

진이 도착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보다 더 불안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17세로 고등 학교 2학년 학생

이었읍니다. 우리의 큰 아이가 아직 9세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배워야 할 것이 있음을 알았읍니다. 그것은 당시의 모든 상황하에서 우리가 내린 단 하나의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곧 우리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목욕에 관한 문제였읍니다. 그녀가 온지 며칠 안되어 우리는 대책을 장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읍니다. 결국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내가 양녀에게 이야기 하였읍니다. 이야기가 특별히 잘 되었음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다음날부터 우리는 석 달 동안 더운 물을 사용하지 않았읍니다.

이제 우리는 진과 함께 지낸 몇 달간의 짧은 기간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음을 알게 되었읍니다.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아내와 나는 처음에 양녀를 우리 자신의 자녀와 똑같이 생각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했읍니다. 처음의 며칠 동안은 정말로 힘이 들었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이 되었읍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라도 거의 즉시로 친자식처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읍니다.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일생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도 역시 그 교훈을 배웠으며 이에 대해 우리는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진에게서 배운 두번째 교훈은 분명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은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읍니다. 그녀는 일하기를 좋아했고 늘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곤 했읍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른 아이들의 일도 도왔읍니다. 그녀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고자 했던 많은 원칙을 익히도록 도왔읍니다. 당시 우리가 자녀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한 것은 자녀들이 맡겨진 일을 완전히 처리하도록 가르치는 일이었읍니다.

아이들은 최소한 해야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은 다른 방법으로 가르쳤습니다. 대개의 자녀들처럼 우리 자녀들도 부모인 우리의 말을 잘 안들으려 하면서도 그녀의 말은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진은 손으로 접시 닦기를 좋아 했습니다. 그녀는 접시닦는 기계를 사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딸 아이 하나는 손으로 접시 닦기를 좋아한답니다.

진이 우리에게 세번째로 도움이 된 것은 자녀들과 의사 소통하는 방법을 알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보다 큰 아이로서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데 우리와 거의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읍니다. 목표는 바로 이해하는 것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사이에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긍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여 보였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였을 때도 말이 끝나기만 하면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을 우리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상적인 과정에서 우리는 그들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고,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들이 저절로 이해하게 되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자녀들보다 이웃집 자녀들에게 더 잘 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커다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 기회가 우리가 가족으로서 갖는 최초의 선교 경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진을 우리의 “스폰지”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함께 모여 앉아 식사를 해야 하는지, 기도할 때는 왜 무릎을 꿇어야 하는지, 왜 일요일마다 교회에 가야 하는지, 왜 끼니마다 다른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했습니다. 복음 생활에 관해서 그녀

는 특별한 친밀감을 느꼈고 눈에 뜨이는 것마다 모두 알고자 했습니다.

진과 함께 캠핑을 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차를 세우자 진은 곧 뛰어내려 주변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모두 청소하고 쓰레기와 출입들을 한 곳에 깨끗이 쌓아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다가와 무릎꿇고 앉아 몇 분 동안 청결의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캠핑 혹은 야외에서 생활하게 될 때 청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조금만 노력하면 기분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 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놀라울지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뉴멕시코의 모래밭이 아니라 콜로라도의 록키 산맥 속에 있음을 감사드렸습니다. 나는 항상 그녀가 얼마나 발전하여 단단한 기반을 닦았을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3주 전에 진이 그녀의 두 아이를 데리고 우리 집에 와 며칠간 머물렀습니다. 그때 그녀는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조용히 물었습니다.

대회 방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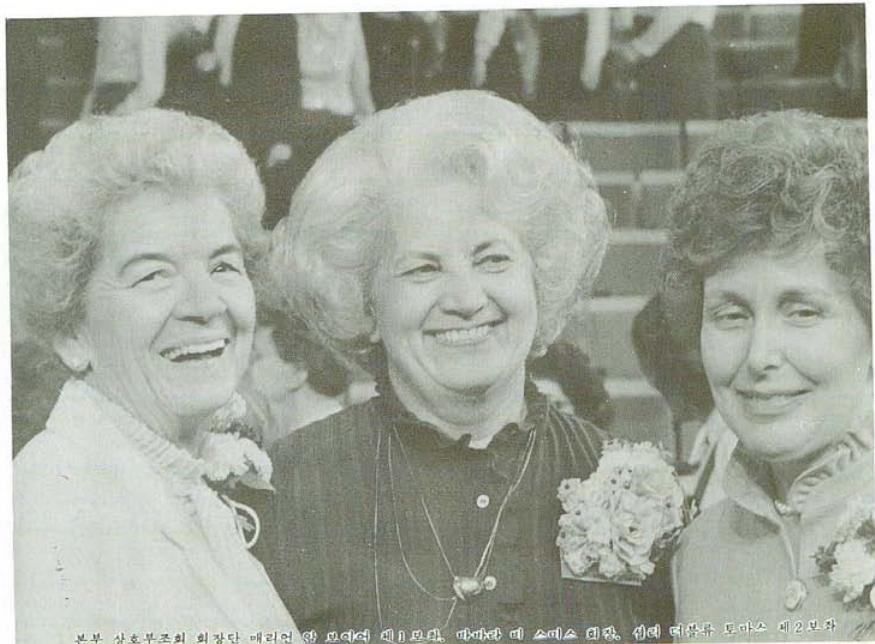
여러분에게는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를  
겁고 항상 재미있기만 했던 것처럼 들릴 것  
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것만은 아니었읍  
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회생해야 합  
니다. 봉사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은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봉사는  
사람을 변화시켜 아주 중요한 일에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진에게 한없이 감사하고 있읍니다.  
그녀를 우리의 장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또 그녀가 우리 가정에  
기쁨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봉사의 기회를 만들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  
로서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고 그 원리를 우  
리 가정에 적용하여 완전하게 되려고 노  
력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것  
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가 너무 적다는 느낌

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를 통해 복음 원리를 실천하게 되면 곧  
위대한 결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가르치려고 노력해 왔던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함께 다른 사람을 위해 봉  
사하는 중에 우리가 얻는 것이 너무도 많  
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도와 주면서 우리는 우리 혼자의 힘으  
로는 받을 수 없었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가정이나 개인이 봉사를 통해  
강화될 때 축복을 받고 시온의 백성으로 준  
비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며, 교회  
에는 주님의 완전한 복음 계획이 있으며, 복  
지 원리는 복음을 실천하는 것임을 알고 있  
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  
렸습니다. 아멘. \*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멤버인 앤 모리언 데 1부회장, 바비라 데 스미스 회장, 그리고 토마스 제 2부회장

# 품위있게 받아들이도록 지혜롭게 줍시다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최근에 브리검 영 대학에서 후원한 교육 주간의 분과 모임에서 혼명한 교사이며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라이젤 맥브라이드 자매가 화면에 큰 사진을 영사했습니다. 그 필름은 헝클어진 머리에 팔짱을 끼고 깊은 생각에 잠긴 눈이 맑은 소년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막에는 이렇게 써어 있었습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용한 것은 만드시지 않기 때문이다.” 한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용한 것은 만드시지 않기 때문이다.”

문장을 좀 가다듬으면, 그 글귀는 충분히 복지 사업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존심과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진실로 효과적인 사업이 되려면 복지 사업은 개개인의 전인적인 향상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 개인의 자아상은 자기 자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과의 상호 관계에서 얻어진 것이며,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닙니다. 평범한 한 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누군가가 도와 주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것이 누구이든 즉 어머니든, 초등협회 교사이든 혹은 이웃이나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함께 노래를, B-76)와 같은 노래까지도 그 어린 소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용지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도서 4장 9절부터 10절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훌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에게 서로의 상호 향상을 위하여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실로 복지 사업 원리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금년의 모범 교사로 뽑힌 사람에 관하여 최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았다. 그 대신에 학생들이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지도했다. 그는 학생이 어리석다고 느끼지 않도록 한다. 그는 자신감을 주고 격려해 주되, 강요하지는 않는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훌륭한 교회 프로그램은 같은 방법으로 능력과 자금 자족과 개인적인 자부심을 가르치고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개인의 가치에 대한 긍지를 심어 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복지 사업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봉사하고 배울 기회를 줍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않을 것, 그리고 환경에 굽복하지 않는 것 등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포기할 때에만 복지 사업 활동이나 가정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내심과 오래 참음과 참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중에 가장 잘 가르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주일학교 공파가 끝나자 한 교사가 나에게 와서 어떤 특별한 어린이와 악수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이 소년에게 손을 내밀어 인사하면서 이 어린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의미있는 일은 교사의 책을 교실로 운반해 주는 일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해심 많은 교사는 그 소년에게 어떤 일을 시켰을까요? 책을 나르게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지도하는 사람들의 능력에 알맞은 수준에서 자립하도록 가르치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1850-1894, 스코틀랜드 작가)은 이런 말로 이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본래의 우리 자신이 되고 능력껏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인생의 단 한 가지 목표이다.”(버진 에번즈, 인용 사전, 뉴욕, 크라운 출판사, 393페이지)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한복음 20: 21) 우리는 누구나 특별한 인생의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특별한 활동 무대를 찾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있어서 서로 돋는 가운데 모두 이 영감받은 복지 활동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고 낙심하게 하여 우리의 발전을 저지하고자 총력을 기울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영국의 용감한 사자, 윈스턴 처칠경이 조국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한 유명한 말을 잘 기억하고 되풀이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는 그 특유의 성품으로 힘주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오.”(로버트 롯즈 제임스 편저, 윈스턴 에스 처칠: 완벽한 응변,

1897-1963, 8권, 뉴욕: 웰시 하우스 출판

사, 1974, 6 : 6, 499) 이 강인한 정치가는 위대한 지도자인 예수님이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적용하여 말했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 31-32)

뉴스 해설사이며 작가인 폴 하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성공한 비결은 무엇입니까?’라고 묻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넘어질 때마다 일어났습니다.’”

현재의 복지 사업 원리는 시대에 뛰진 것으로, 현세계의 상태하에서는 실천이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회의론자들은 배우기보다 쉽게 포기한다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종이 되기보다는 비판자가 되기가 더 쉽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한 시기에 있어서 복지 사업은 온 세상을 비출 햇불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복지 사업의 기초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돋도록 도와 주는 반식 위에 계속해서 굳건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실시하기만 하면 이 중요한 교회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복지 사업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합당하게 참여하려면 이 믿음을 갖고 신뢰해야 합니다. 물질과 물자와 돈과 보급품과 일과 기술 이외에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돋고 인도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인도되고 강화되기 위하여 교리와 성약 104편 14절과 16절에 있는 훌륭하고 자주 인용되는 성구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나 주는 하늘을 펼치고 땅 곧 나의 손의 창조물을 만들었으니, 그 안에 있는 만물은 나의 것이니라.

“그러나 이는 내가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

져야만 하나니, 보라, 가난한 자는 높아지고 부한 자는 낮아지게 하는 것 이것이 곧 나 주가 나의 성도를 부양하기로 선포한 방법이니라.”

자립은 자유 의지와 책임감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전천합니다. 우리는 생활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중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자립을 육성시켜 나갑니다.

복지 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성공하려면 모든 교회 회원이 적절하게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은 개인, 가족, 그리고 교회가 항상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복지 사업과 가정이 밀접한 유대를 맺어야 함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한 인간적인 이해와 현명한 준비와 인도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질서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활동은 합당한 계통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획을 다듬고 프로그램을 만들며 세심한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누구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은 우리가 믿는 원리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큰 힘이 되는 도움의 손길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손, 즉 우리 자신의 손일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길 때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자신의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손을 휘저으면서 “아, 안돼!” 또는 “왜 하필이면 내가 하지?”하고 말하지나 않습니까? 여러분은 조용히 앉아서 사실을 검토하고 조치할 가능한 모든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원인을 알아내고 해결책을 정할 수 있습니까? 광적인 힘보다는 조용한 사색이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매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신을 존경하는 교회 회원으로서 자기 자신을 부양하는 책임을 스스로 타인에게 전가시킬 사람은 없을 것

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볼 책임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가족을 돌볼 책임도 갖고 있음을니다.”(성도의 벗, 1981년 10월호, 135페이지) 바울은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디모데전서 5:8)

복지 사업의 중심이 되는 가정과 가족 구성원은 항상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참여함으로써 긍지를 가질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복지가 실현되려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 구성원은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팀을 이루어 일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각기 다른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논쟁을 하지 않고 가족 평의회를 열 수 있다면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새롭고 좀더 나은 해결책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원과 노력을 합하면 가족이 서로 도와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하고 책임감을 갖게 되어 모든 가족이 자신감과 안정을 보상으로 거두는 기회를 갖게 합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서는 교회 자원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도 훌륭하게 규정되어 있는 합당한 계통을 통하여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감정에 치우치거나 절망한다고 해서 우리의 나갈 길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현대의 예언자들에 의해 구체화된 주님 자신의 방법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개인이나 가족에게 가장 크게 보상이 되는 것은 가능한 한 언제나 빚을 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채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좋게도 되고, 나쁘게

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안고 있는 재정 수단입니다. 사업상의 부채는 생산성을 높리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빚을 지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으로서 일시적으로 재정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금전에 관한 나쁜 습관을 갖고 있으며, 합당한 돈 관리의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들은 신용 구매, 특히 크레디트 카드를 잘못 사용하여 예산의 범위나 협명한 행동 지침을 세워 생활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신용 구매는 마술의 비행 담요와 같은 것이어서 그것만 타면 본래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곳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돈없이 타지만 조금 있으면 그 비행 담요에 대한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원금에 추가되어 붙는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될 것입니다.

부채는 심각한 가정 불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번 돈으로 모든 청구서 금액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부는 결혼 생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오늘날 시장에 가면—바로 여러분의 이웃이나 마을이나 도시에서—치밀한 전략으로 훈련된 기만적인 판매원들이 속기 쉬운 구매자들에게 온갖 종류의 유혹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은근히 상품을 편유하는 사람들의 감언 이설에 속고 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평생에 단 한 번의 기회” “바로 당신을 위해서”라는 방식은 이제 조금도 특별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런 제안과 거래는 전염병을 피하듯이 피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가 악하고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악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경각심을 갖고 관심을 갖기 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말일 성도는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상황을 이용하거나 놓간을 부리거나 거짓말하거나 훔치거나 속이거나 사기 행위를 하면 안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복지를 해치는 일에 관여하지 않도록 서로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겸약한 생활을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있는 것만으로 지내거나 혹은 없이 견디는 한이 있더라도 수입의 한도내에서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혼명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결코 치명적인 것이 되는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부채는 재정적인 속박, 파산과 자존심의 상실을 초래하는 파괴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십일조와 금식 현금을 포함하여 금전을 협명하게 관리하고 예산을 잘 세우는 사람은 자기 가족과 다른 사람을 주님의 방법으로 돋고 있는 것입니다. 부채는 청산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가 자신의 명예로운 직업에서 성공하고 개인, 가족, 교회, 그리고 지역 사회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의 재산을 협명하게 사용하기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요한복음 21: 16)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을 모르면 그들을 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배척하게 해서는 그들을 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양식이 없어도 그들을 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들을 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기꺼이 일하고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 없으면 그들을 기를 수 없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들이 어디에 있든지 도움에 필요한 한 가지 요소는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감정을 나누는 것은 다른 사람의 느낌을 이해하고 그들이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지 못한다면, 절대로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뢰를 얻고, 눈과 귀와 마음으로 들으며,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 노력하며,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그 사람에게 알리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감정을 함께 나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거나 논쟁하거나, 그 사람의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비난하거나, 자유의지를 박탈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다른 사람이 자립심을 길러 자기 스스로 해결책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게 도와 줄 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연령 계층에든지 다 있습니다. 주님의 양 가운데는 어리고 의롭고 절잃은 양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치고 고난받고 나이들어 쇠약해져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은 우리 가족 안에 또는 우리 이웃에도 있으며 또 금식 현금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먼 나라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과 관심에 굶주리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양들이 우리를 거부하게 만든다면 그들을 돌보기가 설령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렵게 됩니다. 비웃음이나 조롱으로는 아무도 가르치거나 도울 수 없습니다. 독재나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독선적인 태도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방황하는 양들을 먹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항의 벽이 세워지면, 아무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든 자존심을 잊게 하는 일을 하게 하면 절대 안됩니다. 혹시라도 그러한 경우에는 그는 여러분에게서 돌아서고 여러분은 도울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한 자녀에게 무상으로 베풀어 준다는 것은 진실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또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일을 하고 받는다는 독립적인 자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최선의 양식은 품위 회복과 사랑입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랑의 표현은 공허한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양들은 관심있는 목자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높은 길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생활의 귀중함과 높은 목표에 도달하는 긍지를 느끼고 알 수 있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가족의 태두리 안에서 절실히 사랑이 필요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음과 같은 옛 세르비아의 속담이 있습니다. “친절은 권력으로 명할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봉사 행위이다.” 우리가 돌봐 주고 사랑을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시간을 내서 친절로 그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인생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영원한 것입니다.

나는 킴볼 대관장님이 최근에 수출받고 회복하는 지난 여칠 동안에 수많은 분들이 그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봉사와 비이기적인 사랑에 대하여 진실한 감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나는 킴볼 대관장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일해 온 값진 경험에 비추어 몇 가지 조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족이나 신조나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무조건 사랑하기를 배우고 그가 봉사하신 것처럼 봉사하십시오. 이 원리가 복지 사업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교리와 성약 50편 26절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임되어 파송되는 자는 그가 가장 작은 자요, 모든 자의 종이라 할지라도 임명되어 가장 큰 자가 되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매우 사랑하시므로 봉사하도록 지시하시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원리는 시종 일관하며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행하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주님의 원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복지 사업의 성공은 이 사업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복음 율법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테두리내에서 혁명한 봉사방법을 찾을 때에는 항상 개선할 여지가 있고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지 사업에 참여할 때 명심해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목표를 제언하고 싶습니다.

1. 자립함으로써 자존심을 키우십시오.
2. 주님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봉사하십시오. 이것은 자유의지와 책임감이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3. 합당한 도움을 줄 대상의 순서는 (1) 개인 (2) 가족 (3) 교회인 것을 인식하십시오.
4. 주님의 양을 치기 위하여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5. 합당하게 돋는 일에는 사랑과 감정을

나누며 존엄성을 갖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6. 끝으로, 복지 사업에는 계획과 기본적인 복음 원리에 대한 순종과 무엇보다도 우리 예언자가 봉사한 것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갖고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품위있게 받아들이게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의 것을 내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는 무용지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자신과 가족과 이웃을 뜻있는 방법으로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나는 교회의 이 위대한 프로그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영감받은 생활 방식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류의 복지와 유익을 위해 영원한 원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지 사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에 대한 나의 증거와 간증과 사랑을 전합니다. 아멘. \*



친선의 대사인 청와대의 리처드 제 스코트 장로 우가 대회 맹문자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복지 원리의 생활화



매리온 지 룬니 부대관장  
대관장의 제 2 보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복음에 따르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 제 나는 복지 원리의 생활화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40년 이상이나 교회 복지 프로그램의 원리를 연구하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이 원리를 사랑하며 이 원리는 기독교인의 생활에 있어서 정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까지 말씀해 주신 분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복지 원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개인적 또한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1936년에 제이 르우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지 사업의 진정한 장기 목표는 주는 자나 받는 자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 회원의 훌륭한 성품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내부 깊숙이 숨어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살려 내어 꽂아 피게 하며, 숨겨진 풍성한 영을 수확하기 위한 것이며, 결국은 이것이 이 교회의 사명이며 목적이 되고 존재 이유가 됩니다.”(1936년 10월 2일, 스테이크부장단 특별 모임)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고 그 결과 자립하게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한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의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때 그들의 생활이 풍족해질 향상될 수 있다는 진리에 대한 증인이 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는 복지 원리의 생활화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36년에 클라크 부대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복지 사업의 진정한 장기 목표는 주는 자나 받는 자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 회원의 훌륭한 성품을 키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 위하여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목적하신다면 우리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그들을 보살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주는 하늘을 펼치고 땅 곳 나의 손의 창조물을 만들었으니, 그 안에 있는 만물은 나의 것이니라.

“나의 성도를 부양함이 나의 목적이나 만물이 나의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04: 14—15)

주님이 킵볼 대관장님에게 석유와 값진 광물이 있는 곳을 계시해 주시는 것은 간단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파낼 사람을 고용하여 산더미 같은 재물을 파묻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물 속에 파묻혀 지옥에까지 가기도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기 위하여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 그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살피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만이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 같은 사랑과 그의 면전에 돌아갈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성품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귀중한 것을 주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침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1831년 6월 7일에 커틀랜드에서 받은 계시에서 극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계시에서 주님은 28명의 장로에게 두 명씩 짹지어서 커틀랜드로부터 미주우리의 잭슨군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들은 각자 다른 길로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당시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사람의 발걸이 땅아 본 일이 없는 지방을 통과하여 여행해야 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 스미스와 그의 동반자는 “마차나 역마차로 여행했으며, 때로는 화물선을 타고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로 갔으며” 그 다음에는 켄터키주의 루이스빌로 갔으며, 다시 기차를 타고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로 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자는 미시시피의 이도시로부터 잭슨군의 인더펜던스까지 미주리주 전체를 횡단하여 거의 480킬로미터를 걸어갔습니다.”(조지 류 캐넌,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생애, 솔트레이크크리스티 : 데저렛 출판사, 1958년, 117페이지) 나는 그들이 출발할 때 주님이 경고하고 말씀하신 배경을 여러분이 명심하시도록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를 기억하라.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닌 연고なり.”(교리와 성약 52:40)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로들은 거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도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라는 계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지시라는 사실은 베냐민 왕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다음과 같은 말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너희, 넉넉치는 않으나 하루하루를 그대로 살아가는 가난한 자에게 이르노니, 가진 것이 없다 하여 구걸하는 자를 거절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가 저들에게 내가 가진 것이 없어 주지 못하나, 내가 지닌 것이 있으면 주리로다. 이렇게 말하기를 바라노니,

“너희가 마음으로 이렇게 말할진대 죄가 없으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정죄받으리니, 너희가 갖지 못한 것을 탐하였으매 정죄받음이 마땅하도다.”(모사이야서 4:24—25)

일단 우리가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으면, 울바른 정신으로 봉사하기를 배우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은 그릇된 의도에서 베풀어 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간악한 자가 하나님께 현물을 바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를 참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되지 못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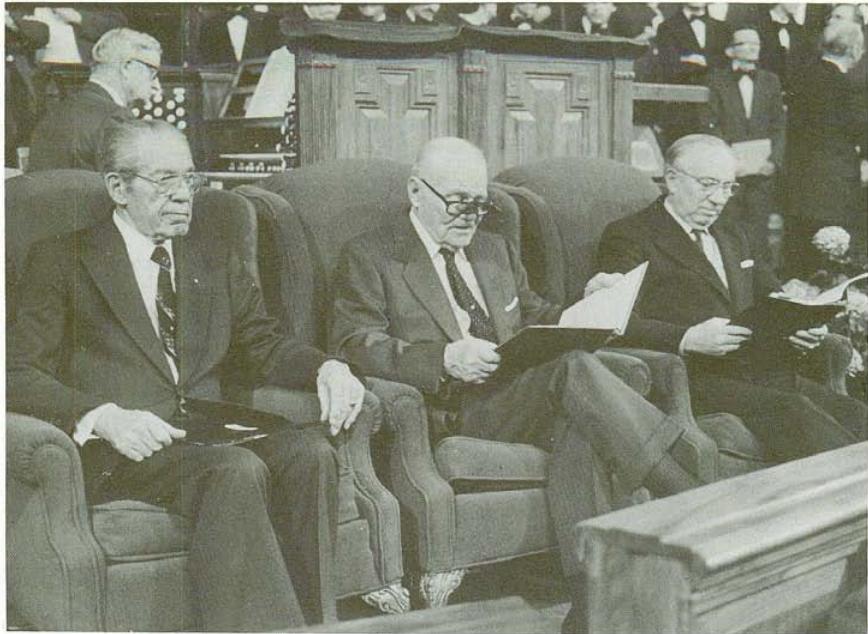
“보라 이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 의로운 것으로 용납되지 아니함이요,

“보라 간악한 자는 현물을 바칠 때 애석한 마음으로 행함이라. 그리하여 결국은 현물을 바치지 아니한 것으로 혜아려져 하나님 앞에 간악한 자로 인정을 받을 것이요,”(모로나이서 7:6—8)

사람은 이웃에 대한 넘치는 사랑에서 자발적으로 줌으로써 만이 물론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모로 7:47)이라고 정의 내린 사랑을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사이야서에서 이런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엘마는 교회의 백성들에게 명하여 저들의 소유를 각자 가진 대로 넉넉한 자는 넉넉한 대로 적게 가진 자는 능력이 닿는 대로 갖지 못한 자들과 나누게 하였으며,

“이같이 가진 소유를 저들의 자유로운 의사로써 하나님께로 향한 선한 마음으로……나누게 하니라.”(모사이야서 18:28)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베풀어 주면서 이런 의로운 느낌을 지닐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모로 7:47)을 지닐 수 있을까요?”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충실히 모든 계명을 지키면서 생활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 주고, 자기 가족을 돌보며, 교회 직책을 맡아 봉사하며, 선교 사업을 행하고 집일조와 현금을 바치고 경전을 읽으십시오. 이 외에도 얼마든지 더 열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잊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대관장의 제1보좌 엔 엘든 태너 부대관장, 제2보좌 매리온 지 룸니 부대관장, 고든 비 힙클리 부대관장

부드럽게 하시고, 차츰 차츰 베냐민 왕 시대의 백성에게 축복해 주셨던 그런 느낌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감화를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왕이 이르신 모든 말씀을 믿으며, 전능하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모두 참되고 진실함을みな이다. 주의 영은 우리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갖게 하시어 다시는 악을 죽으려 하지 않게 하시며 계속하여 선행을 하게 하시나이다.”(모사이야서 5:2)

주님은 그의 완전한 사랑을 그가 하시는 모든 일에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이때까지 창조된 무수한 세계를 보여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의 권능의 말씀으로 없어진 세계가 많이 있고 또 지금 존재하는 세계도 많도다. 이

들은 사람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이 되……

“한 세상과 그 하늘이 없어지면 다른 것이 있하나니, 나의 일이나 말씀에는 끝이 없느니라.”(모세서 1:35, 38)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가 창조하신 광대한 세계를 보여 주시고 나서,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완전한 비이기심을 압니다. 주님의 모든 사업과 영광은 그의 자녀에게 영생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생에서 우리의 모든 목적도 서로 올바르게 봉사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면 어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도로 17:47)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전체적으로 “마음이 청결한”(교성 97:21)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록된 애녹 백성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니……자기 백성을 시온이라 칭하셨으니, 이는 저들이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의롭게 생활하여 저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음이더라.”(도세서 7:17-18)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따른 격변기에 살아 남고 그 이후로 복음에 따라 생활한 나파이인에 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모두 개심하여 주께로 돌아왔고, 백성들 간에 다툼이나 불화가 없었으며 사람들이 서로 대하기를 바르게 하였더라.

“또한 저들은 저들의 온갖 소유를 공유하였던지라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속박된 자나 자유로운 자의 구별이 없이 모두 자유로웠고, 저들이 모두 하늘의 은사를 받았으며……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인간 중에서 이들보다 더 행복한 백성이 없었으니”(나파이사서 2, 3, 16절)

왜 이 백성들은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그들은 이기심의 사슬에서 벗어났으며,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 즉 궁극적인 기쁨은 봉사를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한결같이 마음이 청결한 백성이 되기를 꿈꾸며 이상적인 목표로 삼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명하셨고 또한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를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니일 3:7)으로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갖는 상태에 도달할 때 서로 봉사하려는 열의가 커져 온전히 현남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경지

에 도달할 것입니다. 현남의 법대로 살면 가난한 자가 높아지고 부자가 겸손해집니다. 그 과정에서 양자가 모두 성결케 됩니다. 빈곤의 굴욕적인 제한과 속박에서 벗어난 가난한 사람들은 자유인으로서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자신의 잠재 능력을 완전히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부자는 강제로가 아니고 자유로운 의지로써 기꺼이 헌신하고 남는 물건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물론이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도로 7:47)이라고 한 그런 사랑을 이웃에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있는 공통되는 바탕이 마련됩니다.

완전히 복음에 따르는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백성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것이며 산蟠대기와 높은 곳에서 번성하고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온 마음과 정신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케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의 가운데 거하며 가난한 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시다. 그리고 이 위대한 프로그램을 갖고 전진합시다. 복지 원리는 영원합니다. 복지 프로그램은 현남의 윤법의 원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나는 내 경험에 의해서 이 일이 주님의 사업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가본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장소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다면,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기꺼이 헌납할 수 있으며, 그것은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일도 포함됨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복천년이 오는 것을 재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 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



고든 비 힙클리 부대관장  
대관장의 보좌

“사랑을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악의나 증오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곧 마음을 들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대너 부대관장님과 롬니 부대관장님 그리고 스미스 상호부조회 회장님의 부탁을 받아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라는 상호부조회 주제로 말씀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1856년의 윌리와 마틴의 손수레 부대에 관해 잠시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그 부대에는 스칸디나비아와 영국 제도에서 교회로 개종해 들어온 천 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기적으로 늦게 미대륙에 도착하였으며,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오와주 아이오와시를 늦게 출발하여 이 계곡까지의 긴 도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와이오밍주에서 눈 속에 갇히게 되었으나, 다행히도 영국에서 귀환하는 몇몇 선교사들이 그들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손수레 부대의 성도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보고는 가능한 한 빨리 이 계곡으로 달려와 브리감 영 대관장에게 이들에 관해 보고했었습니다. 그날은 1856년 10월 대회가 열리던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니다. 이를 날인 일요일 아침에 그는 이 스웨어 자리에 있었던 옛날 태버내를 안에서 성도들 앞에 나와 오전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대회에서 말씀하실 장로들에게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손수레를 끌고 평원을 횡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약 1120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들을 이곳으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려기 위해서는 구조대를 파견해야 합니다. 주제는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오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신앙이며 내가 받은 성신의 지시입니다. 성도들을 구해야 합니다.

그는 수레와 말과 마부를 소집시킨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들은 이들 손수레 부대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들을 위해 모포나 양말이나 신을 가져 올 수 있는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드나 겨울용 모자나 스커트나 외투 등 각종 의류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이를 후인 화요일 아침에 27명의 젊은이들이 4필의 힘센 말이 끄는 포장마차 16대에 식품과 구호품을 가득싣고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포장마차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남자들이 말과 마차를 준비하여 도우려 가자 여자들은 넉넉치 못한 살림에서도 식품과 의류와 모포와 그 외의 생활 필수품을 모았습니다. (리로이 알 헤이픈, 시온으로 가는 손수레, 그린데일 캘리포니아 : 아더 에이치 클라크사, 1960년, 119-26페이지)

우리의 역사에서 이것보다 더 영웅적인 일화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불쌍한 성도들이 대부분 손과 발에 심한 통상을 입고, 몇몇 사람은 간신히 목숨만 유지한 채 이 계곡에 들어서자, 이곳에 있던 자매들은 그들을 집으로 맞아들여 음식을 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며 걸고 추운 겨울 동안 그들을 간호하며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행파리가 되고”(고전 13:1)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궁핍한 자를 돋고 외로운 자에게 친구가 되어 주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병든 자를 간호해 주는 상호부조회 여성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사랑에 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을 용서하고 그들의 잘못에 관용을 갖고 대하며, 이웃에 대한 시기심과 불친절을 차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때는 아주 친했던 두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한 여성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우연한 사고로 인해 결과적으로 친구의 아이를 죽게 했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으로 두 여인 중 누가 더 큰 마음의 고통을 받았는가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참사를 가져 온 사건에 개입되었던 그 여인은 수년 동안 슬픔에 잠겨 눈물로 지냈습니다. 그것은 비단 죽은 아이나 비극적인 상황에 처한 자신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끝내 용서해 주지 않으므로 마음이 더욱 슬펐던 것입니다. 아이를 잃고 애통해 하는 어머니의 슬픈 심정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친구에게 잘못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비난하는 마음보다는 친구에 대한 사랑이 앞서야 했습니다. 결국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그 여인의 영혼은 짓밟히고 행복은 산산조각이 났으며, 그녀는 밤낮으로 불행을 되씹으며 슬픔의 나날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모로 7:47)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

그를 참혹하게 십자가에 매단 무리들을 내려다보시며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24)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다른 사람에게 악의나 증오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곧 마음을 돌리시기를 부탁합니다. 증오심은 곧 사자지며 고통은 곧 가시나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고전 13:8)입니다.

이 문제를 다른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상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문의 특별 기고가의 글과 라디오, 텔레비전 해설자의 의견을 계속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들의 주 목적은 결점을 찾으려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비판적이고 때로는 악의에 차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가를 비판합니다.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지상에 살았던 인간 중에서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 나가는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위정자를 지지하지 않고서는 그 정책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나는 모든 여성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삼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점을 찾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남을 칭찬하는 것이 더욱 고귀한 것입니다.

어머니되시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나는 최근 신문에서 우리 고장의 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 조사에서 그들이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비우호적으로 대한다는 기사를 읽고 저으기 실망했습니다. 나는 그 조사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조사의 결과가 사실이라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가능성의 밤에서 자녀들에게 우정과 관용의

정신을 가르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친절과 협조의 정신으로 대해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카밀라 아이링 킴볼 자매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분의 남편이 병석에 누워 계시는 동안 밤낮으로 남편 옆에서 간호하시는 모습을 자주 보아 왔습니다. 그분이 남편에게 쓸은 정성과 결코 시들지 않는 사랑과 극진한 보살핌은 마치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그분은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하면서 모든 생명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은사임을 아는 자매로서 굳세고 겸손한 여성의 본분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범이 되는 그녀의 성품



중에는 특히 젊은 여성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대가족 가운데서 자라났습니다. 그분은 여러 형제들 중에서 처음으로 교육을 받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교육에 대한 그러한 열의 때문에 결국 성공하였습니다. 그분은 직업을 얻기 위해 자격을 획득하였고, 돈을 벌어 일부를 그녀의 형제자매들의 교육비로 사용했습니다. 그 가문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김볼 자매님은 배움에 대한 열의가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생애에서 득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젊어서는 득서에 탐닉했으며, 만년인 지금도 그분은 득서로 위안과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여성에게 끊임없이 발전하고 자신의 꿈을 펼치며 견문을 넓히고 역사상 수많은 위인의 사상을 섭렵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준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친절하고 사려깊은 인간의 표본입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실제로 빈곤한 생활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험은 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싸튼 그러한 가치관으로 그분은 곤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돋기 위해 사랑과 동정을 베풀어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께서 그분의 모범을 따르시기를 원고드립니다. 주님의 축복이 그분과 그분의 사랑하는 남편 위에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생활이 온통 아름다운 소망과 꿈으로 가득 찬 젊은 자매님들에게 그러한 꿈이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기르고 가르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젊은 어머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삶의 아름다움과 슬픔을 몸소 겪고 체험한 연로하신 자매님들을 축복해 드립니다.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라 영원히 참는”(모로 7:46-47)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

## 전환기에 선 상호부조회



바바라 비 스미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고통이 따르는 전환기는 누구나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는 질병, 사망, 독신으로 지내겠다는 생각, 이혼, 자녀를 갖지 못함, 이사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에 나는 남편과 함께 솔트레이크 계곡이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올라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에 정전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집으로 다가가고 있을 때, 이웃에 사는 한 어린 소년이 우리가 어둠 속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와서는 그의 회중 전등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전등이 또 하나 있으니 필요한대로 쓰세요.”

나는 어린 소년이 관심을 보여 준 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기꺼이 빛을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그 소년은 진심으로 우리를 염려해 주었습니다. 그는 필요할 때 우리를 도울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후 그 소년에 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친절하고 인정이 많았으며 또한 기꺼이 그의 빛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본적인 메시지와 또한 상호부조회의 표어인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를 나

타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로 이 소년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사람들에게서 일시적이나마 빛의 균원이 사라져버릴 때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빛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준비하라는 권고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생각해봅시다. 그들은 각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왔을 때 그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인 장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마 25: 2-10)

우리는 그리스도의 합당한 제자가 되기 위해 진리를 이해하고 성실하게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을 하여, 승영에 이르는 데 합당하도록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보다 큰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필요한 시기에 우리가 준비한 방법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 소년은 필요한 때를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는 우리의 어두운 길을 밝혀 주기 위해 전등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 25: 35-36)

그분은 분명히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물질적,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할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해 주었읍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 사랑의 시작입니다.

최근에 나는 한 와드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한 젊은 어머니가 말씀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녀는 시력을 잃어 가고 있다고 말했읍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글을 읽어 주고 약속 시간에 맞춰 그녀를 데려다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피아노를 가르쳐 주는 자매에게도 감사한다고 말했읍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친절하게 대해 줌으로써 그녀에게 빛을 주었고, 암흑의 세계로 접어들고 있는 바로 그 어려운 시기에 그녀의 두려움을 덜어 주었읍니다.

고통과 혼란이 따르는 전환기는 누구나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 각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중병이나 만성 질병도 그중에 하나이며,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나 남편의 죽음도 또 다른 변화가 될 수 있고, 또한 독신으로 지내겠다는 생각, 이혼, 선교사를 마치고 귀환하는 것, 자녀가 없는 결혼 생활, 막내의 결혼,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는 일, 청년 조직에서 상호부조회로 옮겨 갑, 고등 학교에서 대학으로 진학함,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감 등이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 처하면 그에 알맞게 적응해야 하며, 어렵고 고통스런 생활이 될지도 모르는 변화된 생활 양식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롭고도 다양한 생활 양식을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합당하지 않게 된 우리의 구태의연한 행동 양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친절하고도 기쁜 마음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합니다. 상호부조회는 전환기에 처한 자매들을 위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역

원과 교사와 회원들은 우리 자매들이 당면하고 있는 전환기에 밟게 되는 압박과 불안에 대해 소상하게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최근에 미망인이 된 어느 자매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하는데서는 만족을 느껴 왔으나, 지금에 와서는 도움을 청하는 일이 심히 어려운 일임을 알았읍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혼명하게 도와 주기를 자청했읍니다. 그녀는 또한 다시 자립하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 만큼 강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엄격한 규칙 생활을 해야 하는 선교 사업을 마친 한 젊은 여성은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현실을 직시하고, 데이트나 수영이나 소설을 읽는 것과 같은 활동에서 불편을 느끼지마는 이러한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교회의 독신 회원을 위한 대회에서 한 여성이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한 후에 닥친 무서운 현실에 대해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매님은 내가 독신 회원들이 모여 있는 방으로 걸어 들어가 나도 이제 그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는 데 얼마만한 용기가 필요했는지 모르실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설명하기도 힘들군요.”

우리는 참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보다 잘 알고 이러한 어려운 전환점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환기에 관한 다음과의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배웠습니다.

1. 변화는 영적, 물질적, 지적, 심리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타락을 초래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새롭지만 통상 어려운 길입니다. 그것은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전환기에 겪는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은 괴상적인 유아기의 경험에 의하여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다른 사람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영향을 받습니다. 적극적이고 우호적이며 지속적인 관계는 인생의 큰 변화의 시기에 유익한 힘이 됩니다.

3. 적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가 일어날 때 이것에 개인의 환경에 따라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각 사람이 다르듯이 그에 적응하는 방법도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4. 전환기에는 다소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때 친구와 동료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게 되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적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상호부조회의 자매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느낄 수 있습니까? 진실한 우정과 신앙을 통해 전환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습니다. 진실한 우정과 신앙이 있으므로 미망인은 도움을 구하게 되고, 이혼한 여인은 용기를 얻게 되며, 귀환 선교사는 새로운 생활 양식에 적응하게 되고, 젊은 어머니는 분별력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해아릴 수 없이 많은 변화를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변화가 복잡한 사회적 변화와 함께 날로 증가하고 심화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여성은 자신의 힘이 부족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변치 않는 우정의 고리를 이루는 가정이라는 보금자리를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웃의 어려움을 예민하게 관찰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성품인 용서, 온화함 그리고 친절을 기억함으로써 사랑과 관심의 태도를 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주의 탄생을 알린 백성들에게 선의를 베풀 수 있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역경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구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한한 선의를 지니고 있다 해도 모든 자매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는 없으며,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가져야 하며, 그것을 그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립된 것입니다. 나부 상호부조회가 조직되어 처음으로 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루시 맥스미스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조직은 훌륭한 조직입니다…… 우리는 서로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고 배워야 합니다.”(나부 여성 상호부조회 모임기록, 1842년 3월 17일, 1842—1966 상호부조회 역사, 본부 상호부조회 임원회 발행, 1966년, 20페이지)

상호부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 수 없는 필요 사항에까지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남을 잘 돌보아 주는 성품을 지닌 한 방문 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가 담당한 자매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습니다. 그녀가 준비 모임에 갔을 때 방문 교사 메시지 교사는 방문 교사들에게 그들이 맡은 자매에게 카드를 보내고 그 속에 몇 자 글을 적도록 부탁했습니다.

그 방문 교사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글을 적지도 않고 이미 카드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동안 생각한 후에 그녀는 드디어 몇 마디 인사말을 써 넣은 카드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1월에 지명받은 자매들을 방문하

려 했을 때 먼저 비활동적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그녀는 작은 탁자에 오직 하나의 카드만 남겨 놓고 다른 카드는 치웠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몇 자 글을 적었던 바로 그 카드였습니다. 그 자매는 비회원 친구에게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회원들은 5리를 가자하면 10리를 가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보이기 위해 이 카드를 남겨 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전에 이러한 말을 한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실제로 보여 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방문 교사가 다음달에 그 집을 다시 찾아갔을 때, 집안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가구의 먼지가 말끔히 닦여져 있었으나 그 카드는 여전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달도 카드는 그곳에 있었고 그 다음달도 또한 그 다음달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방문 교사는 이 비활동 자매에게는 보다 분명하게 관심을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조그마한 친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았습니다.

상호부조회 부름을 완수함으로써 자매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화라는 어려운 전환점을 가져 올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남을 보살피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모든 직책은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매가 일생을 위해 설정한 목표를 향해 발전해 나아가며,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자신과 가족과 사회적 유대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상호부조회의 모든 공과는 자매들에게 복음 원리, 곧 그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각자의 생활에 반영하여, 어떻게 이 원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보다 많은 봉사를 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가사 소단위 반은 단지 가사 기술을 가르치는 것 이상의 뜻을 해야 합니다. 기술을

기쁜 마음으로 활용하여 남을 도와 주는 협신적인 태도를 갖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상호부조회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젊은 여성들에게 생의 중요한 사업을 행하도록 돋고, 교회내에서의 여성의 무한한 기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젊은 상호부조회 자매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지도자 여러분은 그들의 능력과 열의와 상호부조회의 책임을 나누어 지고자 하는 열성을 과소 평가해서는 안됩니다. 그들의 영적인 준비와 헌신과 그들의 신선한 지각력은 신체적인 성숙을 능가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들을 참여시키십시오. 그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로부터 배우십시오.

젊은 상호부조회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혼신으로 상호부조회가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다 큰 자신감과 비전을 갖고 성인이 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상호부조회에서 여러분을 도와 드려도 될까요?

지금이 구시대의 전환기임을 잊지 맙시다. 통계 숫자를 보면 많은 수의 여성이 미망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지난 30년 전만 해도 이상하게 여겨졌던 그려한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연로해가는 과정은 우아한 성취기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또한 좌절감을 느끼는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느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연로한 상호부조회 회원의 딸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자매님의 어머니는 오랫동안 우리 와드에서 봉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연로하십니다. 어머니를 교회 모임이나 사교 모임에 참석시키려면 자매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야 합니다. 우리가 자매님의 어머니를 모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연로한 자매에 대한 상호부조회의 관심은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인 기능

저하를 참작하여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연로한 자매를 도와야 합니다. 그들의 외로움은 질병과 마찬가지로 심신을 허약하게 만들니다. 도저히 빠져 나갈 수 없는 감방에 있는 죄수에게처럼 고독감이 느껴집니다. 노인이 된 자매님들은 대개 스스로 아주 쓸모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참여시켜서 그분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상호부조회는 연령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자매들이 무관심 속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제적인 통신망을 갖고 있습니다. 방문 교사 여러분, 나는 여러분께서 상호부조회의 영을 각 가정에 전달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외로운 자를 돌보십시오. 병든 자를 간호하십시오.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십시오.

제임스 톰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빛이여! 자연의 빛 나는 예복이여! 빛의 아름다움이 없이는 모든 것은 침울 속에 싸이게 되리라.”(새 명언 사전, 트리온 에드워드 편, 미국: 스탠다드 출판사, 1961년, 363페이지)

대회 방문자



어두움을 내어 쫓고 진리의 빛을 가져다 줍시다. 여러분의 지각과 이성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누구이며,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빛은 세상에 비추이기를 고대하고 있으며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비춰고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생을 밝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환과 변혁의 시대에 인간은 성령의 빛을 갖기보다는 어두움에 말려 들기가 더 쉽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그들을 찾아 내어 복음의 빛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매들이 이 점을 마음 속 깊이 새겨 두어야 합니다.

회곡 “윈터세트”에서 파이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암흑 속에서 빛을 구하기 위해 여명으로부터 이리로 달려오다가 아침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준비하여 자신의 빛을 나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일지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아름다운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모사이야서에 기록된 여러분의 침례 서약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앤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집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죽을 때까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모 18:8-9)

이 귀결은 우리가 전환기를 맞아 교회의 자매로서, 서로 돋는 상호부조회 자매로서 해야 할 역할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자선 봉사와 이해와 포용력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을 빌하고 사랑을 전하여 우리 자신이 현명하게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주제에 나타나는 참된 빛을 발산하고, 우정을 나누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 끊임없는 배움의 길



셜리 더블류 토마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의 제2보좌

“상호부조회 공과 교재에는 우리가 구세주를 따르겠다는 매일의 노력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복을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S**티브는 9월에 7학년이 됩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 만큼 키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가 새로 산 바지의 단을 접어 넣을 때마다 어머니에게 약 12센치미터 가량 단을 남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많이 자랄테니까요.”라고 그는 말하곤 했습니다.

대체로 우리는 몇 센치미터 더 자라는 것에 그다지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몇 달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뜻깊은 성장을 하겠다는 신중한 결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초기의 교회 지도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이 변화의 세상에서, 우리는 예지를 키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쉴 틈이 없습니다.”(울슨 하이드, 설교집, 7:151) 이러한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계속하여 배울 기회를 제공해 주는 상호부조회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의 공과 과정은 모든 말일성도 여성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첫째 주에는 영적인 생활, 둘째 주에는 어머니 교육 공과를 하게

됩니다. 상호부조회 자매에게 다 자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과의 4분의 1은 어머니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여성들은 “축복사” 또는 “축복사의 반차”라는 용어에 익숙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영원이라는 것과 가정과 교회에서의 신권 사업과 연관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여가장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어머니는 가정에서 족장의 동반자입니다.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역시 영원하고 근본적인 사업에 속합니다. 이것은 생명과 사랑을 가져다 주는 것과 관계가 있으므로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상호부조회 회원인 몇몇의 여대생들은 자매들과 배주 양로원을 방문했을 때 이것을 배웠습니다. 첫 몇 주 동안에 느낀 점은 그곳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무기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살아서 무엇을 해보겠다는 의욕을 상실한 채 단지 마지막 순간만을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들은 계속 방문하여 간단한 음악 프로그램을 보여 주기도 하고, 책을 읽어 주기도 하고, 편지쓰는 일을 도와 주었습니다. 점차 할머니들은 매주 그들의 방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주에 걸쳐 이 젊은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그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 여대생들이 흥미의 불꽃을 당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할머니들이 옛날에는 대부분이 누비 이불을 잘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구를 갖다 주고 그 일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훌륭한 누비 이불 하나를 만들어 내고 두번째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학생들이 가져온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활동력과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어 준 젊은 학생들은 새로운 삶과 사랑을 가져다 주었으며, 연로한 자매들에게 “어머니”的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교육 공파에서는 출생이라는 신체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 가운데 생활하도록 도움을 주는 소양을 쌓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 원리에 역점을 두고 자매들의 현실적인 요구에 따라 다소 수정함으로써 어머니 교육은 모든 상호부조회 회원들에게 적합할 뿐 아니라 그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모세서 4장 26절에는 아담은 그의 아내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으므로 이브라고 불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브의 딸들입니다. 상호부조회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그녀는 독신이라 자녀도 없지만, 직장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었으며, 뛰어난 자신의 재능과 훈련을 통하여 그녀는 다른 사람의 삶에 사랑과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역할이 이웃에 사는 여덟 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처럼 주님의 지시와 인정을 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각각 다르며 종류도 다양 하지만 우리는 모성애와 관련이 있는 원리를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녀들의 요구를 출곧 들어 주어야 하고 동시에 일상 생활에서 훌륭한 표본이 될 만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젊은 어머니는 가장 실현 가능성 있는 목표를 제시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인내심을 배우고 실천하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권고하며, 바로잡아 주되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머니로서의 모든 자질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이와 같은 자질, 곧 이브와 같은 자질을 배우고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어머니로서의 부름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 관계, 문화의 정수 그리고 다섯째 주에 갖는 봉사와 관련된 공파는 모두 우리가 구세주를 따르겠다는 일상적인 노력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신권에 관한 복음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파를 통하여 우리는 예술과 세계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범세계적인 교회라는 인식을 강하게 해줍니다.

관리 체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면을 강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면, 와드 교육 담당 보좌와 각 반지도자가 갖는 월례 모임을 통해 교사는 모든 공파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대일의 의견 교환은 교육 담당 보좌가 공파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피력할 때 큰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교사는 종종 공파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있어 그에 대하여 토론할 수도 있지만 그에 얹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그녀는 어떤 점이 가장 효과적이었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칭찬에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교사가 단순히 공파를 훌륭하게 했다는 칭찬을 받게 되면, 그녀는 어떤 점이 잘 되었으며 잘된 점을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를 알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담당 보좌가 공파 시작을 훌륭하게 해냈거나 반원을 다루는 태도가 신중했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요인들을 지적한다면 교사로 하여금 긍정적인 면을 개발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워싱턴 세인 광장에서 대학교에 가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끌으로, 상호부조회의 풍요로운 배움의 기회는 영으로 배우고 가르침으로써 자매들의 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영으로 가르친다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어느 자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연로한 분으로서 시온으로 가는 도중에서 뉴욕시까지 밖에 갈 수 없었던 수많은 이민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던 그녀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스테이크 역원회의 분반 모임에서 우리 둘만이 있게 되었습니다.

임원은 우리에게 공과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교사로서 훈련을 받아 왔으므로 공과 계획과 목적에 관하여 몇 가지 사항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스런 자매님은 새로 배운 일로 떠들때문 자료를 연구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하고는, 무릎을 끊고 주님께 그 공과에서 와드의 자매들에게 강조해야 할

바를 간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녀의 온화한 영을 느낀 나는 주께서 확실히 그렇게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내가 꽂 들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날 뉴욕주 맨하탄에서 그런 일이 있은 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나는 결코 그분과 그분이 한 말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을 인도자로 삼고 계속해서 배울 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그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그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식과 예지를 증가시켜야 하며, 또한 영광스러운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 상호부조회와 복지 사업



매리언 알 보이어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의 제 1 보좌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피난민, 집이 없는 사람, 노인, 실직자, 병자, 유가족, 개인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복지 사업은 상호부조회가 창립될 때부터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자매들에게 사랑의 대상을 찾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돌보라고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책임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것은 1843년 8월 6일자 나부 “필수품 조달 위원회”의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존스 자매와 미첨 자매와 내가 우리 외드를 방문했다. 우리는 모든 집을 방문하고 많은 환자가 있는 것을 알았다……노령의 밀리자매는 않고 있었으나, 침대나 침구나 절아입을 옷조차 없었다. 부름리자매도 몹시 않고 있었지만 끼니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에이미 브라운 라이먼 편, 1842-92년 본부 상호부조회 임원회 모임 기록, 72페이지)

자매들이 한 사람씩 일어나 현금을 했었답니다. 윤리자매는 “양질의 모슬린 한 마와 모직 치마 하나와 60센트를 냈고……저먼 자

매는 밀리자매를 위해 웃 한 벌”(같은 책)을 내어 주었습니다.

일곱 명의 자녀를 둔 나부에 사는 미망인인 엘렌 다글라스 자매는 영국에 있는 부모에게 보낸 1844년 4월 14일자 편지에서 초기 상호부조회의 활동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나는 물시 않고 있었읍니다. 때때로 나는 죽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불쌍한 아이들을 생각했읍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읍니다. 나 혼자만이 기도한 것은 아니었읍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기도해 주었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었읍니다.” (케이트 비카터 편, 개척자의 유산, 솔트레이크시티 : 유타 개척자의 딸들, 1960년, 3 : 159)

다글라스 자매는 형세에 차도가 있자 한 친구를 방문했는데, 그 친구는 상호부조회에 나와 가족에게 필요한 의복을 요청해 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그에 동의했고, 우리는 [상호부조회]의 한 자매에게 갔읍니다……나는 그녀에게 말했읍니다……내가 아파 누워 있는 동안 옷을 수선할 수 없었으므로 자녀들의 옷이 모두 해어졌읍니다. 그녀는 나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읍니다……며칠 후에…… 그들은 마차를 물고 와 내가 전에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받아 본 일이 없는 선물을 주었읍니다.” (같은 책)

솔트레이크 계곡에서, 자매들은 꾸준히 봉사해 왔습니다. 때로는 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조지 에이 스미스 장로의 아내인 루시 미서브 스미스 자매는 그녀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출회하고 있읍니다. 손수레 부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구태버내를에서 10월 대회를 사회하고 있었던 브리검 영 대관장에게 전해졌읍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읍니다.

“영 대관장과 그 외에 사람들은 너무 기쁘고 또 그 부대가 눈덮인 산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염려되어 대회를 계속할 수가 없었읍니다. 대관장은 사람과 노새와 의복과 식량을

요청했습니다. 자매들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외투와 양말을 벗고 그들이 아끼던 것을 모두 내놓았습니다……그리고 그것을 마차에 실어 산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루시 미서브 스미스 회고록, 1886년 원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역사파)

교회 역사상 각기 다른 상황과 각 시기에 따라 상호부조회는 복지 사업에 있어서 저마다 다른 목표를 세우고, 그에 응해 왔으며, 새로운 개척자를 배출해 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기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난민도 있고 집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령자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병자와 유가족과 심령이 가난한 자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와 과중한 부담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회지에서도 소의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갑니다. 어떤 면에서든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도움과 예방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병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상호부조회가 하나의 조직으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도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호부조회 회원 각자는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합니까?

오늘날 엄청난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훌륭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부조회의 가장 큰 자산인 150만 명의 회원 이외에도 조직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교회 복지 자원의 하나가 됩니다. 그것은 첫째, 이 조직의 주요 목적은 언제나 복지와 관련되어 있으며, 둘째, 이 교파 파정에서 복지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자매들에게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과 부모가 되는 책임과 가사 등에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원리를 실천하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 조직은 교회의 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는 기간이 되기 때문이며, 넷째, 이것은 여성이 스스로 복지 사업을 행하도록 하는 가

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975년 베트남 정부가 합친 후에 많은 피난민들이 미국으로 수송되었습니다.

”제일전이 웰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프레지더오 군 기지에 도착했을 때, 그 지역의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그날 밤 부대로 와서 어린이들을 셋기고 먹여 주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는 일을 도우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새벽 4시경부터 모여들어 하루 종일 그들에게 예방 주사를 놓는 등 그들을 위해 봉사했습니다.”(1980—81년도 상호부조회 교재, 43페이지) 이 자매들은 전염병을 치료해 주며, 조국을 잃은 어린이들을 위로하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상호부조회는 조직상 모든 여성들이 재난을 당할 때 속히 둘볼 수 있는 조직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6년 아이디호의 티튼 램 참사 때에도 근처의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들은 와드 회장단, 방문 교사 관리자, 방문 교사 및 기꺼이 도움을 줄 자매들에게 자원 봉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리하여 짧은 시간내에 필요한 도움을 배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지 문제를 다루는 다른 중요한 자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자애로운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입니다.

상호부조회 회장과 그의 보좌들이 복지 사업 위원회 모임에 참석하여 중요한 토의를 하고 그들 회원들의 복지에 관한 필요 사항을 관찰하여 복지 모임의 안건에 그러한 자료를 포함시키고, 복지 위원회의 활동을 시행하도록 도울 때, 상호부조회의 복지에 관한 목표를 수행하게 됩니다.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이 감독의 지시에 따라 가족의 필요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하는 것도 궁핍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방문 교사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찾아 내도록 훈련시키는 회장은 예언자의 지시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므로 필요

사향을 찾아 내지 못하는 수가 종종 있읍니다. 그러므로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은 방문교사에게 절망과 외로움 또는 물질적인 결핍 등을 알아내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영리한 두 명의 방문 교사가 최근에 치과대학을 졸업한 한 형제의 가정을 방문했읍니다. 그 가족은 절제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하며 남편이 학업을 마치기까지 어려운 생활을 해 왔읍니다. 자매들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마루에서 놀고 있는 어린 자녀들의 구두창이 완전히 많아 조그만 발을 간신히 감싸주고 있음을 알았읍니다. 이것이 은밀하게 상호부조회 회장에게 보고되었고, 부모들에게 젊은 가장이 돈을 벌 때까지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도록 설득했읍니다.

상호부조회는 무엇보다도 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상호부조회가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은 자매들 개개인이 각자 필요 사항을 살펴보고 그것을 충족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지 문제는 그것이 문제가 되기 전에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지 원리를 매일 실천할 때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세상의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수 물품을 생산하거나, 소채원에서 채소를 재배하거나, 바느질을 하거나, 부엌 일을 하는 등 가정 비축을 실시함으로써, 여러분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됩니다. 자매들 각자가 질병을 예방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재정을 잘 관리할 때 복지 사업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칠 때, 곧 회원으로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적성에 맞는 직업에 종사하게 될 때 앞으로 닥치게 될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마음과 마음으로 도움과 위안을 주고 받는 것은 음식이나 주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자매의 남편이 최근에 직장을 잃었던 적이 있읍니다.

그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중에 그녀는 당시 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식품도 비축해 두었고, 은행에는 어느 정도 예금도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직장을 잃게 됨으로써 오는 정신적인 충격에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는 그때를 회상하면서 충격을 줄이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바로 상호부조회 자매들이 보인 사랑과 관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몇 년 전 영적인 생활 공과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배웠읍니다. “우리에게 힘이나 돈이나 그 밖의 것이 불충분하다는 생각은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을 방해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굶주린 자를 배불리고, 모든 집없는 자를 잠재우며,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할 수는 없다……그러므로 나는 한 사람도 둘지 않겠다.”(1980—81년도 상호부조회 교재, 43페이지) 그러나 앤마는 우리에게 “지극히” 간단하고 작은 것이 위대한 일을 이룬다고 (앤마서 37 : 6) 말했습니다.

150만 명의 회원들이 복지 기금이나 금식현금으로 100원을 내고, 하루 동안 자원봉사를 하고 방문(파자 한 봉지를 갖고 가지 않는다 해도)을 한다면, 많은 고통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지 사업의 개척자들을 통해 1842년과는 다른 영역으로 전개되어 왔으나 오늘날 상호부조회의 목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 내고 부족한 것을 들보아 주고, 배우고, 가르치고, 복지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 병든 자와 고통받는 자를 기억하라.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닌 연고 나라.”(교성 52 : 40)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렸읍니다. 아멘. \*

# 여성의 고귀한 지위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의 자녀의 성격을 형성시켜 주는 것보다 더 큰 성취감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참**으로 영적이고 영광스러운 광경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니 더 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고귀한 느낌이 듭니다.

나는 오늘 저녁에 교회의 위대한 조직인 상호부조회의 회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딸인 선택된 여성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나는 아버지의 책임에 관해서 신권을 소유한 형제들에게 말씀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계획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영광스러운 지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전한 원리와 영원한 진리를 자주 반복해 들음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항상 적용하고 다른 논쟁으로 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사악함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시대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은 더 험악해질 것입니다. 킵블 대관장은 지역 대표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상호부조회 역원과 교사는 어떻게 하면 부인과 어머니가 그들의 신성한 역할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 물어야 합-

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매가 가정을 사랑과 배움의 장소로 만들 수 있게 도울 수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가정에서 복음을 실천함”, 성도의 벚, 1978년 10월호, 157 페이지)

우리는 사탄의 계획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탄의 계획은 교회의 젊은이 곧 물문경에서 말한 대로 “청년”(엘 5 : 49 참조)과 가정을 파괴시키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신권의 동반자 역할을 할 여성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마땅한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모세서 3 : 18)

여성은 남자의 배필로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보완 관계는 우리의 최초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의 영원한 결혼에서 이상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했고 함께 자녀를 길렀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복음을 그들의 자녀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의로운 남녀에게 본받게 하신 모범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천국 회의에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 시온에서 아내와 어머니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해의 왕국에서의 승영은 그 부름에 충실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태초로부터 여성의 첫째되는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를 이 세상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태초로부터 여성의 역할은 자녀에게 영원한 복음을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여성은 자녀들에게 안전하고도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여성이 아무리 비천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생계를 이을 수 있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브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

들의 생각과는 달리 어머니의 위치는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신시키려는 음성이 높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음성을 솔깃해 하면 여러분은 중요한 책임으로부터 멀어져 나가게 되는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유혹의 음성 중에는 여성들에게 “생활 양식을 바꾸시오”라고 외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여성에게는 결혼 생활이나 어머니의 역할보다는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린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여성에게는 가사보다는 자기 성취를 위한 보다 흥미있는 일이 있다는 선전으로 자신의 불만을 터뜨립니다. 어떤 사람은 가사와 자녀들을 돌보는 “물론 여성의 판에 박힌 생활 양식”으로부터 교회가 탈피해야 한다고 과감히 제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산아 제한을 하여 개인적인 목표와 자기 성취를 위한 시간을 보다 많이 갖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개 자신이 항상 이상적인 환경 속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직장 생활을 하는 여人都 사람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할 수 없이 자녀들을 남에게 맡기고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마음은 집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과 동정을 보내며, 그러한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랍니다.

미망인 또는 이혼한 자매님들도 있읍니다. 그러한 처지에 있는 자매님들에게 나의 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총판리 역원들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야 할 크나큰 책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냉소를 극복해 내십시오.

나는 또한 교회의 모든 여성들이 이 지상에서 결혼해서 어머니가 되는 기회를 갖게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서도 합당하고 충실히 견디어 나간다면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모든 축복이라는 말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소수의 여성에 대한 해결책은 아내와 어머니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교회의 대부분의 여성과는 같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에 대비하여 교육적 또는 경제적인 면에서 준비하기 위해 남편과 자녀가 있는 가정을 떠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을 성공의 기준이나 자존심의 바탕으로 삼는 여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며, 교회 자매들에게서도 그러한 성향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킴볼 대관장은 말일성도의 복장에 관해서 “우리 고유의 표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자아상에 관해서도 “우리 고유의 표준”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보다 많은 세상의 재물과 보다 화려한 환경에 의해 자아상이 개선될 수 있다는 속임수에 빠져 들고 있습니다. 확고한 자아상은 물질적인 것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참으로 초라한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책임을 잘 알았으며, 그 속에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녀가 사촌 엘리사벳에게 한 겸손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 계집 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볼이 있다 일컬으리라”(눅 1:48) 그녀의 힘은 내적인 것이었으며 외적인 물질에서 온 것

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남에게 떠맡길 수 없다는 것은 근본이 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탁아소나 학교나 육아실이나 아기를 보아 주는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내보내 조기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이론이 비등하고 있음을니다. 그것은 가계 예산에 압박을 더해 줄 뿐 아니라 어린 자녀들을 어머니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어린이들과 접대의 자녀에게 인기 있는 교육을 시키려 들면 가장의 수입에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직장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정은 그야말로 근시안적인 것입니다.

어린이의 성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에 어머니는 기본적인 성격 형성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가정은 어린이들이 신앙을 배우고, 사랑을 느끼고, 어머니가 베푸는 사랑의 모범으로부터 의를 선택하도록 배우는 장소입니다.

가정에서의 어머니의 영향력과 가르침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임무를 소홀히 했을 경우 그 결과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나는 조금도 개인의 사생활을 들판 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활동적인 말일성도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가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은 경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발간된 한 잡지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통계 수치가 실렸습니다. “6세부터 13세까지의 1,4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직장을 가진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있다. 이것은 그들 중에 3분의 1은 매일 상당히 많은 시간을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유 에스 뉴스 앤

드 월드 리포트, 1981년 9월 14일, 42페이지)

어머니가 가정을 떠나 직장에서 일할 때 이혼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녀들에게 문제를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여러분은 생계를 위한 돈벌이의 책임을 남편과 함께 나누어 질 것을 결정하기 전에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과 잃는 것을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금전보다 어머니를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진리입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온의 부모는 자녀의 나이가 여덟 살이 될 때까지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그들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고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 그 책임은 부모가 지게 됩니다.”(복음 교리, 257페이지)

경전상에서 가장 놀라운 성공 사례 중에 하나는 아들들에게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쳤던 레이맨인 여성들에 관한 몰몬경 기사입니다. 이들 이천 명의 젊은이들은 어머니 슬하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웠습니다. 후에 그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위대한 신앙과 용기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 힐라맨은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저들은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것을 모친에게서 배운 자였더라.”(앨마서 56 : 47)

열쇠는 바로 “모친에게서 배운 자였더라.” 는 데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아들이 그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 어머니께서 19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어떻게 그와 같이 훌륭하게 키웠는지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에게 이와 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교육시킨 방법을 적어 보자니 상당히 망설여지는구나. 너희들을 키우기 위해 그 수많은 날들을 남 앞에 나서지도 못한 채 모든 시간과 정력을 다 바친 것을 그 누가 알기나 하겠느냐. 솔직하게 말해서 세상과 담을 쌓지 않고서는 아무도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인생의 황금기에 오로지 자녀들의 영혼을 구하려는 일념으로 20년 이상을 바친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그처럼 힘들이지 않아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러나 방법이 서투르고 훌륭하게 해내지 못했지만, 내 생각은 오직 그것으로 일관해 왔단다.”(프랭클린 와일더, 불멸의 어머니, 뉴욕: 베네이지 출판사, 1966년, 43페이지)

그 어머니의 이름은 수채너 웨슬리였으며, 편지를 보낸 아들은 바로 위대한 종교 개혁가인 존 웨슬리였습니다. 오로지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소망 가운데서 20년이라는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답니다. 그와 같은 일에는 무엇보다도 기술과 능력과 용기와 예지와 혁명함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어머니가 되는 원리를 알고 싶습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 원리를 실천하도록 가르칠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도 역시 “세상과 담을 쌓고” 인생의 황금기에 자녀들의 영혼을 구하려는 일념으로 20년 이상을” 바쳐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성격을 형성시켜 주는 것보다 더 큰 성취감을 주는 것은 없읍니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몇 어머니들에게 말일정도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에 관한 의견을 보내 달라고 했답니다. 이 생애에서 맡은 부름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성적이고 충실히 여성들이 보낸 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 아내이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정 주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진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정하신 나의 모친께서는 나에게 집안 일을 하는 데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언제나 모친께서 가정 주부로서의 역할에 만족해 한다고 생각했답니다. 현대의 여성 해방 운동에 관해서는 언

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현모양처가 여성의 본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글을 적어 보낸 분도 있었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아내나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역할에 만족합니다.” 아울러 자매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습니다. “만일 집안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옥신의 권세를 섭기지 마십시오. 영원한 안목을 지니십시오. 특히 기저귀를 채우는 일과 밤에 우유를 먹이는 일이 끝도 없이 계속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에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아무에게도 변명하지 마십시오. 텔레비전 연속 드라마, 잡지 기사, 소위 전문가들의 강연 내용과 같이 여러분의 역할을 저하시키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또 다른 젊은 어머니는 이렇게 적어 왔습니다. “내게는 아내와 어머니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이것은 학위를 받고 직장에 다니며 재능을 키우는 것이나 그 외에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이 어머니의 편지에서 자매들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여성, 곧 성도의 위대한 힘은 구세주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과 그분의 대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와 사도들을 믿는 데서 나옵니다. 그들을 따를 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아름다움을 더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화평으로 정서적인 안정을 이루게 되며,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하여 문제 해결의 방편을 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근원으로 하여 자신과 가족과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가정에서의 자신의 역할에서 성취감과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자매 여러분에게 훌륭한 충고의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랑스런 자매는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시온의 어머니들을 항상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을 계속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총판리 역원의 권고를 믿고 그 말씀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탁을 받고 용기를 얻어 나는 벤슨 자매의 제언에 따라 여러분과 이러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집안 일을 하는 데서 만족과 기쁨의 영을 발산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자녀에게 집안 일에 대한 태도를 실제의 모범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나는 단지 가정 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가르치든가 아니면, “집안 일은 여성에게 가장 고귀한 직분이다.”라는 생각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딸들에게 빵을 굽거나 요리하거나 바느질하거나 자신의 방을 정돈할 기회를 줌으로써 스스로 즐거움을 키울 수 있게 하십시오.

가정에서 매일 가족 기도를 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가족 기도를 드립으로써 자녀들이 주님께 의지하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경전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의 지시에 따라 매주 가정의 밥을 갖고 정기적으로 경전 공부를 하십시오. 특히 안식일에 그렇게 하십시오. 가족 경전 공부와 모임 참석과 다른 적절한 활동을 통하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가정에 훌륭한 문학 서적과 음악이 넘치게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가장 훌륭한 미술, 음악, 문학, 오락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들을 꾸중하기보다는 칭찬해 주십시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성취하였으면, 그것을 칭찬해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정규적으로 일거리를 주십시오. 집안에서 공통적인 일, 즉 소채원 가꾸기, 잔디 손질, 청소 등을 가족에게 분담시키십시오.

가정이 가족을 위한 사교 및 문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십시오. 여기에는 피크닉과 가정의 밤과 음악 프로그램과 마당에서 하는 게임 등이 포함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자유스러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도록 하십시오.

매일 자녀들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들이 문제나 의문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상담하려 오도록 격려하십시오. 데이트나, 성 교육과 그들의 성장과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과 같은 중대한 일에 관해 토론하십시오. 그리고 되도록 일찍부터 토론하여 그들이 합당하지 못하거나 거짓된 곳으로부터 이에 관한 지식을 얻지 않게 하십시오.

자녀들을 정중하고 친절한 태도로 대하십시오. 손님이 계실 때처럼 그들을 대해 주십시오. 결국 여러분에게는 자녀들이 손님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친절한 말을 하지 않도록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서로 충실히 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려는 열의를 심어 주십시오. 노인이나 병자나 외로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그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일찌기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도록 하십시오.

물질적인 것, 곧 보다 짚고 세상적으로 보이려는 끊임없는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산모나 태아가 이상이 없는 데도 가족의 수를 제한하고 남을 돋는 기쁨을 앗아가는 이기심에 사로잡히는 등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배은 망덕과 잔인성과 정서적인 불안정을 초래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강화시켜 주십시오. 여러분은 남편의 동반자입니다.

남성의 생활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그를 높이 들어올리고, 높은 표준을 지키도록 도와 주며, 의로운 생활을 통하여 남편에게 영원한 여왕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과 이해와 신뢰와 환영과 소속감을 느끼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딸로서 자신과 가족과 가정을 잘 돌보고 상호부조회를 통해 자매로서 서로 가까이 지낸다면, 청소년과 부모들을 괴롭히는 많은 문제를 무난히 해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맥케이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정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인생과 진리, 명예, 덕성, 극기, 교육의 가치, 정직한 일, 인생의 목적과 권리의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제일의 처소가 됩니다. 자녀를 가르치고 기르는 데 가정보다 더 훌륭한 장소는 없으며 어떠한 성공도 가정에서의 실패를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벚, 1971년 5월호, 20페이지)

이제 여러분은 왜 사탄이 어머니들에게 자녀들을 남에게 맡기기를 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사탄은 많은 가정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인 해를 본능적으로 피해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가족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십시오.

여러분의 동반자와 함께, 모든 가족이 해의 왕국에서 함께 사는 것을 가족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지상에서의 작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지상에서의 생이 끝난 후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곳에 있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모두 서로 사랑을 나누던 사람들입니다.

의자마다 채워지고,  
우리는 모두 함께 집에 있네……  
모두 함께  
여기 있네.

(찰스 스프레이그, 찰스 스프레이그 작품집, 뉴욕: 찰스 에스 프란시스, 1841년, 73페이지)

나는 나의 영원한 동반자인 프로라 자매의 혼신파, 낙관적인 성품파, 신앙파 성실함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는 가족에게 끊임없는 통찰력과 영감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아내의 모나지 않은 성품, 훌륭한 유우며 감자, 나의 일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뜻이 맞는 동반자가 되게 했읍니다.

아내는 끝없는 인내력과 지적인 통찰력으로 혼신적인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아내는 합당한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데 있어서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부름으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수행할 과감한 결의를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 나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대한 시기에 마땅히 시온의 아내와 어머니가 될 훌륭한 영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상에서 유일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여러분은 동반자와 함께 성실하게 생활함으로써 해의 왕국에서 영생을 얻는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읍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여성으로서의 진실성과 영원한 성품을 지니고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이 생과 영원을 통해서 더 할 수 없이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

# 교회 교과 과정에 관련되는 대회 보고

이 도표는 부모와 교사와 복음을 공부하고 있는 교회 회원을 위해 1981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을 성인 및 청소년 교과 과정과 연관시켜서 정리한 것이다.

## 1982년도 멜기세덱 신권 개인 학습 지도서 공과 총관리 역원

- 2 리그랜드 리차즈
- 5 엔 엘돈 태너 ; 고든 비 힙클리(토요일 오전) ; 브루스 알 맥콩키
- 6 찰스 에이 디레이
- 8 폴 에이치 던
- 9 매리온 지 롬니(복지 및 신권)
- 14 토마스 에스 몬슨
- 16 에이치 버크 피터슨
- 20 고든 비 힙클리(토요일 오전) ; 하워드 더블류 헌터 ; 던 엘 라슨
- 21 토마스 에스 몬슨
- 23 안젤 아브레아
- 24 매리온 디 행스
- 25 고든 비 힙클리(신권) ; 보이드 케이 콤비
- 26 에즈라 태프트 벤슨 ; 제임스 이 파우스트
- 29 닐 에이 맥스웰
- 30 매리온 지 롬니(토요일 오전) ;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 요시히코 기꾸찌
- 32 마빈 제이 애쉬튼 ; 엘 톰 페리 ; 매리온 디 행스
- 33 브루스 알 맥콩키

## 1982년도 가정의 밤

### 공과 총관리 역원

- 1 브루스 알 맥콩키
- 5 리차드 지 스코트 ; 안젤 아브레아
- 6 찰로스 이 애시 ; 찰스 에이 디레이
- 8 제이 리차드 클라크

- 9 요시히코 기꾸찌 ; 바바라 비 스미스
- 10 데이비드 비 헤이트
- 14 매리온 디 행스 ; 애드리 와이 고마쓰
- 17 닐 에이 맥스웰
- 20 안젤 아브레아
- 24 고든 비 힙클리(신권) ; 폴 에이치 던
- 32 매리온 지 롬니(신권)
- 33 엘 톰 페리
- 34 마크 이 피터슨 ; 로버트 디 헤일즈

## 1982년도 복음 교리반

### 공과 총관리 역원

- 1 엔 엘돈 태너 ; 브루스 알 맥콩키
- 2 고든 비 힙클리(토요일 오전) ; 토마스 에스 몬슨
- 3 로버트 디 헤일즈, 리차드 지 스코트
- 4 요시히코 기꾸찌
- 5 매리온 지 롬니(복지) ; 고든비 힙클리(신권)
- 6 매리온 지 롬니(신권) ; 바바라 비 스미스
- 7 폴 에이치 던 ;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 8 애드리 와이 고마쓰, 찰스 디레이
- 9 요시히코 기꾸찌
- 10 에이치 버크 피터슨
- 11 에이치 버크 피터슨
- 12 엘 톰 페리 ; 매리온 디 행스
- 13 마빈 제이 애쉬튼 ; 제이 리차드 클라크
- 14 데이비드 비 헤이트 ; 매리온 디 행스
- 15 마크 이 피터슨 ; 찰로스 이 애시
- 16 던 엘 라슨

- 17 매리온 지 롬니(토요일 오전) ; 리그  
랜드 리차즈  
18 보이드 케이 패커 ; 안헬 아브레아  
19 널 에이 맥스웰  
20 하워드 더블류 헌터 ; 데이비드 비 헤  
이트  
21 에즈라 태프트 벤슨 ; 제임즈 이 파우  
스트 ; 매리온 더 행스  
22 널 에이 맥스웰

---

#### 주일학교 14반

#### 공과 총관리 역원

---

- 1 마크 이 피터슨  
2 널 에이 맥스웰  
3 마크 이 피터슨 ; 로버트 더 헤일즈  
4 딘 엘 라슨  
5 에즈라 태프트 벤슨 ; 제임즈 이 파우  
스트  
9 보이드 케이 패커  
19 로버트 더 헤일즈  
24 제이 리차드 클라크

---

#### 주일학교 16반

#### 단원 공과 총관리 역원

---

- 1 1 칼로스 이 애시  
2 딘 엘 라슨 ; 찰스 디테이 ; 리  
차드 지 스코트  
3 에이치 버크 피터슨  
2 1 매리온 지 롬니(토요일 오전)  
2 엔 엘론 태너 ; 에즈라 태프트  
벤슨 ; 로버트 더 헤일즈  
3 마크 이 피터슨  
3 1 리그랜드 리차즈  
2 마빈 제이 애쉬튼  
3 고든 비 헹클리(신권)  
4 고든 비 헹클리(신권)  
5 고든 비 헹클리(토요일 오전)  
6 제임즈 이 파우스트  
7 매리온 지 롬니(신권) ; 폴 에  
이치 먼 ; 안헬 아브레아

- 11 매리온 지 롬니(복지) ; 테이비  
드 비 해이트  
13 월리엄 알 브래드포드 ; 요시히  
코 기꾸찌  
14 폴 에이치 먼

---

#### 주일학교 17반

#### 공과 총관리 역원

---

- 1 마크 이 피터슨 ; 하워드 더블류 헌터  
2 리차드 지 스코트  
3 매리온 지 롬니(신권) ; 딘 엘 라슨  
4 매리온 지 롬니(신권)  
6 고든 비 헹클리(신권)  
7 애드니 와이 고마쓰  
11 바바라 비 스미스  
14 토마스 에스 몬슨  
15 에이치 버크 피터슨 ; 보이드 케이 패  
커  
17 리그랜드 리차즈 ; 브루스 알 맥콩키 ;  
엘 톰 페리

---

#### 16반 및 17반 보충 공과 주제

- 1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널 에이 맥스웰  
2 자비와 공의 매리온 더 행스  
3 아론 신권 보이드 케이 패커  
4 복지 사업 원리 제이 리차드 클라크  
5 다른 사람을 사랑 데이비드 비 해이트

복지 사업 자원 지침서와 연관된 대회 말씀은 신권 지도자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가 복지 사업의 원리와 정책을 가르치고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 복지 사업 자원 지침서(1980년도판)

#### 제목 총관리 역원 / 기타 지도자

---

1. “복지 사업에 매리온 지 롬니(복지,

기초를 둔 복음 원리” 신권); 고든 비 헝클리(토요일 오전, 신권): 토마스 에스 몬슨;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메이비드 비 헤이트; 널 에이 맥스 웰; 매리온 디 햄스; 로버트 디 헤일즈;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제이 리차드 클라크; 바바라 비 스미스; 널 랜들; 조안 랜들

2 “조직과 임무”

3 “개인 및 가족 예비 프로그램 을 통한 절약

신권); 고든 비 헝클리(토요일 오전, 신권):

토마스 에스 몬슨;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메이비드 비 헤이트; 널 에이 맥스 웰; 매리온 디 햄스; 로버트 디 헤일즈;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제이 리차드 클라크; 바바라 비 스미스; 널 랜들; 조안 랜들

- 생활과 예방”; 바바라 비 스미스; 조안 랜들  
4 “도움을 주고 받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빈 제이 애쉬튼; 널 랜들  
5 “창고 자원 제도”  
6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회원”  
7 “계획과 훈련”

복지 사업 위원회 및 평의회는 모임중에 적어도 10분간은 훈련을 위해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에 열거한 권고의 말씀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사용할 훌륭한 훈련 지침이 될 것이다.

### 1982년도 상호부조회 교재

공과 방문 매시지	교사 교사	영적인 생활	어머니 교육	사회 관계
1 데이비드 비 헤이트				풀 에이치 던
2				브루스 알 맥콩키 닐 에이 맥스웰
3	리차드 저 스코트		풀 에이치 던	매리온 저 롬니(신권) 딘 엘 라슨
4 리그랜드 리차즈 브루스 알 맥콩키		제이 리차드 클라크		브루스 알 맥콩키 닐 에이 맥스웰
5	칼로스 이 애시			로버트 디 헤일즈
6 마크 이 피터슨 안헬 아브레아				
7 엔 엘돈 태너				

## 나의 전문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매리온 디 행스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그리스도를 찾고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자비가 약속되고 보장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대리인으로서 그가 지금 이 세상에 계시다면 직접 행하실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자비입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적었읍니다. “자비에는 이중의 축복이 있다. 그것은 주는 자와 받는 자를 같이 축복해 준다. 자비심이 정의를 다스릴 때 현세의 권력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장 가깝게 나타내게 된다.”(베니스의 상인, 제 4막, 제 1장, 186—87, 96—97행)

오늘 나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누구나 자비를 좋아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나의 원리로서의 자비, 비인격적인 자비는 비인격적인 신앙이나 회개나 사랑처럼 아무런 소용도 없고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수년 전에 새로 부름을 받은 선교부장의 좀 긴급한 초청을 받고, 착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완고한 사람의 집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젊은 선교사가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하여 나하고 이야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오해로 인해 악의없는 행동을 한 것이며 그 선교사는 이미 그곳



사과 방식과 해결에 만족했으나 내 친구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형태로든 처벌 즉 공개적으로 처벌하여 수치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젊은이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나는 꼭 그가 처벌받게 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공의는 대가를 요구하며 자비가 공의를 도적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였고, 그가 인용한 경전의 말씀이 물론경에서 인용되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내용인즉 젊었을 때 자비를 절실히 필요로 하였던 사람이 결국 자비를 얻어 하나님의 선택된 총이 된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 종은 스스로 저지른 심각한 죄를 정당화시키려 하며 회개하지 않는 아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버지 엘마는 코리엔톤에게 속죄의 의미와 결과를 가르치면서 공의가 차지하는 위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사를 통하여 오게 된 하나님의 “자비의 계획”에 관하여 세 번이나 간증했습니다.

그는 “자비는 회개한 자 위에 내리며”라고 말했습니다.

“자비는 자비에 합당한 자를 구하리니”(엘마서 42:23, 24)

“자비를 얻기에 합당한 회개가 주어졌으나, 그렇지 않으면 공의가 만물을 다스려”(엘마서 42:22)

코리엔톤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용서받았으며 “많은 영육을 회개로 인도하며, 위대하신 자비의 계획이 저들에게 임하게”(엘마서 42:31) 하기 위하여 선교 사업을 행하여 떠난 것입니다.

코리엔톤의 죄는 컸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가 저지른 사건은 악의가 없고 작은 것 이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토론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식탁을 사이에 두고 기대 앉아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공의를 원

합니다.”

나는 조용히 “나는 자비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세 번이나 점점 더 힘을 주어 가며 자기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나는 공의를 원합니다.”

그가 점점 더 크게 말할 때마다 나는 점점 더 작은 소리로 “나는 자비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는 데 합의하고 헤어졌습니다. 즉 공의에도 합당하게 하고 자비에도 합당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자신의 영원한 보상을 받고 떠났습니다. 나는 존경과 사랑을 갖고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나는 그분을 잘 알고, 사랑하게 되었고, 그분도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회개한 사람에게 약속된 그리스도의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그 순간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나는 공의를 원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최근에 지구 저쪽에서 또 다른 선량한 사람과 마주 앉은 일이 있었습니다. 밝은 빛과 따뜻함을 지닌 그가 재미있는 유우머를 말하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할 때 깊은 흥미를 느끼면서 들었습니다. 그가 한 이야기에는 거처를 동료들과 함께 바쁜 직업에 종사하면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지 않고 뭇 사람들의 나쁜 습관을 따르는 생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와 자녀에게 충실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기 가족에 대하여 염려하게 되었고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받았으며 육체적으로도 심한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두 젊은이가 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님을 대신해서 왔다고 말했으며, 그와 그 가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영원한 진리의 메시지를 갖고 있

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세워졌고, 모든 개인과 가족은 하나님에게 중요한 존재이며 그의 계획을 통하여 목적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가족은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되어 있으며, 성령은 진지하게 구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치식을 확인해 주므로 스스로 이러한 것이 참됨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는 즉시 나쁜 버릇을 버렸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도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에 입교하여 성령의 빛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의 사업은 계속 발전하여 곧 새로운 기회와 신용과 신뢰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특별히 자의식을 내세우지 않고 뽐내거나 꾸밈없이 가슴을 울리는 듯한 신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나는 한 가지 점에서 주님과 같습니다. 나의 전문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전문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거룩하신 아들에게도 전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는 경전과 더불어 오래 생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문은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사야 시대에 그의 백성에게 엄하게 권고하여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그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폐역한 백성 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이사야 30:9-10)

그는 그들이 그릇되고 사악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세상적인 권세에 의지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휼히 여기려 하심이라”(이사야 30:18)

그는 은혜를 베풀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는 자비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선지자들은 그를 “자비의 아버지”(고린도후서 1:3)시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많으신 궁зал”(베드로 전서 1:3)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회개하고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않으면…자비를”(엘마서 12:34) 있게 되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지혜…사랑과 자비하심”(니파이이서 9:8)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께서 “인애(자비)를 기뻐”(미가 7:18) 하신다는 간증이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전문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전문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온 세상에 외쳤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출도 알리라”(요한복음 8:26, 28)

경전에서는 그가 스스로 인간의 형태를 취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체휼”(히브리서 4:15) 하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혐재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히브리서 2:17)

이해심과 동정심이 풍부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오해받고 배척당하고 무서운 고독을 겪으셨으며 가난하셨고 머리 둘 곳도 없었으며 고뇌와 마음의 갈등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는 이해심이 많으십니다.

그는 용서해 주시고 평안을 가져다 주실 수 있습니다.

구세주의 전문은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우리의 전문도 자비를 베푸는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누가복음 6:36)

우리는 미가를 통하여 인간의 전반적인 책임을 배웁니다. 인간의 책임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고 우리 이웃 사이에서 바르게 행동하며 “인자를 사랑”(미가 6:8)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에 기도하러 간 두 사람의 비유를 들어 우리의 개인적인 자비의 필요성과 자비의 조건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은 교만하게 자신이 완전하고 의롭다고 외쳤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여 불쌍히 여기 유희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정직하고 가식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그가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에 내려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13-14 참조)

그는 도둑에게 얻어 맞고 길가에 버려진 사람의 비유를 들어 자비의 의미를 가르쳐셨으며,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나쳐 간 두 사람과 멈추어 서서 그 사람을 도와 준 한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심으로써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훌륭한 이야기의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그 나그네의 이웃인지 물으셨습니다. “가로되 자비를 베풀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누가복음 10:37)

그러므로 인간의 자비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비쳐 보여야 하며, 자비를 베풀어야 할 곳은 온 인류의 필요 사항만큼이나 광범위합니다. 시편 작가는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궁휼히 여기소서”(시편 31:9)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일만 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도서 7:20 참조)

구세주는 자신에 대한 가장 개인적인 비유에서 자신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집이 없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사람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마 25:35) 세상적인 근심 걱정에 시달리고 죄와 가난과 고통과 무능력과 외로움으로 얼룩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고, 주위에서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찾고 믿는 사람에게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자비가 약속되고 보장됩니다. 바람파 파도를 잔잔하게 하신 분이 죄인과 고통받는 성도들을 화평케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의 대리인으로서 그의 말씀을 외칠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이 세상에 계시다면 직접 행하실 일을



라파이 망풀리

그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분을 대표해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이전에 학교 교사를 했던 젊은 여성이 가족 몇 사람이 처참하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한 후에 어머니와 함께 고국을 탈출하여 어느 피난민 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분노하였으므로 이 타락한 세상에서 두 번 다시 입을 열지 않겠다고 맹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녀가 자기 자신과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무고하게 행해진 악에 대항하는 방법은 오직 그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5년 이상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여러 피난민 촌을 다니며 매일 매일 기적적인 사랑을 보이는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몇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표하던 이 비이기적인 젊은 자매들은 기적적인 의술을 갖춘 것도 아니었고,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을 어루만지는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위해 기도하고 손을 잡고 그녀

에게 사랑에 넘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그때 5년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으며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잠하라고요하라”고 말씀하신 분의 영이 교회를 대표하는 충실히 사람들에게 뻗치고 고난을 겪은 폭풍 속의 영혼의 한 가운데에 닿아서, 고통의 바람과 파도를 잡잡하게 하고 다시 신앙과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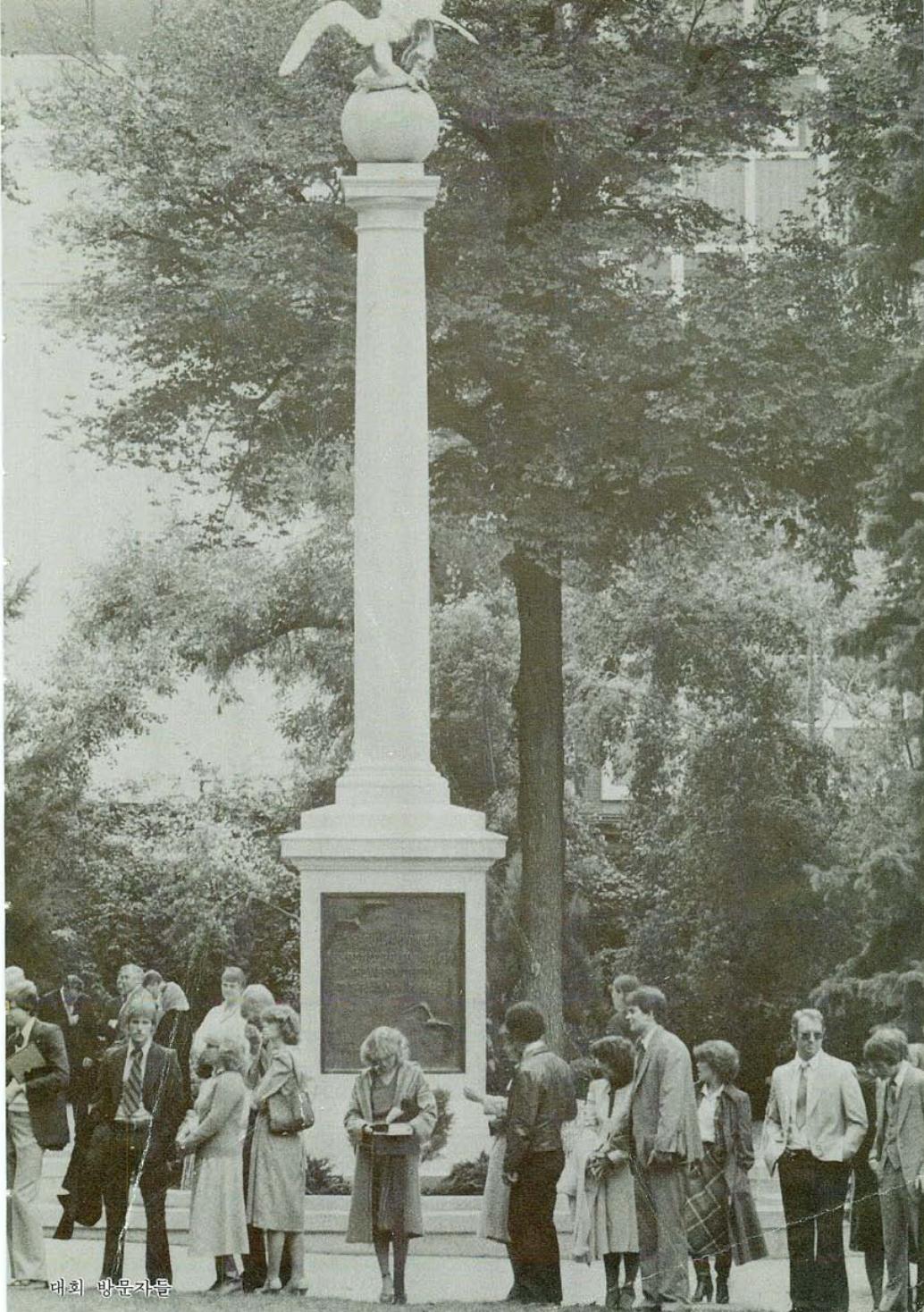
나는 나 자신과 내 자신의 것과 여러분을 위하여, 자비를 베푸는 방법을 찾고 자신의 생활에서 겸손하게 “나의 전문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라고 선포한 것을 모범으로 나타낸 그 사랑하는 형제처럼 똑같은 것 말을 들고 가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브리서 4: 16)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대회 방문자들



대회 방문자들

